



8

주체99(2010)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 ()년 제 호

(루계 제 호)

차 례

맑고 푸른 하늘아래서	3
그 자욱 영원하리라	4
조국은 철령을 영원히 못 잊으리	4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5
이날이 있어	5
주체문학의 대강	6
령장의 무쇠발자욱	6
오늘도 달린다 인민행렬차	6
정확히 내다보신 천기	7
수령님 우리 앞날 축복해주시네	7
계승	8
녀병사와 해당화	19
물고기들의 신기한 《사열식》	20
비료산은 쌀산이라오	20
서정시 《나의 조국》이 태어나기까지	21

《한일합병조약》	22
선군의 세월과 더불어	23
그날에 산다	25
조국해방의 그날을 앞두시고.....	26
산울림	27
교정의 감나무	39
리동춘과 경희극 《산울림》	40
의지	42
살림살이, 절약, 랑비	48
산촌의 랑만에서 내려치는 시대의 기상.....	49
《세계일주》	53
조피장의 답시	54
《고까짓거!》	55
가보에 비낀 대조적인 성격형상.....	56
스몰렌스크대도로	57
《바통》이 안겨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58
철의 봉화.....	59
돌물을 끓이는 마음	60
《천안》 호사건에서 역사를 보며.....	65
불을 토하는 상처	66
고국은 멀리 있어도	67
사회에 대한 이해	76
병사는 고지를 내리지 않았다	78
리규보와 의인전기체소설 《청강사자현부전》	79

맑고 푸른 하늘아래서

김 재 원

푸르다

조국의 머리우에 가없이 비낀

8월의 하늘은

맑고 푸르다

그 빛 살같이 비껴내려

륙해공군의 기상인양

땅도 하늘도 바다도 푸르고

인민의 마음조차 푸른가

백두의 푸른 정기 한몸에 지니신

젊으신령장 **김정일**장군

무적의 철갑대오 105땅크사단에

선군령도의 첫 자욱 새기신 그 아침

오, 항일로투사의 엄숙한 구령에

혁명적무장력이 영접들었 총으로

환희에 넘쳐 장군을 맞이할 때

그이는 우리 군대에 무엇을 안고 오셨던가

그이 탄생하신

백두산을 안고 오셨어라

혁명의 성산 백두산이 품고있는

그 고귀한 불멸의 혁명전통

만년초석으로 다지시려

혁명의 총대우에

당을 제일생명으로 고동치게 하시려

그날 백두의 천출명장

손길 높이 드시여

군사를 국사중 국사로 선포하실 때

쿵!... 하늘가 어디선가

위대한 선군의 봄우뢰 메아리쳤어라

아, 백두에서 총대로 개척되어

주체로 빛나는 이 땅

총대로 세계를 펼쳐갈

선군시대의 장엄한 해돋이여

그 해돋이의 빛발아래

우리 군대는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의 군대

우리 군대는 영원히

위대한 장군님의 군대

보아라, 력사의 그날이 있어

하늘 땅 바다를 찡찡 진감하며 노도쳐가는

강철의 정예대오 조선인민군

그 어떤 적진도

멸적의 화력으로 단숨에 불바다!

그 어떤 목표도

무자비한 타격으로 단숨에 재가루!

창공엔 우리의 위성이 날고날아

조국의 하늘은 저리도 푸르다

군민대단합으로 진을 친 강토엔

오곡백과 마음껏 넘실거리고

주체비날론... 주체철... 주체비료 폭포쳐내리고

푸른 바다엔 우리의 철갑상어떼

대양만리로 무리지어 나간다

이 땅 어느 집 들어가보아도

아들딸 입대증이 주련이 걸려있고

장군님 모시고 찍은 사진 가보로 빛나

그 누구의 자서전을 펼쳐보아도

군사복무의 영예가 빛나는 나라

군대이자 당

군대이자 국가

군대이자 인민인

내 조국의 하늘은 언제나 맑고 푸르다

땅도 하늘도 바다도 푸르고

인민의 마음조차 맑고 푸르다

그 자옥 영원하리라

김 용 엽

쿵쿵 가슴에 울려와라
낮이나 밤이나
비와도 눈와도...
전선길에 찍으시는
아, 선군령장 **김정일**장군님의 발자욱소리

어제는 그 발자욱
멸적의 기상 나래치는
땅크사단 훈련장에 올리더니
오늘은 천길땅속에서 울려와라
희천발전소건설대전장
석수 떨어지는 물길굴막장에서

멈춤이 있으랴 순간도
그 자옥따라 조선의 시간이 흐르고
그 자옥자옥우에
조국과 민족의 운명 미래가 실렸기에
해와 달 이끌고 걷고걸으시는 선군길

미제의 핵구름 몰아내며 한자옥한자옥
《제재》의 쇠사슬 녹여버리며 한자옥한자옥
《봄을 먼저 알리는 꽃이 되리라》
신념의 그 노래 부르며 넘고넘으신
눈비 세찬 철령과 오성산 칼벼랑이며
결사의 정신으로 조국을 수호한 그 강행군길

아, 가슴 뭉클 안겨와라
고결한 헌신의 그 세계

가 사

조국은 철령을 영원히 못 잊으리

주 명 옥

선군의 내 조국에 행복이 커갈수록
사연많은 철령을 우리는 노래하네
조국의 운명을 한몸에 안으시고
장군님 넘으시던 신념의 령길이어
아, 조국은 철령을 영원히 못 잊으리

선군의 낮과 밤 산천도 못 잊어
추억많은 철쭉꽃 붉게도 피었네
총대만이 이 땅을 지킬수 있음을

땀에 절고 비에 젖은 그 야전복
눈과 얼음이 가득 비낀 야전차
허나 인민의 행복 커가는 소리에
그것을 락으로 여기신 우리 장군님

그 자옥따라 불패의 성새가 솟아나고
시간마다 날마다 변이 나는 내 나라
주체철 비날론숨 폭포쳐내리고
대동강청춘파원엔 과일향기 진동하여라
최첨단동음 울려퍼지는 푸르른 하늘가엔
사계절 하얀 연 날아라

정녕, 어버이 우리 장군님 장장 50년
한몸바쳐 걸으시는 선군령도의 그 길은
강성대국의 지름길
백전백승의 길
만복이 꽃피는 천만리

씻기지 않으리라 눈비에도
덮이지 않으리라 락엽에도
세월의 끝까지 인민들 마음속에 영원할
백두의 선군령장 거룩한 자옥

오, 불멸의 그 자옥우에
세상 보란듯이 일떠선 선군의 내 나라
그 위용 누리에 떨치며
무궁토록 무궁토록 번영하리라!

장군님 철리로 새기신 령길이어
아, 조국은 철령을 영원히 못 잊으리

선군의 위업으로 존엄을 떨치며
강성대국 성벽으로 하늘높이 솟으리
이 땅에 천지풍파 몰아온대도
장군님마음속에 변함없을 령길이어
아, 조국은 철령을 영원히 못 잊으리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 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쓰시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전에 우리 나라는 벌써 일본의 독점적인 식민지가 되었다. 황제의 통치권은 〈한일합병〉 조약과 함께 일본천황에게로 모조리 넘어갔고 이 나라 백성들은 〈총독제령〉에 따라 움직이는 현대판노예가 되었다.》

《민중은 국권을 강탈당한 슬픔과 분노에 치를 떨었다. 〈시일야방성대곡〉의 여운이 사라지지 않고있던 이 땅의 초야와 지붕 밑에서 수많은 충신들과 유생들이 망국의 한을 참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름없는 백성까지도 칠성관에 오른 국운을 통탄하며 죽음으로써 치욕의 〈한일합병〉에 대답하였다.》

《나라가 망하면 산천도 사람도 결코 편안할수가 없다. 망한 나라의 지붕밑에서는 나라를 판 값으로 호의호식하는 매국노들도 발편자를 자지 못하는 법이다. 사람은 설사 살아있어도 상가집 개만 못하고 산천은 설사 지경이 남아있어도 제 모습을 보존하기 어렵다.》

이 날 이 있어

김길성

딘고사는 땅이 그저 흙만이 아님을
오고가는 마을길이 그저 길만이 아님을
내 그날에 알았어라
—해방이다 해방!—

마을사람들의 웨침소리에
온 산촌이 메아리로 화답하던
위대한 수령님 안아오신
해방의 날 8월 15일

산이 하도 높아 해빛도 들기 저어하던
북변의 산세험한 막바지마을에
바람처럼 나래돌린 환희의 격정
돌부리에 걸쳐여 넘어져도 아픈줄 모르고
어른들을 따라 덩달아 달려가던
산촌의 험한 서덜길이어

물밑듯 읊으로 뻗은 길 달음쳐가며
그 누가 선창을 떴었던가
끝안이 빠개질듯 산촌을 깨치며
두손 높이 들어 목청껏 웨치던
—**김일성**장군 만세!—
—해방만세!—의 우렁찬 소리

악독한 일제의 폭압에 짓눌려
빛을 잃었던 땅
조상대대로 노예살이에 피멍든 가슴들에
빛처럼 공기처럼 샘처럼 찾아든 해방의 기쁨에

사람도 산천도 낮도 밤도 하나로 어울려
춤추며 노래하던 해방의 날

해방조선의 우렁찬 만세소리는
우리 생활에 비쳐든 삶의 해살이였고
학습장에 새겨지던 우리 말 우리 글이였고
분여받은 발머리에 떨어진
부모들의 뜨거운 눈물이었어라

행운의 날 해방의 날과 더불어
내 운명 지켜준 조국의 품이 있어
다시 찾은 내 삶 얼마나 행복했던가
보람찼던 학창시절...
총잡고 선 초소의 병사시절...
내 한생 당파 조국을 위해 열정을 다 바쳐
강성대국언덕으로 달려왔거니

영원한 내 삶의 터전 선군조국의 복반은 대지여
삶의 기쁨이 시각마다 찾아오고
누구나 마음껏 행복을 누리는
그 행복이 시작된 8월 15일
아버이수령님 찾아주신 해방의 명절이어

아, 이날이 있어
우리 장군님 지켜주신 선군의 내 나라는
강성대국 래일을 눈앞에 그려보며
신심드높이 달려가고있어라

주체 문학의 대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는것은 주체적문학예술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이다.》

《우리의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시하신 영광스러운 전통이다.》

《우리의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은 자주시대의 개척기에 종래의 문학예술과 구별되는 주체의 문학예술을 창조하는 과정에 이룩된 새형의 전통, 주체의 전통이다.》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친히 불후의 고전적명작을 창작하시는 과정에 이룩된 가장 영광스러운 문학예술전통이다.》

경장의 무쇠발자국

서 봉 제

대지도 열기를 뽐냈다
강물도 더위를 싣고 흘렀다
8월 그날의 산천은
얼마나 뜨거움에 달았을것인가

뜨거운 대지를 밟으시며
뜨거운 공기를 호흡하시며
105땅크사단에 거룩한 선군령도의 첫 자욱을
찍으신
경애하는 우리 장군님

전사들이 터치는 열광의 환호에
손들어 답례를 보내시며
달아오른 땅크에 오르신
아, 그이는 빨찌산의 아들

장장수만리 우리 수령님
붉은기와 함께 잡고오신
백두산총대 그 총대우에
조국의 운명이 놓여있어
무적필승의 철갑대오
105땅크사단에서
선군령도의 첫 포성을 울리신 불멸의 자욱이여

내 새겨보노라
눈보라 사나운 날엔

얼음덮인 고지에 오르시고
무더운 날 땅크병들과 함께
땅크를 타고 달리신 위대한 령장
세계 어느 군력사에 있었던가

대공에 무적의 포신을 올리시고
승리만을 펼친 그이의 손길따라
위성이 날아오른 조국의 하늘이여
최강의 무력으로 위엄높은 땅이여
강성대국의 대기념비를 일떠세우며
원주들을 발밑에 딛고선 백두산장군이여

선군령장의 첫 사열을 받은
그날의 땅크부대 출진의 열풍은
억만총대 천만포신을 달구며
철의 대오에 불의 대하로 노도쳤어라
침략의 무리 영영 소탕할 필승의 의지
철마로 질풍치며 전군을 이끄신
8월의 그 자욱에서 굳게 다져졌어라

오, 백두령장의 위대한 심장에서 일어
누리를 진감하는 백승의 불우뢰
멸적의 번개 섬없이 뿜으리라
이 행성 제국주의 마지막아성에
최후종말의 지진을 터치리라!

가
사
오늘도
인민행렬차
달린다

김
석
렬

한평생 이 땅에 락원을 가꾸시며
수령님 타시였던 인민행렬차
아버이뜻이 어린 사랑의 천만리
장군님 타시고 이어가신다
아, 오늘도 달린다 인민행렬차

인민행 그 렬차 가는 곳 어디에나
수령님 평생념원 꽃피여난다
선군의 무릉도원 그 품에 누려갈

인민의 천만복 싣고서 간다
아, 오늘도 달린다 인민행렬차

장군님 가시는 인민행 그 궤도는
폭풍이 몰아쳐도 변함이 없다
인민의 리상 꽃핀 세월을 펼치며
렬차는 찬란한 미래로 간다
아, 오늘도 달린다 인민행렬차

정 확 히 내 다 보 신 천 기

평범한 자연현상도 스쳐보내지 않으시고 거기에서 앞날의 천기까지 정확히 내다보신 위대한 수령님의 절세의 위인상을 감동깊이 전하는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그 얼마인지 모른다. 그가운데는 그이께서 까치둥지를 관찰하시면서 앞날의 폭우를 예언하신 사실도 있다.

주체70(1981)년 봄이었다.

그해 봄에는 폐년에 없이 비가 자주 내리었다. 그때까지의 경험에 의하면 이런 경우에는 장마철에 농작물들이 가물을 타는것이 일반적인 사례였다.

이런데로부터 농업부문의 일군들은 그에 맞는 대책을 미리 세우면서 영농작업을 더욱 짜고들었다.

그러던 그해 6월초 어느날이었다.

한 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시며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문득 걸음을 멈추시고 키높이 솟은 나무에 눈길을 보내시었다.

그이께서 시선을 보내신 곳에는 까치둥지가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아무 말씀이 없이 한동안 까치둥지를 눈여겨 살펴보시다가 확신에 넘친 어조로 올해에는 분명 큰 장마가 질것이라고, 그것도 보통장마가 아니라 폭우를 동반한 장마가 지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이것은 전혀 뜻밖의 말씀이었다. 그해 장마철에는 가물것이라고만 생각하고있던 일군들이기때문이었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까치둥지를 관찰하시며 어떻게 앞날을 내다보시였을가 하는 생각으로 서로 얼굴만 마주보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러한 일군들을 바라보시며 왜 까치들이 둥지구멍을 우에다 내지 않

고 옆에 났을것 같은가고 의미심장한 어조로 물으시었다.

어디 가나 보게 되는 까치둥지여서 그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온 일군들인지라 누구도 그이의 물음에 선뜻 대답을 드리지 못하고 머뭇거리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일군들의 심중을 헤아리신듯 자신께서 그 리치를 설명해주겠다고 하시며 까치들이 제가 살 둥지의 구멍을 옆에 낸것은 폭우로 인한 장마로부터 자기들의 보금자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일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세심한 관찰력에 탄복을 금치 못하며 까치둥지를 살펴보았다.

아니나다를가 까치둥지의 구멍은 옆으로 나있었다.

까치가 둥지구멍을 윗부분에 낸다는것을 일군들은 모르지 않았다. 하기에 그들은 그 까치둥지를 보면서도 구멍이 어느 방향으로 나있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주의를 돌리지 않았었다.

그런데 무슨 자연현상이든지 무심히 대하지 않으시고 깊이 관찰하시는 우리 수령님께서만은 그것을 대번에 알아보시고 앞날의 일까지 내다보시는것이 아닌가.

그후 장마철이 시작되었다.

일군들의 관심은 매일과 같이 일기예보에 집중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그해 장마철에는 우리 수령님께서 예언하신대로 폭우가 자주 내리었다.

우리 수령님의 예언은 참으로 신비할 정도였다.

이 일을 두고 일군들속에서는 다시한번 경탄의 목소리가 터져올랐다.

위대한 수령님의 비범한 선견지명을 보여주는 이 이야기는 그후 또 하나의 혁명전설로 우리 인민들속에 널리 전해지게 되었다.

가 사

수령님 우리 앞날 축복해주시네

김 경 미

선경마을 새집들이 무릉도원 펼친 기쁨
수령님 우리와 함께 나누시네
인민의 리상 꽃피는 희망넘친 시대
환하게 웃으시며 축복해주시네 축복해주시네

비날론의 경사에도 주체비로폭포에도
수령님 평생의 념원이 어려있네
인민이 만복 누리는 강성부강시대
더 좋은 우리 앞날 축복해주시네 축복해주시네

강성대국대문 열고 태양조신문패를 달
수령님나라에 그 사랑 영원하리
장군님 펼쳐주시는 조국번영시대
이 세상 저 끝까지 축복해주시네 축복해주시네

아, 무궁세월 비쳐주는 태양의 해빛으로
수령님 우리 앞날 축복해주시네 축복해주시네

계승



김 룡 연

1

노을이 불타고있다.

금수산마루로 넘어가는 불덩이같이 이글거리는 태양주위에서 생겨 퍼지기 시작한 노을은 구름 한점 없는 맑은 하늘을 선홍색으로 섬세하게 채색하면서 금수산의사당의 지붕이며 벽이며 창문들과 그 주위까지도 붉은색으로 물들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집무탁을 마주하고 앉아 문건들을 보시다가 방안에까지 비껴든 붉은 색조를 감수하시고 눈길을 드시였다.

밖은 온통 노을의 세계다.

조금전 책임서기가 방에 들어왔을 때까지만 해도 이렇지 않았다. 그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한 태양이 다른 때보다 좀더 붉게 보일 따름이였었다.

책임서기는 인민무력부에서 올라온 몇건의 문건과 《백두산》권총합 견본품을 가지고왔었다. 문건들중 한건은 인민무력부에서 《백두산》권총 준비정형을 보고한것이였다.

《백두산》권총은 **김정일**동지의 지도밑에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우리 식의 무기로 만들어졌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권총을 두고 이미전부터 생각이 많으시였다. 이 총을 보다 의의있게 쓰고 싶으시였다. 그래서 얼마전에 인민무력부의 해당 부문 일군에게 올해 건군절을 맞으며 《백두산》권총을 여러정 준비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던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함을 쓸어도 보고 두드려도 보시였다.

《성의를 다했구만. 잘 만들었소.》

수령님께서 만족해하시자 책임서기는 성수가 나서 이번에는 뚜껑을 열어드렸다. 부드러운 모달리천을 둘러댄 함안에서 《백두산》권총이 번쩍거리고있었다.

《〈백두산〉권총을 오늘 다시 보니 정말 마음에 드오. 남자로 치면 미남이요. 책임서기동무도

잘 생겼는데 동무 못지 않게 미끈한 멋쟁이란 말이요.》

그이께서는 《백두산》권총을 손에 드시고 책임서기를 돌아보시며 유쾌하게 웃으시였다. 정말 마음에 드시였다. 안경을 추슬러올리시고는 중량도 가늠해보시고 방아쇠며 조성, 조문까지 세세히 살펴보시였다.

《우리가 산에서 싸울 때 이런 총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소.》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렇게 조용히 뇌이시며 한동안 권총을 드신채로 방안을 거니시였다. 가슴그득히 차오르는 감회에 잠겨계시던 그이께서는 문득 생각되는게 있어 책임서기를 돌아보시였다.

《참, 무력부 전대혁명무에 대해서 알아보았소?》

《예, 이 문건은 군의부문에서 전대혁명장령의 건강상태를 료해한 자료입니다.》

책임서기는 한걸음 다가서며 다른 또 한건의 문건을 올리였다.

《그렇소?》

수령님께서 손에 드셨던 권총을 넘겨주고 문건을 받아드시였다.

《이젠 다 나왔답니다. 본인이 요구하는대로 일을 해도 별일 없겠답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제때에 치료대책을 세워주시지 않았더라면 큰일날번 했습니다.》

문건을 한장한장 번져보시는 **김일성**동지의 눈가에 밝은 웃음이 피여올랐다.

《음— 오늘은 기쁜 소식만 찾아드는구만. 책임서기동무, 전대혁명무가 병원에서 퇴원하면 좀 데려오오. 건강해진 그를 보고싶구만.》

《알았습니다, 수령님.》

김일성동지께서는 책임서기가 방안에서 나간 후 백두산에서 싸우던 때가 떠올라 오래도록 사색에 잠겨계시였다.

노을은 그사이 온 하늘과 주위를 이렇게 붉게 물들여놓은것이다.

그이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로대로 나오시었다. 천지가 하나같이 붉은색이었다. 대동강과 합장강의 반듯한 수면도 붉은빛으로 번쩍거렸다. 그 우에 한가로이 떠서 노니는 물오리들도 금빛옷을 차려입은것 같았다.

저 맞은켠 혁명렬사릉의 대리석기폭이 노을빛을 받아 더 붉어지고 더 기세차게 필력이는듯싶다. 여기서는 혁명렬사릉이 지척처럼 바라보인다.

김정숙, 김책, 강건, 안길… 차광수, 김혁… 붉은 기폭앞에 나란히 서있는 항일혁명전사들…

그들은 마치 로대에 나오신 수령님을 뵈자 너무 반가와 키돋움하는듯싶다.

군복매무시를 다듬고 렬을 짓고 보폭을 맞추며 이쪽, 금수산의사당으로 행군해올듯싶다.

어깨우에서 총창이 번쩍이는것 같다.

《수령님!》하는 그들의 목메인 부름소리가 들리는듯…

그러나 자세히 보면 총도 총창도 없었다. 그들이 총을 댄것처럼, 어깨에서 총창이 번쩍이는것처럼 생각되신것은 방금전까지 항일전의 전사들을 두고, 총을 두고 사색의 세계에 잠겨계신때문인지도 모른다.

총!

추억은 아득히 먼 20년대, 무송의 그 잊지 못할 집으로 거슬러오른다.

6월의 비통한 그날, 방안을 무겁게 울리던 그 음성… 림종을 앞둔 아버님께서 어머님의 손을 꼭 잡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고향을 떠날 때는 독립을 이룩하고 함께 돌아가자고 하였는데 나는 못 갈것 같소…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가자니 시름이 안 놓ियो…

성주가 커서 투쟁의 길에 나설 때 이 권총을 넘겨주오.》

아버님은 눈물에 젖어 두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어린 자제분들에게 말씀하신다.

《나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간다. 그러나 너희들을 믿는다. 너희들은 언제든지 나라와 민족의 몸이라는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뼈가 부서지고 몸이 찢개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라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

망국을 통탄하기에 앞서 나라와 겨레의 운명을 구원할 큰뜻을 품으시고 억척같이 싸우셨고 기어이 그것을 실현할것을 바라시는 이 나라 혁명의 선각자, 탁월한 지도자의 분부이고 지상의 요구이시었다.

그날에 물려주신 두자루의 권총은 그 무엇으로 써도 대신할수 없는 혁명의 유산이였다.

저녁노을이 불타던 화전의 강반, 제국주의와의 판가리싸움을 선언하며 추켜들던 《ㄷ. ㄷ》의 억센 주먹들도 선히 떠오른다.

조선혁명의 진로를 밝히고 무장투쟁로선을 제시한 카륜과 명월구회의… 1932년 4월 25일 안

도현 소사하의 토기점골…

열혈의 청년들로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하던 일이 어제런듯 선하다.

그때로부터 돌기돌기 예순두돌기의 년륜을 아로새긴 우리 혁명무력의 창건절이 멀지 않았다. 앞으로도 총대는 조선혁명의 영원한 계주봉으로 더 억세게 이어져야 한다.

《김책동무! 정숙동무! 건군절이 하루하루 다가와서 그런지 총대로 개척되고 총대로 전진해온 우리 혁명의 력사가 감회깊이 돌이켜져 마음을 진정할수가 없구만.》

김일성동지께서는 마치 그들이 자신의 가까이에 있더라도 한듯 스스로없이 심중의 대화를 나누시었다.

《수령님!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던 참입니다.》

분명 김책의 목소리같다. 아니, 차광수나 김혁의 목소리같기도 하다.

《동무들도? 하긴 우리야 사상과 뜻을 같이해온 혁명동지들이니 그럴수밖에… 내 그래서 이번 건군절에도 인민군부대들에 좀 나가볼가 하오.》

《수령님, 저희들도 수령님을 따라 인민군부대들에 나가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군대가 김정일동지의 령도로 얼마나 강해졌습니까. 정말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지. 지금 김정일최고사령관이 있어 우리 군대가 더 강해지구 모든 일이 다 잘되고있소. 난 우리가 시작한 주체혁명위업과 조국의 미래에 대하여 락관하고있소.

세상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하고 적들이 얼마나 무서워서 벌벌 떠는지 아오? 우리 나라에 또 한사람의 천출명장, 백두산총대장군이 있어 무서운게 없구 두려운게 없소!

정말 우리 조선에 대통운이 났소. 그게 다 동무들의 공로지.》

《저희들이야 무슨… 그렇지만 김정숙동무는 정말 공로가 큼니다.》

겸양과 진심이 담긴 김책의 대답.

《아닙니다, 수령님. 수령님께서 키우셨습니다. 만경대혈통과 백두산이 그를 천하제일명장으로 되게 했습니다.》

김책과 나란히 서있는 김정숙동무가 저고리고름을 만지작거리며 다소곳이 머리숙이고 아뢰는것 같다.

《허허허… 만경대혈통과 백두산이라. 정숙동무의 그 말도 옳긴 옳소! 하지만 김정일동지의 총대중지사상이나 비범한 사격술은 정숙동무가 물려주었다고 봐야지. 내가 아버님으로부터 두자루의 권총을 물려받은것처럼 정숙동무는 김정일동지에게 바로 총대를 유산으로 물려주었지.》

김일성동지께서는 반세기나 거의 되는 오랜 세월이 흘러갔지만 총과 더불어 있었던 사연들이 옛그제 있었던 일처럼 방불히 떠오르는것을 어쩔수

없으시었다.

49년도 9월의 그 비통하던 날, 김정숙동무와 연결하고 그의 체취가 아직도 그대로 스며여있는 집에 들어섰을 때 어린 동생을 꼭 붙안고 서있는 **김정일** 동지의 손에 들려있는것은 다름아닌 김정숙동무가 애용하던 그 권총이었지. 그 권총은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앞두고 원동의 훈련기지에서 열렸던 사격경기대회때 만사람을 놀라게 하는 비범한 사격술을 과시하고 표창으로 받은것이였다.

총대의 사명감, 총대계승의 필연성을 누구보다 깊이 자각한 그였기에 아직은 장난감권총밖에 모를 어린 나이의 아들의 손에 자주 그 권총을 쥐여주었고 마지막길을 가면서도 그 권총을 유산으로 넘겨준것 아니던가.

나도 총을 혁명의 계주봉으로 넘겨주었지.

그밤은 적기들의 폭음도 멀리 사라져버리고 폴베레소리가 얼마나 유정했던가.

그밤은 김형직아버님께서 탄생하신 선여덟째 되는 뜻깊은 밤이기도 하였다.

나는 어린 그를 최고사령부 작전실로 불렀다.

이제 겨우 11살 잡히는 나이이다. 너무 이르지 않을가. 아니, 조국해방전쟁이 일어난 후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에 헤여졌다가 2년가까운 세월이 지난 뒤 평안북도를 현지지도하는 로상에서 다시 만났을 때 그는 키도 크고 몸도 좋아졌다. 하지만 그 나이에 그보다 더 놀라웁게 성장한것은 세상리치와 사물현상에 대한 관찰과 분석이 남다른것이었고 정신적으로 펴 조숙한것이였다.

너무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이 세상 고생이란 고생을 다한탓일가. 아니라고 할수는 없을것이다. 생각해보면 그의 생은 첫시작부터 남달랐다. 비범하고 특출하다고 할가, 그는 이 나라의 성산 백두산에서 빨찌산의 아들로 태어났다. 신령스러운 백두산의 정기가 그의 온몸에 뽀쳐있었다. 그가 호흡한 공기는 백두산의 맑은 공기였고 그가 마신 물도 백두산의 정가로운 물이였다.

어린시절의 자장가는 항일전장의 총포성이었고 활무대는 설레이는 밀림과 눈보라 울부짖는 백두의 광야였다.

어려서부터 대바르고 배짱이 센 성품은 만경대 가문의 혈통을 선천적으로 그대로 물려받은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다른 한가지는 세상에서 가장 정의롭고 신념이 강한 어머니와 항일의 혈전만리를 함께 헤쳐온 투사들의 품에서 총대의 귀중함과 그것으로 개척되는 투쟁과 생활의 진리를 배우며 성장한때문일것이다.

만경대혈통과 항일의 녀장군, 백두산이 그의 예지와 지략, 신념과 의지, 담력과 배짱, 열정과 인덕, 남아다운 호방한 성품을 키워주었다.

이렇게 성장한 그를 어찌 아직 어리다고 할수 있겠는가.

나는 그날 그가 격조높이 읊는 《남산의 푸

른 소나무》를 감동속에 들었다. 언제 그 시를 다 외워두었을까. 아니, 그것은 단순한 시랑송이 아니라 가슴속에 새겨두었던 결심과 의지의 분출이였다.

나는 기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였다. 이 뜻깊은 날에 그를 부른것이 얼마나 잘한 일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이 시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알겠지?》

《예, 〈지원〉의 사상이 담겨져있습니다. 〈지원〉이란 뜻을 멀리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너의 할아버지가 평생 신조로 삼으신 뜻이였다. 너의 할아버지는 그 뜻을 안으시고 자기 대에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지 못하면 아들대에 하고 아들대에도 못하면 손자대에 가서라도 기어이 일체를 쳐부시고 조국의 광복을 이룩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다. 할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실 때 나에게 〈지원〉의 뜻이 담겨져있는 권총 두자루를 유산으로 넘겨주시였다. 나는 그 권총 두자루를 밀천으로 삼아 첫 무장대오를 조직하고 반일대전을 선포했으며 조국의 해방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우리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해방후 남조선에 기여든 미국놈들이... 공화국북반부까지 먹어보겠다고 전쟁을 일으켰구나. 우리는 이 땅에서 미국놈들을 쳐부시고 남조선을 기어이 해방해야 한다. 우리가 20년 동안이나 산에서 고생하며 싸운것은 일제에게 빼앗긴 우리 조선을 되찾기 위한것이였지 북반부땅만 해방하기 위한것이 아니였다. 그러니 우리는 나라의 통일독립을 이룩할 때까지, 전 세계에서 제국주의자들을 모조리 쓸어버릴 때까지 혁명을 계속해야 한다. 이 권총을 오늘 너에게 준다. 혁명의 계주봉으로 알고 받는것이 좋겠다.》

두팔을 곧게 펴고 정중한 몸가짐으로 섰던 그는 한발자국 앞으로 나섰다. 권총을 한참 바라보다가 두손으로 받아든 다음 온몸에 힘을 주며 대답했다.

《아버님말씀을 명심하고 한평생 이 총과 혁명을 같이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어져온 총대다.

오늘 총대는 **김정일**최고사령관에 의하여 주체혁명위업을 더 높은 단계으로 전진시켜나가고있다.

《김책동무, 정숙동무! 동무들... 내 그래서 오늘도 생각이 많고 깊었던거요. 동무들이 총대로 조선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온것처럼 우리 후대들도 총대를 억세게 틀어잡고 우리가 백두산에서 개척한 주체혁명위업을 반드시 완성해야 하오!》

사위를 뒤덮었던 노을은 그동안 자취를 감추었다. 정원등에도 혁명렬사릉에도 불이 켜졌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때때로 이처럼 마음속 대화를 나누시곤 하는 항일의 전사들을 한명 또 한명 일별하시고나서 로대를 쓰시였다.

오늘은 전대혁을 만나기로 하신 날이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회고록을 쓰시면서도 은근히 그가 기다려져 탁상시계를 보시었다. 그를 만나기로 한 시간은 아직 15분이 있어야 했다.

수령님께서는 집필을 계속해나가시었다. 그러시는 그이의 눈앞에는 어느덧 전대혁의 모습이 떠오른다. 그우로 그의 아버지 전석의 모습이 겹쳐진다. 전대혁을 생각할 때마다 먼저 떠오르는 전석의 모습이다.

동일한 얼굴에 부리부리한 두눈, 그 큰 눈이 웃을 때는 순간에 실눈으로 돼버리곤 하였다. 거기다가 시커멓게 돋은 구레나룻은 그를 펍 순박하고 숙성해보이게 하였다.

전석은 생김새 그대로 마음이 어질고 무척 고지식하였다. 그렇지만 혁명에 대한 열정만은 불같은 사람이었다.

그는 일찍부터 혁명조직의 영향을 받아오다가 안도에서 스무살인가 스물한살인가 되는 해에 추천을 받아 유격대에 찾아왔다. 그때 입심이 세고 통질과 시큰둥한 소리를 곧잘하는 누군가가 유격대에는 자기처럼 새파란 총각들만 받지 꽃같은 색시가 있거나 아이아버지는 어림도 없다고 엄포를 놓았다. 생김새처럼 마음이 어질고 고지식한 그는 그 말을 끝이곧대로 듣고 그만 어깨가 축 처지고말았다. 그는 이미 장가는 몸이었던것이다. 기가 막혔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한번 뵈대보기로 하였다. 난생처음 시치미를 따고 총각이라고 우겼다.

《내가 무슨 장가를 가요?》

《동무 그 구레나룻이 다 말해주는데두...》

《헛, 구레나룻은 무슨 구레나룻... 여길 찾아오느라고 면도를 못해 그런데요.》

그날부터 전석은 코밀과 두볼을 수염 한대 돌을 세라 뽀뽀하게 밀곤 했다. 하면서도 그 말이 정말인줄 알고 가슴에 납덩이같이 무거운것을 안고 지냈다. 그러다가 어느날 자기를 시카스른 대원이 두 아이의 아버지라는것을 알게 되었다.

(홍, 내 어쩐지 미타하다 했더니 하마트면 깜빡 속아넘어갈뻔 했군. 마음고생한 봉창을 단단히 해야지.)

전석은 후- 길게 숨을 내긋고 그 큰 눈이 보이지 않게 실컷 웃고나서 이렇게 욱별렸다. 마침 둘이 작식당번을 서는 날에 《역습》을 들이냈다. 한데 그 《역습》이라는게 아이 들썩이나 되는 아버지가 어떻게 유격대원이 됐는가고 묻는게 고작이었다. 《차- 이 친구 봐라. 어리숙하게 볼게 아닌데. 총각이라면서 내뉘는 언제 캐봤어, 응?》

《캐보긴 누가 캐봐요? 감자라고 캐고말고 하겠어요? 나도 다 아는 수가 있지요.》

《누가 그래? 소대장동지가 그래, 류동무가 그래?》

《나도 다 알아내는 방법이 있다는데두요.》

아궁이에 나무를 꺾어넣다말고 전석은 깨고소하라는듯 실눈이 되게 웃으며 제법 호기를 뽐냈다.

《여, 전 <서방> ! 날 함부로 걸고들 생각일랑 말게. 이래봐두 난 <비준입대> 란 말이야, <비준입대> ...》

《<비준입대> 요? 그건 또 어떻게 하는건데요?》

전석은 대번에 눈이 떠곤해졌다.

《사령관동지께서 승인해주신 입대란 말이요. 말하자면 그이께서 <비준> 해주신거나 같지. 그 <비준> 을 받기가 그렇게 쉬운줄 알아? <총각> 이라면서 꽤나 걱정이 크구만. ...》

그 말에 전석은 얼굴이 확 붉어져 엉뎅이를 하늘로 쳐들고 아궁의 불을 후후 부는척 하였다. 결국 흑을 때려다가 흑을 불인 격이 되고말았다. 사라졌던 근심이 다시 그득해졌다.

(장군님께서 술직한 사연을 들으시면 나의 입대도 <비준> 해주실가.)

그리하여 장군님앞에 모든 사연을 다 러놓게 되었다. 손우로 있는 누이 두명이 왜놈군대 《정신대》에서 도망치다가 칼을 맞고 무참히 죽은 일, 왜놈들이 내몬 군사대상물공사장에 나갔다가 아찔한 공중에서 떨어져 병신이 된 아버지가 3대독자인 아들이 장가라도 드는것을 보고야 눈을 감겠다고 해서 스무살 잡히던 해에 조밥 두그릇을 놓고 성례를 치르던 일, 수줍음을 잘 타는 안해며 곧 태어나게 될 새 생명에 대해서까지 말씀드렸다. 그리고 유격대를 찾아오던 날 남들이 보지 않는 뒤울안에서 소리없이 어깨를 떨던 안해의 작은 손을 짹 움켜잡고 꼭 돌아오겠다고, 조국이 해방되는 날까지 강심먹고 견뎌달라고, 태여날 새 생명이 아들이면 대혁이, 딸이면 대옥이라고 부르라고 이름까지 지어주고 온 일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눈물이 그렁해서 다 말씀드렸다. 그리고는 처분을 기다리듯 머리를 수긋이 하고 한참 있다가 간절한 목소리로 다시 말씀올렸다.

《장군님, 저의 입대도 비준해주십시오. 꼭 총을 잡고 싸우고 싶습니다. 강도 왜놈들을 쳐없애고 해방된 고향마을에 돌아가겠습니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그런 전석이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 말씀하시었다.

《나라를 해방하겠다고 사랑하는 부모처자와 헤어져 우리를 찾아온 그 마음이면 다지 거기에 무슨 <비준> 이 필요하겠소.

전석동무! 우리 이제부터 뜻을 같이한 혁명동지, 총을 잡은 혁명동지가 되어 강도 일제를 쳐물리치고 기어이 빼앗긴 조국을 찾자구.》

그랬던 전석이가 조국해방의 날을 보지 못하고, 안해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북대정사에서 조국으로 진출하는 과정에 있는 전투에서 사령부를 보위하다가 희생되었다.

항일혁명의 준엄한 투쟁속에서 그는 얼마나 홀

룩한 투사로 성장했던가. 것처럼 순박하고 어질던 그가 혁명의 원리를 터득하고 총대의 귀중함을 가슴에 깊이 새겼으며 원쑤와의 싸움에서는 맹수가 되었다. 나라가 해방된 다음에도 자기는 손에서 총을 놓지 않겠다고 했다. 태어난 자식에게도 총을 잡게 하겠다고 했다. 이 세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후대들도 대를 이어가며 손에서 총을 놓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그런 그를 잃은것이 너무도 애석하여 그의 자식을 기어이 찾아 념원을 실현시켜주려고 하시었다.

전석이 희생된 후 그가 살았다는 고장과 있을 만 한 곳에 사람들을 띄운것만 해도 다 꼽을수 없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그들이 가지고온 소식은 반가운것보다 가슴아픈 사연뿐이었다. 남편이 유격대에 입대한 후 전석의 안해는 아들을 낳았다고 한다. 남편이 지어준 이름을 달아 대혁이라고 불렀다. 그는 나라가 해방되는 날 남편을 뿔뿔이 만나겠다고 애도 잘 키우고 혁명조직에 들어가 조직에서 주는 과업도 어김없이 수행했다.

그러던 어느날 불의에 달려든 일제놈들의 《토벌》에 그마저 무참히 희생되었다.

말도 번지지 못하는 아들이 요행 살아남기는 했으나 마을이 불바다, 피바다가 되고 간신히 목숨을 부지한 사람들조차 산지사방으로 흩어지여 행처가 묘연해졌다.

나라가 해방된 다음에도 또다시 사람들을 중국 동북지방에 보내어 알아보게 하고 사방에 수소문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림춘추가 뜻밖의 소식을 전해왔다. 웬 로인이 운명직전에 열세살나는 손자를 불러앉히고 돈있만 한 사진 한장을 꺼내놓더니 숨을 토했아가며 말하였다고 한다.

《이게 네 아버지다. ...사진뒤에 쓴 〈전석〉은 네 아버지 이름이고 〈전대...혁〉은 네 진짜 이름이다. 나와 이웃에 살던 네 어머니가 너와 이 사진을 나에게 맡겨놓고... 너의 어머니 네가 두살 잡히던 해 겨울에 왜놈들에게 목숨을 빼앗겼다. 험한 세상에서 너까지 화를 당할가봐 지금까지 네... 이름을 바꾸고... 살아왔다. 이젠... 나라도 해방되었으니 일본놈들과 싸운 네... 부모... 도 알고 네... 이름도 찾아 활개를 펴고 살아라.》

그 사진을 들고 나타난 소년이 바로 그렇게도 애타게 찾던 전석의 아들이었다.

그런 전대혁이어서 키우는것도 꽤나 원심을 써가며 공을 들이였다. 만경대혁명학원에서 공부시키고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친위중대 대원으로 몸가까이 데리고 다니다가 대학에 보내주었다. 정전후에는 무장장비를 알아보는 중요한 일을 맡기기도 했다.

아버지를 닮아 성실하고 진취적인 그는 무슨 일에서나 탐구심이 강하고 일단 마음 먹은것은 어떻

게 하든지 해냈다.

그가 어느 한 공장에 내려가 일하고있을 때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어느날 이 공장을 찾으시였다. 전대혁을 만나시자 몹시 반가와하시며 그동안의 안부도 물어주시였다. 공장의 여러 생산공정과 생 산품들을 돌아보실 때에는 자신의 곁에 세우고 내내 함께 다니시였다.

이날 수령님께서서는 공장에서 성과가 있지만 제품의 질이 썩 좋지 못한데 대하여 못내 서운해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이 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하자면 새로운 기계설비들을 만들어내야 할것 같다고 말씀하시였다. 전대혁은 수령님의 말씀을 받고 심한 망심상가책을 느꼈다. 자기가 한번 해내고픈 욕망과 결심이 솟구쳤다.

대혁은 불덩이같은것을 꿀꺽 삼키며 한발자국 앞으로 나섰다.

《수령님, 제가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그를 돌아보시며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전석이 아들이 오늘 나를 기쁘게 해주는구만. 뽕소, 머리를 쓰고 노력하면 얼마든지 만들어낼수 있소. 동무 아버지랑은 맨주먹으로 〈연길폭탄〉을 팡팡 만들어 일제놈들을 족쳤는데 오늘에야 뭐가 신비한게 있겠나. 자기 머리, 자기 힘을 믿고 대담하게 한번 해보라구.》

수령님을 모시고 왔던 오백룡은 빙글서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보였다.

그는 공장을 떠나기 전에 전대혁을 다시 찾아와 어깨를 두드려주며 이렇게 말했다.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이라더니 전석동무가 아들을 잘 두었어. 수령님앞에서 다진 맹세대로 꼭 성공을 하라구. 그래서 기쁨을 드려야 해!》

전대혁은 성수가 났다. 그날중으로 그는 설비와 자재를 해결받기 위해 어느 한 일군을 찾아갔다.

그 사람은 첫 대면에 독을 뿜으며 명세가 적힌 종이장을 집어던졌다.

《정신나가지 않았소? 이 설비자재값이 얼마 인줄 알아? 이런 되지도 않을 일에 술한 돈을 들인단 말이요? 지금 인민생활이 어떤지 모르지 않았지?》

정전직후여서 속검은자들이 없지 않았다.

《그래도 그 기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신이 있습니다.》

《뭐라구? 그래 만들만 한 자신이 있으면 왜 진작 나한테는 말하지 않았어?... 좋아, 해보겠으면 해보라구. 그러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해.》

전대혁은 욱- 하고 치미는 분기를 가까스로 눌렀다.

그날부터 전대혁은 노동자, 기술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낮과 밤이 따로없이 전투를 벌렸다. 이를 사려물고 시련과 고난의 고비들을 헤쳐넘었다.

드디어 그는 몇달후 새 기계를 만들어내고야말았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생겼다. 계열생산으로 넘어간 그 기계제품중에서 몇대가 오작으로 제기된 것이었다.

전대혁은 가슴이 철렁하였다.

(이게 무슨 일인가.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긴 것인가!)

설계로부터 제작과정에 이르는 기술적문제는 더 말할것도 없고 자신의 당적량심과 충정심에 대해서도 팽팽하게 돌이켜보았다. 그 과정에 한대한대의 제품을 만들 때마다 서로 다른 제강소들에서 강재를 보내왔다는것과 그 질에 대하여 주의를 돌리지 못하였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아,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가!)

사고를 심의하는 회의가 열리고 일은 점점 더 엄엄하게 번져갔다. 새 기계 연구를 시작하면서 필요한 설비와 자재를 해결받으러 갔을 때 것처럼 쏘외보듯 하던 그 일군이 사고심의회에는 무슨 범이라도 잡은 포수처럼 기세등등해서 돌아갔다. 전대혁이 설계로부터 제작의 전과정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강재질차이에 의한 사고원인을 명백하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슨 범죄자라도 잡은 것처럼 눈알을 부라렸다. 《반동분자》라고 목청이 터져나가도록 고래고래 소리질렀고 전대혁의 당당한 주장앞에 물리게 되자 《저자를 당장 묶으라.》며 직권으로 내리눌렀다.

오백룡이 이 사실을 알고 달려와 제때에 수습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무슨 봉변을 당했을지 몰랐다. 후에 판명된데 의하면 그자는 군벌판교주의자이고 반혁명분자였다.

전대혁은 그후에도 굴하지 않고 기계를 더 훌륭히 완성하였다.

이런 우여곡절을 겪은 그어서 **김일성** 동지께서는 전대혁에 대하여 더 마음을 쓰시었다.

전대혁은 그후 인민군대의 무장장비를 맡아보는 지휘성원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던 그가 이번에는 조국해방전쟁때 입은 부상자리가 도져 군복을 벗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던 것이다. 항일의 전우들이 말기고 간 후대들이 중도에서 총을 놓게 되다니... 어떻게 찾아내고 키운 계승자들이라고 대오에서 떨어지게 한단 말인가.

김일성 동지의 심중을 제일 깊이 헤아리신분은 **김정일** 동지이시었다. 그이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소생시켜야 한다시며 필요한 대책을 다 세워주시었다. 그리하여 그렇게도 마음써오던 전대혁이 건곤절을 앞두고 완쾌되어 돌아왔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으시게 되시었다. ...

3

김일성 동지께서는 책임서기를 따라 방안에 들어

와 인사를 올리는 전대혁을 보자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었다.

《이게 얼마만이요. 그래 정말 낯긴 다 나왔소?》

장령벌을 두알씩 달았지만 들어서는 순간부터 전대혁은 어린애처럼 얼굴이 온통 눈물범벅이 되어 어깨를 세차게 떨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세... 세상에 두 번 다시 태여... 나게 해주셨습니다.》

《허허... **김정일** 동지에게 찾아가서 귀잡고 절을 해야겠군. ...》

김일성 동지께서는 마냥 기쁘시여 이렇게 그의 말을 받아주시었다. 그가 좀 진정된 다음에는 수술자리도 만져보시고 치료받던 일들을 알아보시었다.

《이젠 제발 앓지 마오. 대혁이 같은 동무들이 **김정일** 동지를 잘 받들고 곁에서 더 많은 일을 해야겠는데...》

《수령님, 명심하겠습니다. 이젠 정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속을 태우지 않고 더 많은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오.》

책임서기가 수령님께 오전에 어느 한 나라의 정부대표단을 접견해주셔야 한다면서 그때까지 다문 얼마동안이라도 휴식하셔야 하겠다고 말씀 올렸다.

수령님께서 시계를 보시었다.

《아직 시간이 있구만. 휴식보다 난 지금 이 대혁동무를 만나보고 이야기를 나누는게 더 좋소. 휴식이라는게 판계요?》

《수령님, 제가 귀중한 시간을...》

《그런게 아니라는데. 우리 그동안 정원에 나가 거닐면서 이야기나 나누자구. 책임서기동무의 휴식이라는 <령>도 들어야지.》

김일성 동지께서는 전대혁을 데리고 밖으로 나오시었다. 책임서기도 더는 어쩔수 없는지 벽걸이에 서 수령님의 봄외투를 정히 벗겨들고 따라섰다.

봄은 겨울을 저 멀리 밀어내고 벌써 4월에 들어섰건만 아직 아침대기는 산뜻하다. 그래도 철은 어길수 없는것 같다. 풍치수려한 금수산의 갖가지 나무들에는 파릇한 새순들이 앞을 다투어 피어나고있다. 산기슭의 진달래가지엔 다치면 더칠것 같은 봉긋한 꽃망울들이 소담하게 달렸다.

갖가지 새들의 우짖음소리가 정답게 들리고 나무순과 풀잎에 맺힌 이슬방울이 아침햇빛을 받아 구슬처럼 반짝인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허리를 약간 굽히시여 가까이 있는 개나리의 작은 아지 하나를 꺾어드시었다. 소담한 꽃망울을 눈여겨보시고 향기도 맡아보시다가 뒤따르는 전대혁에게 물으시었다.

《내 언제부터 한번 알아본다, 알아본다 하면서 두 일에 쫓기다보니... 대혁동무에게 아들이 여러 명 있지?》

《예, 여섯입니다.》

《여섯? 허허... 거 굉장하구만. 맏이와 둘째는 동무집에 찾아갔을 때 한번 본 기억이 있는데...》

《수령님께서 그 애들의 둘째일에 선물이랑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아래 아이들은 태여날 때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날이때까지 감사의 인사 한번 변변히 올리지 못했습니다.》

전대혁은 목이 메여 고개를 수그리고 말끝을 흐렸다.

《인사는 무슨 인사... 그래 이제는 그 애들도 성장했겠는데...》

《예, 모두 군복을 입고 손에 총을 잡았습니다.

맏이는 최전연부대에서 대대장을 하고 둘째는 해군 어뢰정장입니다. 셋째는 추격기비행사고 넷째부터 그아래 동생들은 포병, 땅크병, 통신병으로 복무하고있습니다.》

《대단해! 정말 대단해. 우리 인민군대의 각 군종, 병종에 다 들어가있단 말이지. ... 아버지의 뒤를 이어 다 총대를 잡았다— 정말 장한 일이요. 7부자 총대가정이라, 동무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수만 있다면 얼마나 기뻐하겠소.》

수령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추연한 안색으로 혁명렬사릉쪽을 바라보시었다.

(항일의 전장에서 나를 따라 생명을 내대고 싸운 우리 혁명의 1세의 후대들이 오늘은 나와 **김정일** 최고사령관을 총대로 받들어가고있다. 우리 혁명의 대는 얼마나 곳곳이 이어지고있는것인가. 무성하는 숲처럼, 융용한 대하의 흐름처럼 세대를 이어 얼마나 백배하고 강해지고있는것인가.)

이 위대한 계승이 그 어떤 시련과 천지풍파속에서도 변함없이 영원하도록 인민군지휘성원들과 천만장병들에게 다시 당부하고싶은 충동이 이 순간 수령님의 심중에서 또 한번 세차게 고매했다.

《그래 아들들에게서 편지랑은 오오?》

《이 아버지한테는 뭐 별루 소식을 안 보내는데 저들 형제끼리는 자주 편지를 주고받는것 같습니다. 땅과 바다, 하늘초소에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걸음걸음 따르며 결사옹위하는 총폭탄이 되겠다고 맹세랑 다지고 서로 뒤지지 않으려고 경쟁하는것 같습니다.》

수령님앞에서 전대혁은 자식들 자랑에 성수가 나하면서도 좀 먼구스러운지 한손으로 뒤더수기를 공연히 자꾸 쓸었다. 그런 때는 제 아버지 전석처럼 순진스러워보였다.

《좋은 일이요. 대혁동무네 아들형제들의 맹세이자 우리 인민군 전체 장병들의 신념이고 맹세요.》

수령님께서 환히 웃으시며 전대혁을 돌아보시었다. 그이의 안광에 이름할수 없는 기쁨과 믿음, 앞날에 대한 낙관이 넘치시는것 같았다.

《대혁동무! 백두밀림에서 개척된 조선혁명은 멀리 전진해왔고 새로운 력사적진군길에 들어섰소.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주체혁명위업은 승리적으로 전진하고있소. 절세의 위인이요 천출명장인 **김정일**동지를 모시고있는 우리 나라는 지금도 일이 잘되지만 새 세기인 21세기에는 더욱 승승장구할것이요. 내 알기엔 이 세상에 **김정일**동지에게 견줄만 한 위인은 없는것 같소.

그는 사상과 예지가 비범하고 령도예술이 특출하며 고매한 인품과 덕망으로 천하를 그러안고있소.》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시 걸음을 옮기시며 말씀들을 계속하시었다.

《인민군대를 오늘과 같이 정치군사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일당백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고 현대적인 국방공업을 건설하여 인민군대의 무장장비와 전투력을 끊임없이 높인거며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는 전인민적인 방위체제를 튼튼히 세운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위대한 군사전략가이며 강철의 령장인가를 잘 알수 있소. 놀랍단 말이요.》

《그렇습니다, 수령님!》

전대혁은 환희에 가까운 목소리로 자기의 흥분된 심정을 억제하지 못하였다.

《지난해 4월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회의에서 우리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를 담아 **김정일**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했을 때였소.

김정일동지는 그 직분만은 내가 계속 말아야 한다고 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해주었소. 이것은 인민군장병들과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념원이요 시대의 엄숙한 요구이다라고 말이요.》

《그렇습니다, 수령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국방위원회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시었다는 소식에 접했을 때 우리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이 얼마나 감격하고 우렁찬 만세와 환호를 울리며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랬을테지. 동무들은 **김정일**동지와 같은 천하제일명장을 최고사령관으로, 령도자로 모신 영광과 행복을 순간도 잊어서는 안되오.》

《명심하겠습니다, 수령님!》

《내 오늘 대혁동무를 만나서 무척 기쁜건 우리의 총대가 새 세대들에 의하여 믿음직하게 계승되고있는것이요. 동무네 가정만 보아도 7부자가 다 **김정일**동지를 결사옹위하는 총폭탄이 되겠다고 손에 총을 잡고있으니 얼마나 장한 일이요.

김정일동지를 잘 받들고 따라야 하오.

내 이번 건군절에 인민군부대에 나가서도 장병들에게 이것을 당부하자고 하오.》

책입서기가 아까부터 자꾸 팔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더는 미룰수 없는지 조용히 다가서며 말끝을 올렸다.

《수령님, 대표단접견시간이...》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는가?...》
수령님께서서는 집무실로 향하시였다.

4

그날로부터 또 며칠이 지난 1994년 4월 25일 우리 혁명무력이 창건된지 62돐이 되는 뜻깊은 날이였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공군부대를 찾으시였다.

김정일 동지께서 수령님을 모시고 함께 오시였다.

인민무력부장 겸 총정치국장인 오진우, 총참모장인 최광이 공군부대 지휘관들과 함께 수령님과 최고사령관동지를 맞이하였다. 리을설, 백학림을 비롯한 차수들도 서있었다.

명절이어서 모두 바지에 붉은 줄을 짙은 레복을 입고 량쪽가슴이 모자라게 훈장과 메달들을 달았다. 그들 한발자국뒤에 전대혁이 다른 장령들과 함께 서있었다.

수령님께서서는 영접보고를 하려고 차렷구령을 내리고 정보로 다가오는 군부대 지휘관에게 **김정일** 동지쪽을 자꾸 손으로 가리키시였다.

《**김정일** 최고사령관에게 보고해야 하오. 우리 최고사령관을 따라 동무들을 축하해주자고 함께 온거고...》

《아닙니다. 보고는 수령님께서 받으셔야 합니다.》

환히 웃으시는 얼굴로 수령님과 나란히 걷고계시던 **김정일** 동지께서 한걸음 뒤에 떨어지시였다.

수령님을 모시고 받드는데서는 예나지금이나 한치의 드림도 모르는 **김정일** 동지의 고결한 충정의 세계, 후계자를 내세우시려는 수령님의 웅심깊고 열렬한 심정, 질세의 위인들사이에 오가는 이 숭고한 진정은 뜻깊은 날 만사람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하고 가슴을 뚫어번지게 하였다.

《허허... 그렇다니 할수 없군.》

김일성 동지께서는 근엄한 표정으로 한손을 드시여 정중하게 답례하시였다. 영접나온 지휘성원들의 인사도 차례로 받으시였다.

《오늘이 군대명절이 옳긴 옳구만. 여기 나와 반가운 동무들을 다 만나누만. 그래 건강은 어떻소?》

그이께서는 오진우며 최광이며 항일전의 로투사들과 인사를 나누시며 안부를 물으시였다.

《저희들은 **김정일** 동지의 덕분으로 이렇게 건강한데 수령님께서 너무 무리하게 일하고계십니다.》

최광이 항일투사모두의 심정을 담아 말씀올렸다. 그러는 그의 두툼한 입술과 검실검실한 불편근육이 약간 떨리는것 같았다. 도수높은 안경을 낀 눈시울이 불깃해졌다.

《**김정일** 동지와 함께 더 많은 일을 하자면 건강해야 하오.》

차수들의 인사를 받으신 수령님께서서는 그들뒤에 서있는 전대혁을 띄여보자 몹시 반가와하시며 손짓으로 부르시였다. 전대혁이 황급히 앞으로 나왔다.

《대혁동무, 셋째아들이 공군부대에 있다고 하지. 그래 아들을 만나보았소?》

《수령님, 언제 그런 사사일에까지...》

전대혁은 당황해하고 몸둘바를 몰라했다.

《그게 왜 사사일이겠소. 혁명의 대를 이을 후대들을 이끌어주는 일인데... 아무리 바빠도 이런 날에야 미리 나와 아들을 만나보고 명절을 축하해줘야지. ... 저기 기념사진을 찍자고 촬영대우에 올라서는 군인들속에 있지 않는가?》

《아닙니다, 수령님. ...》

김정일 동지께서 두손을 앞으로 모아잡으신채 수령님걸음으로 한발자국 가까이 다가서시며 말씀올리시였다.

《지금 대혁동무 아들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다니?》

《뜻깊은 건군절날 부대에 찾아오시는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겠다며 비행훈련에 참가했습니다.》

《음- 그렇군.》

마침 편대를 지은 전투기들이 파란 하늘에 하얀 비행운을 내뿜으며 나타났다. 비행기들은 눈이 부신 태양을 향해 작은 점으로 보일 때까지 솟구쳐 올랐다가 불시에 한대씩 아래로 내리꽂혔다. 그것들은 동체를 몇번씩 뒤집기도 하고 춤추듯 좌우로 흔들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다시 서로 꼬리를 물기도 하고 추격에서 리탈하기도 하면서 기기묘묘한 비행술들을 펼쳐놓았다.

수령님께서서는 손채양을 하시고 전투기들의 훈련모습을 올려다보시였다. 몹시 대견하시여 환히 웃으시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도 전투기들의 훈련모습을 주의깊게 관찰하고계시였다. 눈길에 예리하고 존안은 무척 근엄하시였다.

《멋있소! 우리 비행사들이 하늘에서 못 부리는 재간이 없소.》

수령님께서 손채양을 풀지 않으신채 최고사령관동지를 돌아보시며 만족하여 말씀하시였다. 그때에야 **김정일** 동지께서도 미소를 지으시며 수령님가까이로 한걸음 더 다가서시였다.

《우리 비행사들의 비행술이 간단치 않습니다. 그들은 수적, 기술적우세를 떠드는 적들과의 대결에서 사상, 전술적우세로 언제나 이길 만만한 투지에 넘쳐있습니다.》

《장하오, 장해!》

《수령님, 사진촬영시간이 되었습니다.》

책임서기가 다가와 조용히 말씀올렸다.

《사진?... 사진을 찍어야지. 장병들을 축하해주고 그들과 기념사진을 찍어야지. 자, 모두들 감시다.》

수령님과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방금전까지 정중히 서있던 지휘성원들이 설레이기 시작했다. 기뻐서 어쩔줄 몰라하는것이 알렸다. 촬영대쪽으로 서로 뒤질세라 발걸음을 옮겼다. 모두 장령별을 여러 개씩 달았는데도 수령님과 최고사령관동지를 모시고 사진을 찍는다고 하자 흥분과 걱정을 숨기지 못하였다. 그럴 때는 순진한 어린이가 되는듯싶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그들을 자애로운 눈길로 바라보시며 환히 웃으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도 빙긋이 미소를 지으시며 누군가를 불러 무엇인가를 이르시었다.

수령님께서 활기있게 걸으시다가 문득 멈춰서시며 좌우를 살피시었다.

《가만, 공군사령관동무가 어데 있소?》

《옳, 여기 있습니다.》

좀 뒤에 떨어졌던 공군사령관이 급히 다가왔다. 큰 키에 칼칼하게 생긴 그의 온몸에서 정력이 넘쳐났다. 건군절에 수령님과 최고사령관동지를 모신 영광으로 여간 기분이 떠있지 않았다.

《어떻게 우리끼리만 사진을 찍겠소. 훌륭한 비행술을 보여준 비행사들과도 함께 찍어야지.》

《수령님, 방금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말씀이 계셔서 훈련을 끝내고 착륙시키라는 임무를 주었습니다.》

《벌써?!》

《우리 승용차들을 보내서 빨리 데려오도록 했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 말씀올리시었다.

《거참 잘했소. 그들속에 전대혁동무의 셋째도 있다지?》

《그렇습니다. 이자 방금 훈련때 보신 주도기비행사가 대혁동무의 아들입니다.》

《음, 그렇군. 요전번 만났을 때 알아보니 대혁동무에겐 자그만치 아들만 여섯이나 있는데 모두 군복을 입었다더군.》

《그렇습니다. 육군, 해군, 공군에다가 전문병들까지 뜨르르합니다.》

《허허... **김정일**동지가 나보다 더 잘 알고있구만. 저 전대혁의 아버지가 전우들의 무릎에서 눈을 감으면서 자기 아들을 꼭 찾아 손에 총을 잡고 나를 받드는 충직한 전사로 키워달라고 했소. 그 유언대로 그의 후대들이 오늘은 무성하는 숲처럼 끝끝하게 자라 혁명의 대를 이어가고있소. 혁명렬사릉에 있는 전석이가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기뻐하겠소. 땅속에서도 마음을 놓을거요.》

김일성동지께서는 방금전에 지으셨던 만족한 미소대신 회억이 짙은 안색으로 저 멀리 어딘가를 바라보시며 나직이 말씀하시었다. 수령님뒤에서 두손을 앞으로 모아잡고 머리를 수긋이 한채 따라 걷는 오진우와 알이 두툼한 도수높은 안경을 버릇

처럼 이따금씩 추슬러올리며 걷는 최광의 얼굴에 이름할수 없는 감동의 빛이 어리었다.

수령님께서 자기 아버지와 자식들을 두고 과분한 말씀을 하시는것이 황송하여 전대혁은 몸둘바를 몰라했다. **김정일**동지께서 그러는 그의 등을 떠밀어 수령님가까이로 내세워주시었다.

《건군절에 부대에 나와보고 기쁜건 지난날 백두산에서 싸우던 우리 혁명의 1세대들처럼 그의 후대들인 아버지와 아들이 한대오에서 선렬들의 넋을 그대로 이어받아 총을 잡고 **김정일**최고사령관을 받들어나가고있는것이요.》

참 감개무량하오. 혁명투쟁에서는 전통, 계승이라는게 있소. 이런것을 두고 말하는것이이지!》

수령님의 말씀은 뒤따르는 인민군지휘성원들의 가슴을 이름할수 없는 걱정으로 뚫어번지게 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잠시후에 도착한 전대혁의 아들을 품에 꼭 껴안아주시고 장하다고 어깨를 두드려주시었다. 부대장병들과 기념촬영을 할 때에는 전대혁의 부자를 **김정일**동지의 바로 뒤에 세워주시었다.

공군부대방문이 끝나자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군지휘성원들을 둘러보시며 이르시었다.

《자, 나와 함께 모두들 또 가야 할데가 있소. 인민무력부 책임일군들은 더 말할게 없고 군종, 병종사령관동무들도 다 따라서시오.》

전대혁은 지금까지 행복의 무아경속에 잠겨있다가 수령님께서 또 갈데가 있다고 하시는 말씀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꼭 자기 부자들때문에 그이의 귀중한 휴식시간마저 빼앗는것 같아 죄송스러웠다. 80고령의 년로하신 수령님이시다. 아침일찍부터 오랜 시간 밖에 계시었다. 훈련모습도 보아주시고 비행사들을 기다리셨다가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시었다. 이것만으로도 천만장병들과 인민들은 크나큰 걱정과 휩싸이고 움츠름치는 새힘을 받아안았다. 영광과 행복, 감사의 정은 한가슴에 가득찼다. 이젠 정말 잠시동안만이라도 그이께서 휴식하셔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아직도 못다한 일이 있는듯 바빠 승용차에 오르시며 다들 따라서라고 이르신다.

책임서기며 수행원들이 자꾸 팔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그들도 수령님의 휴식을 두고 마음쓰고있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그 시각 수행원들과 주위사람들의 간절한 심정을 모르시는것은 아니시었다. 그렇지만 미룰수 없으시었다. 꼭 오늘같이 뜻깊은 날에 당부하고싶으시었다. 그래서 오늘을 기다려오신 수령님이시었다.

달리는 승용차안에서 그이께서는 며칠전 혁명렬사릉의 전사들과 마음속 대화를 나누시던 그때처럼 또다시 생각이 깊어지시었다.

혁명적동지애와 총대로 개척된 우리 혁명의 역사에는 뜻깊은 계기마다에 대원들과 지휘성원들에게 총을 기념으로 수여한 일들이 많았지. 김정숙은 원동훈련기지에서 권총을 받았고 해방후엔 김책, 최용건, 강건… 또 누가 있었더라. 그렇지, 김일어도 있었지.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든 기관단총을 수여받았지. 그게 1949년도였으니까 벌써 마흔다섯해라는 세월이 흘렀다. 참, 세월이 빠르기도 하다. 무기를 수여받고 기뻐서 빙글빙글 웃던 그들과 함께 사진을 찍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오늘은 나와 함께 혁명을 오래 해온 항일의 전사들에게는 더 말할것도 없고 해방후 우리의 손길에서 자란 전대혁이와 같은 새 세대 지휘성원들에게 그때처럼 총을 수여하며 다시금 당부하고싶다. 내 아까도 말했지만 혁명에는 전통과 계승이 있어야 한다.

피어린 혁명투쟁과정에 이룩해놓은 사상과 정신, 업적, 기풍, 방법… 고귀한 모든것들을 순결하게, 줄기차게 련면히 이어나가는 것이다.

계승! 이것은 대를 이어 장기적으로 계속되는 혁명투쟁에서 필수불가결한것, 그래서 아버님도 《지원》의 사상을 신조로 삼으시고 나라를 해방하기 위한 큰뜻을 자기 대에 성취하지 못하면 아들대, 손자대에 가서라도 기어이 이룩해야 한다고 하셨지.

계승! 이것은 대끝에서 대가 나고 찌리끝에서 찌리가 나는것과 같은 유전학으로만 설명할수 없는 보다 심오하고 심중하며 혁명투쟁의 원리로 해명하고 해결해야 하는 중대한 문제다. 지나온 80평생, 혁명에 나선 10대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수수천만리의 혁명투쟁과정에서 내가 찾은 진리는 무엇이던가.

혁명가의 아들딸이라고 하여 저절로 혁명가가 되는것도 아니고 로동계급의 자식이라고 하여 저절로 로동계급이 되는것도 아니다.

혁명을 대를 이어 계속하자면 **김정일**동지가 밝힌것처럼 유전적혈통을 넘겨받을것이 아니라 사상적혈통, 신념의 피를 넘겨받아야 한다.

계승! 이것을 바로 해결하지 못하면 이룩해놓은 사상과 업적, 혁명의 전취물, 귀중한 모든것을 하루아침에 잃게 된다. 이 몇년째 행성의 여러곳에서 휘날리던 붉은기가 내리워지고 사회주의를 하던 나라들이 하나 둘 물먹은 흙담벽처럼 무너지는 것은 보다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기본은 이 계승문제를 바로 해결하지 못한때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된다. 아니, 그럴수 없다.

후대들은 우리의 사상과 신념, 혁명적동지애와 의리, 총대를 굳건히 이어받아 **김정일**최고사령관을 높이 받들어나가는 혁명

의 계승자가 되어야 한다.

전석이, 기뻐하오. 동무의 아들뿐아니라 그 자식들까지 손에 총을 잡고 혁명대오에 섰소. 내 오늘 대혁이와 비행사를 하는 그의 셋째아들도 만났소.

김정일동지의 뒤에 부자가 나란히 서서 사진까지 찍었소. … 얼마나 좋소. 우리의 미래가…

승용차가 멎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부판이 차문을 조심히 여는 때에야 모임장소에 당도한것을 아시고 사색에서 깨어나시었다.

밖에서 기다리고있던 일군이 준비가 다 되었다고 말씀올렸다.

《그럼 뒤따라오는 동무들이 도착하면 인차 시작합니다. 무슨 격식같은것은 필요없고…》

옆에 다가온 책임서기가 조심히 말씀올렸다.

《수령님께서 좀 휴식하셨다가…》

《내 걱정은 말고 뒤따라오는 동무들이나 피곤해하지 않는지 알아보오.》

《수령님…》

책임서기는 다음말을 잊지 못하였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있었다.

… 회의실에는 정숙이 깃들었다. 방금전 수령님을 우리러 더쳐올린 열광적인 박수와 환호의 열기가 방안에 그대로 차고넘쳐 숨막힌 분위기를 더해주는듯싶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장내에 마주앉아있는 한사람한사람을 일별하시었다. 맨 앞줄 가운데에 오진우와 최광이 앉고 그 량옆으로 항일투사들이 앉았다. 백두산에서 싸운 군복입은 전우들이 이젠 정말 몇명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가슴을 아프게 하였다. 그러나 그 뒤줄들에 앉은 인민무력부 여러 부문의 지휘성원들과 군종, 병종사령관들을 비롯한 젊고 씩씩하고 듬직해보이는 새 세대 지휘관들을 보자 새로운 힘과 신심이 북돋아오른다. 어깨에 단 금빛견장의 장령별들과 앞가슴에서 번쩍거리는 훈장, 메달들이 우리 혁명무력이 새겨온 충실성과 승리의 력사와 전통을 말해주는것 같았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렁우렁하신 음성으로 힘있게 말씀하시었다.

《그럼 시작합니다.》

아까부터 연탁앞에 서있던 1부총참모장이 기다렸던듯 《알았습니다.》하고 답변올렸다. 그는 깊이 들이쉬었던 숨을 천천히 내뿜며 만장에다 흥분한 목소리로 알리었다.

《지금부터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인민군창건 예순두돛을 맞으며 인민군지휘성원들에게 〈백두산〉 권총을 수여하시겠습니까.》

순간 장내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수령님을 우리

러 열광적으로 박수를 쳤다. 눈언저리들이 불깃불깃해지고 잠시후에는 눈곱에서 물기가 번쩍거렸다. 전대혁의 두볼로는 뜨거운것이 흘러내렸다.

수령님께서는 그만하고 앉으라고 자꾸 손을 아래로 흔드시었다. 그렇지만 장내는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다. 한명 한명 수령님앞으로 나가 권총을 수여받는 동안에도 이 열광은 계속되었다. 걱정의 파도는 더 거세지었다. 전대혁은 이 감격과 흥분의 무아경속에서 자기 차례가 되는것도 미처 몰랐다. 뒤줄에서 누가 등을 몇번 가볍게 쳤다. 그제서야 자기옆 성원이 나간것을 알았다. 황급히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군복매무시를 바로잡았다. 하지만 눈곱에서 솟구치는 뜨거운것만은 좀처럼 멈춰세울수 없었다. 그래서 몇번이나 주춤거렸다.

수령님께서 그런 전대혁의 모습을 띠여보시었다. 머릿거리는데를 보시고는 어서 나오라고 일러주고싶었다. 아버지 전석의 생각이 또 나고 며칠전 집무실에 불렀을 때처럼 이야기를 나누시고싶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하실수 없었다. 그이께서는 부관이 들고있는 권총함을 다른 사람때보다도 빨리 넘겨받으시었다. 거기에 하고싶은 천만마디의 당부가 다 실려있다. 천신만고하며 전진해온 우리 혁명의 지나온 력사와 백전백승하며 전진할 앞날이 다 비껴있다. 그래서 이리도 묵중하게 느껴지는지 모른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몇발자국앞에서부터 정보로 걸어나와 절도있게 경례하는 전대혁의 얼굴을 다시한번 살펴보고는 지금까지 심중에서 고평치던 그 하많은 사연들을 다 물어두신채 한마디 말씀만 하시었다.

《대혁이, 앞으로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를 받들어 모두 일을 더 잘하시오.》

《수령님! 명심하겠습니다. 자신뿐아니라 온 가정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결사옹위하는 총폭탄이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고맙소.》

권총수여가 끝난 다음에도 장내는 좀처럼 진정할줄 몰랐다. 한동안이 지나서야 지휘성원들이 자리에 앉고 정숙이 깃들었다.

《그냥 앉아서 이야기합시다.》

수령님의 우렁우렁한 목소리가 울렸다.

《나는 오늘 인민군창건 62돐이 되는 뜻깊은 날에 인민군지휘성원들인 동무들에게 〈백두산〉 권총을 수여하였습니다. 생각하고있으신는 오랜데 오늘에야 실천한셈이요. 이자 방금 공군부대장병들을 만나보고 돌아오면서 승용차안에서도 추억했지만 우리가 조국을 해방하고 정규무력을 건설한 다음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든 기관단총을 백두산에서 함께 싸운 동지들과 인민군대지휘간부들에게 수여한 일이 있었소. 오진우동무, 그게 1949년도지?》

《그렇습니다.》

오진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대답을 했다.

《았소. 그때가 엇그제같은데 벌써 마흔다섯 해라는 세월이 흘렀소. 그럼 45년이 지난 오늘 왜 동무들에게 〈백두산〉 권총을 수여하는가, 이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책상우에 팔굽을 박으시고 깎지끼셨던 두손을 푸시며 장내를 둘러보시었다. 존안에 엄숙한 표정이 어리고 목소리는 더 근엄해지시었다.

《동무들, 혁명투쟁은 한 세대에 끝나는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위업입니다. 우리가 백두산에서 개척한 주체혁명위업은 대를 이어가며 계속되고있습니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유산으로 물려받은 두자루의 권총으로 시작한 우리 혁명은 조국해방위업을 이룩하고 미제의 무력침공을 물리쳤으며 이 땅우에 사회주의를 일떠세웠습니다. 이 과정에 열혈청년이었던 우리의 머리에도 흰서리가 내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혁명을 계속해야 합니다. 조국을 통일해야 하고 전조선에서 사회주의승리를 이룩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여기 모인 인민군지휘성원들이 지금까지 나를 받들어 일을 잘해온것처럼 **김정일**동지를 받들어 일을 잘해나가야 합니다. 대를 이어 계승되는 충실성만이 참다운 충실성으로 될수 있습니다.

동무들이 다 잘 알고있는것처럼 **김정일**동지는 비범한 전략과 담력, 탁월한 평군술, 고매한 덕망을 지닌 훌륭한 최고사령관입니다.》

박수소리가 터져올랐다. 숨소리마저 죽여가며 수령님의 말씀을 새겨가던 지휘성원들이 가슴속에 차오르는 격동과 흥분, 불길같이 타오르는 충정의 맹세를 더는 물어둘수 없어 우뢰와 같은 박수를 터치었다. 정숙하고 숭엄한 분위기가 흐르던 회의실에 격랑이 일고 걱정의 파도가 출렁이는듯싶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었다. 담페로 박수를 치셨다. 그러시다가 다시 손을 흔드시여 장내를 겨우 진정시키시었다. 그이께서는 서신채로 말씀을 계속하시었다.

《인민군대가 불패의 위력을 발휘하는데서 기본은 최고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혼연일체의 단결을 강화하는것입니다. 전군이 **김정일**최고사령관의 두리에 한사람같이 굳게 단결하며 인민군대안에 최고사령관의 명령을 무조건 집행하는 혁명적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총대는 자기 수령, 자기의 령도자, 자기의 최고사령관을 높이 받들어모시고 결사옹위하며 영원히 충정다해나가야 합니다.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변하지 않는것은 충입니다. 이것은 우리 혁명투쟁력사의 주되는 총화이기

도 합니다.

동지들! 총대의 계승은 승리입니다.

김정일동지를 받드는 총대만 굳건하게 계승된다면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도 문제없습니다.

나는 조선인민군창건 예순두돛이 되는 오늘 이것을 동무들에게 다시금 말해주고싶었습니다. 이것을 당부하자고 내 이름을 새긴 〈백두산〉 권총을 동무들에게 수여하였습니다!》

또다시 박수가 터져오르고 만세의 환호성이 장내를 진감하였다.

(수령님! 명심하겠습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 대를 이어 일편단심 충정다하겠습니다.

우리의 총대는 어제든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만경대의 혈통, 백두의 전통을 이은 천출위인들을 굳건히 받들고 충정다해 따를것입니다!)

전대혁은 눈곱에서 솟구쳐오르는 뜨거운것을 아랑곳 않고 수령님을 우러러 열광의 환호와 박수를 울리며 이렇게 맹세다졌다.

×

수령님께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고

금수산기념궁전마당으로 나오신 **김정일**동지께서는 팔을 가슴우에 엇걸으시고 잠시 생각에 잠겨 걸으시다가 뒤에 서있는 전대혁을 돌아보시었다.

《대혁동무, 자동보총과 기관총이 어떻게 되었소?》

《최고사령관동지! 다 준비되었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 엇끼셨던 팔을 푸시며 결연히 선언하듯 말씀하시었다.

《동무들, 출발합니다.

수령님의 유훈을 받들어 내 나라, 내 조국을 부강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총대를 더욱 억세게 버리기 위하여 떠납니다.

수령님께서 인민군지휘성원들에게 〈백두산〉 권총을 안겨주신것처럼 우리도 병사들에게 자동보총과 기관총을 안겨줍시다. 총대만이 승리를 담보합니다. 우리 이 위대한 전통을 영원히 계승해나 갑시다.》

김정일동지의 우렁우렁한 목소리가 건군절에 말씀하시던 수령님의 음성처럼 증폭되어 전대혁과 둘러선 지휘성원들의 가슴을 흔들었다.

김정일동지께서 전선으로 떠나시는 이 아침에도 노을이 질었다.

붉고붉은 노을이...

녀 병 사 와 해 당 화

박 성 일

파도사나운 절벽가
열풍에 달아오른 모래불에
어떻게 정불이고
소문난 해안포병되었는가는 물음에

녀병사는
해풍에 가벼이 날리는 옷깃을 여미며
조용히 전호가 해당화에 불을 대여라
그 대답 꽃잎에서 찾으려는듯

꽃을 사랑하는
꽃과 같은 처녀
꽃처럼 처녀시절 곱게 단장하고
향기풍기며 마음껏 누리고싶었던 심정

허나 바다를 떠난 해당화 생각할수 없듯
장군님 사랑과 믿음속에
포와 함께 열풍을 길들이며
처녀의 아름다움 꽃처럼 지닌 녀병사

죽없는 모래불에서도
향기를 뿜는 해당화처럼
가장 어려운 곳에서도 삶을 빛내는
해안포병이 되었거니

억셈과 아름다움 함께 지니여
바다가에 피어난 해당화
가슴속에 먼저 피여 웃는데

불에 대신 그 꽃잎에 얼굴이 물드는가
감실감실 탄 녀병사의 모습에
오히려 꽃잎이 물드는가
그 꽃 한송이 그가 하고싶은 말인듯

아 장군님 사랑속에
활짝 핀 녀병사
바다가의 해당화와
어쩌면 그리도 어울리는가

물고기들의 신기한 《사열식》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현지도의 길우에는 신기한 자연조화들이 수많이 펼쳐지고있다.

그가운데는 물고기들의 신기한 《사열식》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

주체85(1996)년 여름 어느날이었다.

인민군부대들과 공장, 기업소들을 쉬임없이 찾으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일군들과 함께 어느 자그마한 못에 이르시여 잠시 머무르게 되시었다.

소나비가 내린 뒤여서 그런지 아니면 물속이 너무 깊어서 그런지 미풍에 가볍게 물결만 일으킬뿐 못에서는 새끼고기 한마리 얼씬하지 않았다.

한동안 못의 수면을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한 일군에게 이 못에 고기가 있는가고 물으시었다.

그 일군은 자신만만한 어조로 고기가 많다고 말씀드리었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그런데 왜 고기가 보이지 않는가고 다시 물으시었다.

순간 그 일군은 말문이 막힌듯 아무 말씀도 올리지 못하였다.

현실적으로 물고기가 한마리도 눈에 띄지 않았기때문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조금한 기색이 어리었다.

이때였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잉어, 붕어를 비롯한 팔뚝같은 물고기들이 물표면으로 떠오르기 시작하였다.

강물에서 사는 물고기들이 통채로 못에 모여든듯 나란히 떼를 지어 꼬리치며 몇번씩이나 못주위를 돌던 물고기떼는 약속이나 한듯 일제히 물밑으로 사라졌다. 마치도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러러 《사열식》을 펼친듯싶었다.

일시에 박수소리가 터지었다.

그이께서도 박수를 치시고 일군들도 박수를 치며 환성을 올리었다.

긴장한 마음으로 서있던 그 일군도 그제야 힘껏 손뼉을 쳤다.

물고기들의 신기한 조화를 두고 기쁨을 금치 못하는 일군들에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고기떼들이 사열준비를 하느라고 인차 떠오르지 않은것 같다고, 정말 희한하다고 하시며 호탕하게 웃으시었다.

이날에 진행된 물고기들의 신기한 《사열식》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로고와 더불어 생겨난 또 하나의 일화로서 군인들과 인민들속에 널리 전해지고있다.

가 사

비 료 산 은 쌀 산 이 라 오

최 명 길

은백색 비료폭포 내리고 내려
구내엔 비료산이 솟고 솟았네
푸른 모 키워가는 농장별로
홍남의 모판비료 떠나간다오
아 비료산 비료산은 쌀산이라오

해빛도 파사로운 공장구내에
하얀 비료산이 높아만 가네
푸르른 벼바다 설레는 별로

홍남의 아지비료 떠나간다오
아 비료산 비료산은 쌀산이라오

강성대국 고간마다 쌀이 넘치게
사시절 하얀 비료 내려쌓이네
황금이삭 물결치는 풍요한 별로
홍남의 이삭비료 떠나간다오
아 비료산 비료산은 쌀산이라오

령도자와 작가

서정시 《나의 조국》이 태어나기까지

사람들에게 조국이란 무엇이며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뜨겁게 안겨주는데 이바지하는 서정시 《나의 조국》!

시는 시인이 죽어서도 가지고 싶었던 정치적 생명을 다시 받아안고 《60청춘》이라는 말그대로 청춘의 열정으로 창작의 붓을 들어 한자한자 심혈을 기울여 창작한 작품이다.

시인은 쓰고 싶었다.

꼭절 많은 인생의 나날 속에 체험으로 간직한 인생의 참된 진리를, 어머니 조국에 대한 노래를 붓 끝에 담아 가슴 터지도록 웨치고 싶었고 또 부르고 싶었다.

시인은 서정시 《나의 조국》을 써 내려갔다.

알지 못해라 언제부터
나의 가슴에 깃들었는지
아마도 그것은 나의 첫 삶과 함께
이미 조용히 자리잡은 것이리

언제나 나의 심장에 가득차 있어
기쁨과 아픔
그 모든 운명을 함께 사는 것

조국이어!
너는 무엇이기에
가만히 네 이름 부르면
가슴은 터질 듯 궁지로 부풀고
눈굽은 찢어터져 젖어드는 것이나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서정시 〈나의 조국〉은 조국애를 노래하였지만 단순히 나서자란 어머니 조국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인간의 자주성과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이 보장된 조국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으며 조국에 대한 사랑을 혁명적 수령관에 기초하여 생활적으로 감동깊게 형상하고 있다.》

시인이 어떻게 되어 서정시 《나의 조국》에서 인간의 자주성과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이 보장된 조국에 대한 사랑을 노래할 수 있었으며 그것을 혁명적 수령관에 기초하여 생활적으로 감동깊게 형상할 수 있었는가.

우리 조국에 대하여 생각할 때 우리는 지나간 수난의 망국사를 잊지 못하고 있다. 일제통치시기 우리 민족 모두가 그러하였지만 시인 김상오도 여기서 예외로 될 수 없었다.

꽃나이 청춘시절 시인도 정든 고향을 떠나 거처론 이국땅을 밟으며 막돌처럼 버림받지 않으면 안 되었다.

시인은 이국땅 일본에서 우유배달부와 신문배달부, 청소부와 인부 등 별의별 험한 일을 다 하면서 남몰래 눈물도 많이 흘렸고 그 눈물은 마를새 없었다.

조선사람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로 아닌 밤중에 하숙집에서 쫓겨나 눈보라치고 찬비 내리는 이국의 거리를 이리저리 방황할 때면 시인의 가슴에 피눈물이 고이였다. 이는 시인만이 아닌 자기 조국이 없는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눈물겨운 처지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강도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을 찾아주시므로써 시인도 진정한 조국을 가지게 되었다.

해방후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지방에서 신문일군으로 사업하던 그를 몸소 만나주시어 더 좋은 글을 쓰도록 고무도 해주시고 나이 서른이 된 그를 더 많이 배우라고 학교에도 보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시인이 학교를 졸업하자 중앙의 한 신문사에서 부주필사업을, 그후에는 시인의 소망을 헤아려 문단에서 창작활동을 하도록 사랑을 돌려주시고 그가 문학창작에 전념할 수 있게 모든 생활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시였다.

그때로부터 세월은 흘렀다.

시인도 이제는 나이가 들고보니 생각되는 것도 많았다.

언제나 잊을 수 없는 우리 수령님의 품, 그 품속에서 자기가 받아온 크나큰 사랑들...

진정 시인은 어버이수령님의 품에 안겨서야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알게 되고 참다운 삶의 보람을 누리게 되었으며 수령님의 품은 곧 우리 인민 모두가 안겨사는 어머니 품임을 심장으로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시인은 당시 그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다 보답하지 못하고 대오에서 물러나 인생말년을 보내게 되었다.

그러던 주체66(1977)년 2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시인에 대하여 뜨겁게 회고하시며 그에게 또다시 은정깊은 사랑을 돌려주시였다.

시인의 그때의 심정을 무슨 말로 다하랴.

시인은 돌아온 길음으로 어버이수령님의 초상화 앞에 섰다. 그리고 나서 《수령님!...》 하고는 더 뒤말을 잊지 못하였다.

얼마후 시인은 또다시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을 받아안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시인이 다시 문단에 서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으며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시인에게 어느 한 창작사의 일
군으로 일하도록 하는 높은 정치적인임을 안
겨주시었다.

이 자애로운 사랑, 크나큰 은정을 어찌 다 헤아
릴수 있으랴.

하기에 시인은 《알지 못해라 언제부터/나의 가
슴에 깃들었는지》하면서 시작한 시에서 이렇게
끝을 맺었던 것이다.

...

그렇다, 조국은
수령님 찾아주신 우리의 삶
수령님 안겨주신 우리의 긍지
영원한 영원한 그이의 품

그 품이여라!
조국이여 나의 조국이여

시인은 서정시 《나의 조국》에서 이 땅에 두번
다시 삶을 받은 심정,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와 흠모의 정을 담으
려 애썼다.

시인은 자기가 창작한 시에 대해 이렇게 말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심으로 하여 우리 조국
은 빛나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계심으로 하
여 우리 인민이 긍지로우며 그것으로 하여 우리

민족과 우리의 력사가 훌륭하다는 한없는 긍지,
이것이 조국에 대한 나의 체험의 정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빛내여가시는 우리 조국은 모든 사람
들에게 고귀한 삶과 희망과 긍지를 안겨주는 생의
터전이며 후손만대의 행복을 담보하는 인민의 행
복의 요람이다.

서정시 《나의 조국》이 창작되어 나왔을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 시를 읽으시고 깊은 감명
을 받았다고 하시면서 서정시에 조국에 대한 열렬
한 사랑과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뜨거운 흠모의
정이 구체적인 생활감정을 통하여 뜨겁게 흘러넘
치고있다고 분에 넘치는 평가를 해주셨다.

그후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 시의 창작성
과를 두고 은정깊은 평가의 말씀들을 해주셨다.

서정시 《나의 조국》은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
게 되었다.

시인 김상오만이 아닌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이
언제나 읊고 읊는 서정시 《나의 조국》!

시인은 오늘 우리곁에 없지만 그가 자기의 온
넋을 바쳐 창작한 시를 읊으며 사람들은 조국은
곧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품이라는것을
더 가슴깊이 새겨안게 될것이며 당의 령도따라 이
땅우에 세상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회주의강성
대국을 기어이 일떠세우고야말것이다.

허 룡

자 료

《한일합병조약》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지난날 반세기동안 우
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재난과 고통을 들쭉
철천지원수입니다.》

《한일합병조약》은 지금으로부터 100년전인
1910년 8월에 일제가 조선강점을 《합법화》하기
위하여 날조한 침략적 《조약》을 말한다.

1905년에 《을사5조약》을 날조하여 조선을 강
점한 일제는 이를 이른바 《합법화》하기 위하여
1910년 8월 22일 군사적위협과 공갈밑에 《한일
합병조약》을 날조하였다.

이날 일제는 《합병을 위해서는 위력이 필요》
하며 《미개한 인민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보병보
다 오히려 외관상 위엄이 있는 기병이 필요하》다
는 오만무례한 녀두리를 늘어놓으면서 서울에
2 600여명의 병력과 300여필의 군마를 집중시키
고 군함에 의한 《위협시위》도 감행하는 계엄상
태를 펴놓는 한편 조선대신들을 협박공갈하면서
8개 조항으로 된 이 《조약》을 강압적으로 날조

하였다. 일제는 이 강도적인 《조약》에서 조선의
통치권을 완전하고도 영구히 일본 《천황》에게 넘
기며 조선을 일본에 《병합》한다는것을 규정하였
다. 일제는 이 《조약》을 조작함으로써 형식상으
로 존재하던 리조봉건국가를 완전히 없애버리었
다. 놈들은 조선인민의 거세찬 반일투쟁앞에 겁을
먹고 《조약》을 공포하지 못하고있다가 8월말경
에야 이른바 《천황》의 《칙령》으로 공포하였
다. 원래 불법적인 《을사5조약》에서 발원하
였으며 군사적위협과 공갈밑에 강압적으로 날조된
《한일합병조약》은 철두철미 비법적이며 무효
한것이다. 그러나 일제는 이 《조약》을 날조한
후 조선에서 야만적인 식민지통치를 더욱 강화하
였다. 조선인민은 강도적인 이 《조약》을 인정하
지 않았으며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여 줄기
차게 투쟁하였다.

올해는 일제가 《한일합병조약》을 강도적으
로 날조하여 공포한 100년째 되는 해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이해를 맞으며 백년속적인 일
본반동들에 대한 반일감정을 한층 더 높이고있다.

선군의 세월과 더불어

한 찬 보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의 총성 올리신 그날로부터 시작된 우리 조국의 선군의 역사는 오늘 경애하는 장군님 계시어 이 땅, 이 하늘아래 더욱 용융히 굽이쳐흐르고있다.

그렇다. 나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근위 서울 류경수제105땅크사단에 선군령도의 성스러운 첫자욱을 찍으신 때로부터 50년이 되는 오늘 이 땅의 세월을 자랑스러이 선군의 세월이라 말하고싶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은 주체혁명의 새 시대를 위대한 선군시대로 빛내어 왔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선군령도의 자욱을 찍으신 그날부터 50년!

가슴에 물결기처럼 그들먹이 차오르는 격세지감과 함께 정말 감회롭다.

더우거나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에 참가한 로병으로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선군령도의 성스러운 자욱을 찍으신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에서 복무하였다는 흔치 않은 경력의 소유자임을 나는 긍지높이 자랑하게 된다.

우리 부대에 대한 나의 남다른 긍지감은 부대가 백두산3대장군의 각별한 관심속에 태여났고 그분들의 뜨거운 사랑과 믿음속에 성장해왔으며 당과 수령을 목숨으로 결사옹위하는것을 전통으로 하고 있는 부대라는것이다.

이 뜨거운 감회속에 나는 우리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의 영웅적투쟁과 발전의 자욱 자욱에 어려있는 백두산3대장군의 뜨거운 령도의 자욱, 사랑의 자욱을 하나하나 돌이켜 추억하게 된다.

해방후 우리 나라에서 정규적혁명무력이 건설되어 조선인민군으로 강화발전될 때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군대내에 병종별 구색을 맞출 구상을 무르익히고계실 때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도 우리도 빨리 땅크부대를 꾸리자고 수령님께 간절히 제기하시였다.

그래서 우리 수령님과 어머니의 보살핌속에 땅크부대를 꾸리게 되었는데 그 과업을 항일혁명투사 류경수동지가 받아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철갑부대창설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다음 얼마동안이면 해낼수 있는가 물으시였다.

아직 그런 일을 해본적도 없고 생각해본적도 없는 그여서 선뜻 대답을 올리지 못하고 머뭇거리고있을 때 수령님께서서는 우리는 석달동안에 해내야 한다고 하시며 우리는 그렇게 할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시고 류경수동지에게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수령님의 요구라면 그것을 곧 법으로, 지상의 명령으로 접수하는데 습관이 된 그는 명령대로 꼭 해내겠다고 씩씩하게 대답을 올렸다.

좋아! 그 기백이 좋거던, 과시 골간투사다워라고 하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를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시였다.

류경수동지는 걱정이 없는것은 아니였지만 수령님께서 자기를 믿고 어려운 과업을 맡겨주신것이 더 기뻐 부대창설에 전심전력을 다 쏟아부었다.

그 나날에 아버지수령님께서는 김정숙어머님과 함께 땅크부대가 들어있을 위치와 건물을 정해주시고 사흘이 멀다하게 찾아주시였다.

부대를 꾸리는 속도가 빨라지고 하루가 다르게 변모되는 모습을 보시며 흡족해하시던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땅크병들을 만나실 때마다 생활에서 불편한 점은 없는가, 애로되는것은 무엇인가 일일이 물어보시며 구석구석까지 따듯이 보살펴주시였다.

어머님께서서는 병사들이 휴식참에 가치담배를 피우는것을 보시고서는 땅크병들이야 끝끝한 대장부들이니 담배도 두툼한 마라초를 피워야 성차겠다 하시며 어느날엔 만경대 김보현할아버님께서 손수가꾸신 잎담배를 듬뿍 안고오시어 어르신 장군님께서 그 담배를 병사들에게 안겨주게 하시였다.

병사들은 어머니의 사랑이 뜨거워 눈굽을 적시였고 장군님의 지성이 고마워 그이의 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하였다.

이렇게 땅크병들과 일찍부터 친숙해지신 장군님께서는 105땅크부대를 결집다니듯 하시였다.

드디어 땅크부대가 다 꾸려지고 열병식을 하게 되는 날이였다.

백두산3대장군께서 다 참석하신 속에 환영곡과 우렁찬 만세소리로 열병식의 막이 열리자 땅크들이 동음소리 요란히 사동벌을 달리며 부대창립을 온 세상에 선포하였다.

이렇게 태어난 땅크부대는 그후에도 백두산3대장군의 보살피심속에서 인민군골간부대로 성장하였다.

백두산3대장군의 이 뜨거은 민음의 손길
이 있어 우리 부대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의 나날에 진격의 맨 앞장에서 승리만을 떨
치는 부대로 력사에 그 이름 뿔뿔이 새길수
있었다.

전쟁이 일어난지 3일만에 적의 아성인 서
울에 돌입하여 괴뢰《중앙청》꼭대기에 공화
국기발을 휘날린것도 우리 부대였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맡겨주신 황초령방어전투임무
를 영예롭게 수행한것도 바로 우리 땅크병
들이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손길아래 태어난 우리
땅크부대는 싸움터마다에서 오직 승리, 승
리만을 알았다. 그 나날에 수령결사옹위정
신은 우리 부대의 전통으로 되였거니 세월
이 흘러도 그 명맥은 굳건히 이어졌다.

50년대와 60년대, 세월의 준엄한 언덕을
넘어오면서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
은 주체의 한길로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을
이끄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
을 목숨으로 결사옹위하였다.

여기서 나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령도
가 시작된 잊을수 없는 8월의 그날을 감회
에 넘쳐 이야기하지 않을수 없다.

주체49(1960)년 8월 25일 어버이수령님
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근위 서울류경수
제105땅크사단을 찾아주시었다.

오매에도 그리던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
는 장군님을 모신 부대는 환희와 걱정으로
바다처럼 설레고있었다.

부대에는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수반으
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
자!》라는 신념의 구호가 나붙어있었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 구호를 오
래동안 보시고 대단히 만족해하시였다. 수
령님께서서는 이 구호는 우리 인민과 인민군
군인들의 확고부동한 신념을 그대로 담은
훌륭한 구호라고, 이런 구호는 인민군대
에서만 나올수 있는 좋은 구호라고 기뻐하시
였다.

이날 음악을 중지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께서는 이런 신념의 구호를 반영한 노래도
마땅히 이 땅크부대에서 나와야 한다는 크
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그래서 나는 이 부대에서 복무한 땅크병
으로서 나와 우리 땅크병들의 마음을 담아,
드물지 않는 신념을 담아 그이의 의도를
관철하는 길에 창작적열정을 다 바치였다.
하여 마침내 수령님을 결사옹위할 신념의
노래를 지어낼수 있었다.

그것이 노래 《당중앙을 목숨으로 사수하
자》이다.

혁명의 붉은 대오 우리는 인민군
로동당 품속에서 자란 투사다
불구름 뚫고가는 싸움의 나날에

전우들 붉은 피를 당에 바쳤다
동무들이 당중앙을 목숨으로 사수하자
우리의 심장 당중앙을 목숨으로 사수하자

명실공히 이 노래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철의 신념과 의지, 정력적인 지도가 있어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는 혁명의 진군
가로 이 세상에 태어날수 있었다.

노래가 나오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이
런 노래는 위대한 수령님께 지체없이 어서
올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수령님을 찾아가시
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담고 방에 들어서시는 장군님을 보시고 무
슨 좋은 일이있는가고 물으시였다.

《당중앙을 목숨으로 사수하자》라는 좋은
노래가 나왔다고 말씀올리는 경애하는 장군
님께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그럼 어서 같이
듣자고 하시였다. 장군님과 자리를 같이 하
신 수령님께서서는 노래를 세번이나 들으시고

못내 만족해하시며 창작가들에게 자신의
감사를 전하라고, 앞으로 좋은 글을 많이
쓰도록 잘 도와주라고 사랑어린 말씀을 하
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노래 《당중앙을 목
숨으로 사수하자》에 《우리의 심장 당중앙
을 목숨으로 사수하자》라는 구절이 있는데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
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려는 우리 인민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이 노래가 수령님을 높이 받들어모
시려는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신념과 의지,
지향을 담고있기에 그처럼 사람들의 심금
을 세차게 울리는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
였다.

노래는 삼시에 온 나라 강산에 신념의 메
아리로 울렸다.

인민군대에서는 물론 학생들이 학교를 오
가는 길에서도, 사회주의건설장마다에서도
노래는 힘차게 울려퍼졌다.

그때로부터 세월은 강산에 천돌기라는 년
륜을 새겼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
을 영원토록 혁명의 수위에 높이 모시고 백
두에서 시작된 진군길을 곳곳이 이어가려는
수령결사옹위정신의 메아리로,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바통으로 노래의 생명력은
꺼지지 않고있다.

지금 새 세대 청년들도 이 노래를 즐겨
부르고있다.

머리에 백발을 인 나로서는 경애하는 장
군님께서 선군령도의 첫자욱을 새기시던 그
나날에 태어난 노래가 전인민적인 감정으로
체질화되고 곳곳이 이어지는것이 긍지롭
고 감개스럽지 않을수 없다.

정녕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선군령도가 있

그날에 산다

김 선 화

그날에 살았다
황철사람들은

жат 보수를 끝낸 전기로
소재를 애타게 기다리는 압연직장들
보여드릴수 있는것 이것이 전부였던가
회전로에서 나오는 주체철로 안도의 숨을 쉬었
던가

만아들이 만아들구실을 못할 때
아버이의 안광에 비끼는 그늘
애써 감추시는 그 그늘 가셔드리지 못한다면
살아 우리 산 목숨이던가

전망이 좋다고
자력갱생 필승의 보검을 틀어잡고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앞장에 서라시며
사랑을 믿음을 부어주시고 떠나실 때

아, 쇠물보다 더 뜨겁게 소용돌이치던 가슴들
강철기둥처럼 치솟아오르던 불의 맹세
그 쇠물 그 불을 안고
한해를 하루같이 살아온 황철

그날에 산다
황철사람들은

다시 오신 2월의 봄날
현대화된 생산종합조종실엔 자랑만이 넘쳤던가
초고전력전기로는 기쁨만으로 사품쳐끓었던가

어 우리 당이 강하고 우리 조국이 위대하며 우리
인민의 삶이 복된것이라고 생각하니 땅크병출신의
작가 나자신의 운명이 무한히 행복하게 안겨온다.

나는 위대한 수령님의 손길따라 전화의 날엔 땅
크부대 지휘관으로 전선일선에서 내달려 전과를
올릴수 있었다. 그 길에서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도
간직할수 있었으며 전후에는 조선인민군협주단
작가로 창작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 나날에도 나는 한시도 우리 땅크부대를 잊은
적이 없다.

나는 근위땅크병이라는 긍지를 안고 20세기의
자랑찬 년대들을 살아왔고 21세기도 맞이하
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높은 신임과 크나큰 은정에
의하여 나는 군대에 있을 때도 혁명의 수뇌부
를 결사옹위하는 근위땅크병으로 싸울수 있었으며
군복을 벗은 후에도 우리 당의 문필전사로 당

편속조끼기에선 환희의 불꽃만이 굵이쳐 흘렀던가

정녕 이 한해 우리 삶의 자욱 부끄러움 없는가
쇠물처럼 거짓과 치장을 모르는 사람들
한품에 안으시고 영광의 기념사진 찍어주실 때
조차
못다 바친 충정으로 마음속 채찍을 들었거니

우리 더 불같이 살리라 또 한해를
우리 더 쇠물처럼 끓으리라 한생을
포부는 크고 할일은 많건만
아버이의 사랑과 믿음 얼마나 크고 깊어만
가는가

그날에 산다
황철사람들은

주체철생산의 공정을 그쁘히 꾸려놓고
배심종게 강철의 붉은 숲을 펼칠 그날
땡! 땡! 우리 부어낸 주체강철마치로
강성대국문패를 높이 달 환희의 그날

아, 우리 그날 울고 웃으며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수령님동상을 우러러
만세를 부르리라 삼가 아뢰리라
—수령님, 황철은 장군님 손길따라 오늘에
왔습니다

그날에 산다
아, 황철 우리 황철사람들은

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
로서의 본분을 다하면서 삶의 보람과 긍지를 마
음껏 누리게 되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
를 영광의 자리에 내세워주시었으며 올해에는 뜻
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김일성상》을 수여받도록
최상의 영예까지 안겨주시었다.

나는 인생의 절정에 서서 세상사람들에게 단언
한다.

선군!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정치가 있어 이
땅에 만복이 꽃핀다. 장군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
민군대의 총창우에 평화도 있고 사회주의도 있고
우리 인민의 값높고 행복한 생활도 있다.

선군으로 강대한 내 조국이어!

경애하는 장군님 펼치시는 선군의 붉은 기폭아
래 그대가 년년이 창조하는 노래는 사회주의강성
대국의 자랑찬 력사로 되리라.

조국해방의 그날을 앞두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이 조국해방을 위한 최후공격작전을 준비하던 시기 소부대들과 정치공작소조들의 활동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었다.

일제의 패망이 시간문제로 되고있던 주체34(1945)년 봄.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일제에 대한 최후공격작전 준비를 다그치시면서 국내 인민들의 전인민적항쟁 준비와 국내 혁명조직들에 대한 지도를 더욱 적극화하기 위한 여러가지 조치들을 취하시었다.

그 조치에 따라 수많은 소부대들과 정치공작소조들이 국내로 떠나가게 되었다.

한 소부대가 국내로 진출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던 어느날이었다.

백두산녀장군이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사령관동지의 뜻을 받드시고 소부대의 출발준비도 일일이 보살펴주시면서 국내공작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소부대의 임무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사령관동지를 모시고 만주광야에서 손에 총을 들고 싸우면서 바라고바라던 조국해방의 날이 눈앞에 박두하였다고, 조국은 조선혁명을 책임진 우리 혁명가들을 부르고있다고, 동무들은 이러한 때에 조선인민혁명군의 조국해방작전시 우리 인민의 전인민적항쟁을 준비하기 위하여 조국으로 가게 된다고 말씀하시었다.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동지의 말씀은 소부대성원들의 가슴가슴을 흥분으로 높뛰게 하였다. 그러면서 꿈속에서도 잊은적 없는 조국해방의 그날을 눈앞에 그리며 김정숙동지의 말씀을 가슴깊이 새겨넣었다.

계속하여 김정숙동지께서는 소부대성원들에게 동무들은 우선 인민들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인민을 떠나서는 전인민적항쟁을 준비할수 없다고 하시며 인민들속에 들어가서는 핵심을 찾아내는것이 중요하다고, 그래야 사령관동지의 가르치심대로 한사람의 핵심을 교양하여 열사람을, 그 열사람의 핵심이 백사람을 일깨워주고 이끌어주는 방법으로 전인민적항쟁을 잘 준비할수 있다고 가르쳐주시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소부대성원들에게 다음으로

지하혁명조직들과의 련계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지금 국내의 백두산지구와 청진, 함흥, 원산, 서울, 부산을 비롯한 모든 지역들에 각이한 명칭을 가진 혁명조직들과 반일단체들이 조직되어있으며 거기에는 수천수만의 성원들이 망라되어있다고, 그러므로 동무들은 어느 지구에 가든지 그곳에서 활동하는 조직들과 련계를 강화하면서 조직성원들을 사령관동지의 전략전술적방침으로 철저히 무장시켜 모든 활동을 그에 기초해서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그래야 일단 유사시 온 민족이 조선인민혁명군의 조국해방작전에 전인민적항쟁으로 호응해나갈수 있다고 가르쳐주시었다.

정녕 들어볼수록, 음미해볼수록 뜻깊은 말씀이시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이밖에도 일제의 《징용》과 《징병》을 피하여 은신해있는 청장년들을 찾아낼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전인민적항쟁을 준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일일이 말씀하여주시었다.

김정숙동지께서 소부대의 국내진출준비를 보살펴주신 이틀후에 일부 유격대원들이 먼저 백두산지구를 향하여 출발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파쑈도이츨란드가 패망한 직후인 그해 5월과 7월에도 국내 각지에 소부대들과 정치공작소조들을 파견하시었는데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그때에도 사령관동지의 의도에 맞게 국내에 나가는 동무들에게 전인민적항쟁준비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참으로 김정숙동지께서 그 나날에 하신 말씀들은 조국해방의 날을 앞당기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었다.

오늘도 우리 군대와 인민은 조국해방의 그날을 앞두고 말씀하시던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위대한 모습을 생동히 그려보며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선군혁명총진군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김일성상》 계관작품

경 희 극



리 동 춘

나오는 사람들

황석철 제대군인
리송재 조합관리위원장
함락주 리당위원장
리달수 제2작업반장
리금단 달수의 딸, 농산반원
송 씨 달수의 처, 농산반원
서로인 조합원
서옥음 서로인의 손녀, 축산반원
최기선 농산반원
박봉녀 제1작업반장
덕 실 농산반원
처 녀 1, 2
남 자 1, 2, 3
기 라 녀인, 조합원들 다수 등장

서 장

△ 음악속에 막이 열리면 높고낮은 산들이 서로
키다툼하는양 웅장하게 뻗어나가다가 기암절벽
을 이루고 이른봄에 피어난 진달래꽃으로 하여 산
천은 더더욱 아름답다.

때는 이른봄이다.

석철 (희열에 넘쳐 등장한다.)

야, 멋있구나. 예가 바로 군위상사 황석철이 지
켜설 새 초소란 말이지. (원대한 포부를 안고 바위
우에 올라서며) 내 이 땅에 발붙이고 너를 오
곡백과 무르익는 무릉도원으로 꾸릴테다.

(석철 산천에 대고 웅친다.)

아— 아—

△ 석철이의 웨침 메아리되어 울려온다.

음악이 고조되며 제명이 솟아오른다.

《김일성상》 계관작품

경 희 극

산 물 림

석철 산천을 바라볼 때 암전된다.

제 1 막

때 영농기 이른봄
곳 발머리포전선전실

무대 멀리 아담한 산골마을이 보이고 무대에는
포전선전실이 꾸려져있고 우측에는 언덕길, 중심
에는 나무의자가 놓여져있다. 씨클원들의 노래편
습소리와 함께 무대 밝아진다.

날에 날날이 달에 달마다 달라만지네
청산리 주신 교시 가슴에 안고
서로서로 도와가니 자랑도 많네
알롱나요 실롱나요 신바람났네

△ 처녀들 분장을 하는가 하면 어떤 동무들은
무대의상을 손질한다. 남자2 공연순서를 들고다
니며 준비를 재촉한다.

남자2 자, 동무들, 협의회가 다 끝나가는 모양
인데 빨리빨리 준비를 하오.

모두 예.

남자2 가만, 석철동무와 금단동문 어디루 갔소?

남자1 오, 회의에 끝까지 참가하고 오겠다나.

남자2 참가하나마나 뻔하지. 4차당대회를 앞
두고 한치의 땅이라두 더 얻자는 우리 반장동
지의 보고를 누가 마다하겠소.

모두 옳아요.

남자2 동무들, 경지면적을 확장하자는 예비

토의에서 우리 반이 앞장섰으니만큼 오늘 써클공
연에서도 모범이 돼야겠어.

덕실 (달려나오다가 발을 끊지르며) 아
야야.

남자2 덕실이, 협의회가 끝났어?

덕실 끝이구 뭐구 석철동무때문에 우리 반 위신
이 다 떨어졌어요.

모두 석철동무때문에?

덕실 회의가 그야말로 성과적으로 끝나가는데
석철동무가 불쑥 일어나더니 《제대군인 황석철
한가지 제기할수 있습니까.》 뭐 이러면서 열토당
토 않은 토론을 해가지고 망신을 하지 않았니.

처녀1 석철동무가 뭐랬게?

덕실 글썽 《돌각담이나 들춰가지고는 더 잘살
수 없습니다. 통이 크게 산을 개간합시다.》 이러
더구나.

모두 산을?

덕실 그러자 관리위원장아저씨가 《산이라니?
어느 산 말ियो?》 이렇게 물으니까 《저기 저 강
 건너 범바위산을 개간합시다.》

모두 범바위산?

덕실 아, 이렇게 말하구 털썩 주저앉으니 모두
들 웃을수밖에.

모두 하하하.

처녀2 석철동무인지 그 동무 참 피짜야.

모두 왜?

처녀2 글썽 날 보군 농학박사가 되라구 하더
구나.

모두 박사?

처녀2 우리 나라엔 녀성박사가 없다나. 왜 없
는가 하면... (갑자른다.)

덕실 아이구... 빨리 말하라마.

처녀들 아, 빨리.

처녀2 녀동무들이 애당초 그런 꿈을 꾸지 않거
때문이라.

덕실 뭘?

처녀2 처녀뻘 시집갈 생각, 시집가선 살림 잘
할 생각, 그저 그러다가만다나.

모두 하하.

남자1 아, 날 보구 뭐했는지 알아? 저 범바위
산을 강 이쪽에다 옮겨놓고 거기다가 논을 풀면
몇정보나 나오겠는지 한번 계산해보라나.

덕실 뭐야요? 그게 다 잠꼬대같은 소리지 뭐야
요. 다시말해서 산골사람들이라구 놀려먹자는 심
산이란 말이예요.

남자3 저 동무 왜 석철동무 말만 나오면 눈에
불을 확 켜우?

남자1 오, 언젠가 읍에 갔다가 파마하구 오는
걸 보구 석철동무가 대뜸 어울리지 않는다고 흥을
봤거던.

모두 하하하.

덕실 웃지 말라요. 감자바우는 파마할 자격두

없다는거지 뭐. 아, 내가 자기를 위해 파마했나.
파마가 저보구 밥먹여달래? 무슨 간섭이야, 간
섭이.

모두 하하하.

금단 (등장하며) 동무들, 민청위원장동무가 빨
리 출연준비하래요.

남자2 그래 회의가 끝났어?

금단 예.

기선 회의결과는 어떻게 됐어?

금단 참 잘됐어요. 별방과 달라서 크게 개간을
못하는 대신 감자과종을 앞당겨하고 강냉이하구
콩을 간혼작해서 토지리용률을 더욱 높이자는
관리위원장아저씨의 말이 떨어지자 박수가
터졌어요.

남자2 그러니까 한가지를 더 심자는게로군.
야, 영농계획때도 못 내놓은 좋은 의견을 우리 관
리위원장아저씨가 내놓았구나.

기선 우리 관리위원장이 제일이야.

덕실 아니, 그럼 돌각담을 추어내자는건 어떻게
됐니?

금단 얻을수 있는 땅이야 얻어야지 뭐. 논밭두
령을 좀 더 깎아내자는 의견들두 나왔어요.

남자3 가만가만, 지금두 로력이 빠듯이 돌아가
는데 그걸 다 해내자면...

금단 우리 민청원들이 또 선두에 서야겠어요.

남자1 하겠다는데야 의견이 있겠어? 자, 준비
합시다.

△ 송재, 봉녀, 달수 등장한다.

송재 다들 준비됐나?

모두 예.

송재(청년3에게 새남을 달래며) 어디 좀 보자.

처녀1 불줄 아나요?

송재 그림.(새남을 부는데 소리가 잘 나오지 않
는다.)

모두 하하하.

송재 금년농사만 잘되면 동무들이 요구하는 악
기를 다 구해줘.

모두 (환성)

처녀1 우리 관리위원장아저씨가 제일이야.

덕실 관리위원장아저씨, 나 왕나팔두요.

달수 아, 버르장머리없이.

송재 아아, 됐어. 자, 이젠 먹고 입고 남으니까
문화생활에두 관심을 두자. 멋들어지게 한번 올려
보라.

모두 예.

△ 송재, 봉녀, 달수만 남고 모두 나간다.

송재 반장동무, 아까부터 왜 찌프리구있소?

달수 오늘 시범 회의가 석철이때문에
웃음판이 됐으니... 이진 그저 셋하면 넷, 넷하면
다섯.

봉녀 에그, 팽상모때두 그래, 발판개때두 그래,

결심만 하면 선두에 서시던분이 이번엔 왜 그렇게 저울질하시우?

달수 아니, 그것하구 범바위산개간이 갈소?

송재 제대군인이라 젊은 혈기에 그럴수도 있지 뭘 그러오?

봉녀 그러게 처음부터 우리 반으로 보내달라는 데두 욕심을 부리시더니.

달수 아니, 머리수가 모자라는데두 보내요?

송재 1작업반에서두 쫓기해야겠소.

봉녀 해야지요. 나보다두 우리 반원들의 기세가 더 충천해요.

달수 예, 이젠 딴구 일어섭니다그러. 왜, 오흔 작을 하시지. 그래야 시범회의를 한 우리 반이 남작해질게 아니요.

봉녀 아무렴 내가 아주머니한테 질줄 아시우. (달수한테 다가든다.)

달수 이 아주머니가 왜 이래?

송재 됐수다, 됐어. (기분이 좋아 복을 친다.)

△ 석철, 옥음 나온다.

석철 협의회가 다 끝났습니까?

송재 아니, 동문 회의도중에 어딜 갔댔어?

석철 관리위원장동지, 좋은 땅을 찾았습니다.

봉녀 좋은 땅이요?

석철 옥음동무와 같이 가보았는데 저기 저 측산 반으로 들어가는 그 골짜기땅 말입니다.

그 땅을 개간하면 어떻습니까?

달수 제발 그 잡꼬대같은 소리 그만두게.

석철 잡꼬대라니요?

송재 석철동무, 그 땅은 못썰. 걸보기와는 달라. 호박포기두 안되는 땅이야.

봉녀 이 사람, 우리 반에서 작년에 거기다 돼지 사료루 똑감자라두 심어보려다 이 호미끝에 불이 나서 못했다우.

옥음 일없던데.

달수 야, 넌 그런것두 모르구 따라갔댔어?

송재 옥음이야 요즘 판 생각때문에 조합일을 아나.

△ 옥음 나간다.

석철 옥음동무, 저...(관리위원장에게) 그러니까 이것두 저것두 다 안된다는 소리구만요.

송재 안되는게 아니라 이것두 저것두 다 해버렸으니 할게 없지.

석철 할게 없다구요?

송재 보우. 우리 당의 12월전원회의정신과 북청회의정신이 우리 조합 주변산마다에 꽃을 피우고있지 않소. 허지만 우린 만족하지 않아. 어떻게 하면 더 알곡생산에 이바지할것인가. 그래서 감자, 강냉이, 콩을 삼혼작하자는 문제두 나왔구 나중엔 돌각담까지 들추자는 의견두 내놓지 않았소.

석철 돌각담이나 들춰가지구서는...

달수(석철의 말을 자르며) 여보게 석철이, 우리 조합은 토대가 있는 조합이야. 개척지가 아니란

말일세.

석철 그래두 개척이야 해야지요.

달수 어텔?

석철 제 생각엔 좁은 울타리안에서 맴돌지만 말구 이제는 좀 시야를 확 넓혀보자는겁니다.

송재, 달수 시야를 넓혀? 하하하.

△ 금단 나오다 듣는다.

석철 그렇습니다.

송재 석철동무.

석철 그럼 절 다른 조합으루 보내주십시오.

남자2(뛰어들어오며) 석철동무 왔구만. 노래제 답 준비됐지? 빨리.

△ 석철, 남자2 나간다.

송재(나가는 금단에게) 금단아, (불러세운다.) 저 사람 입에서 종당 저런 말이 나올줄 알았어.

달수 위원장동무, 저 사람 출신이 빈농이던가요?

송재 왜요?

달수 가만 보면 아주 호화로운 집에서 꿀물에 잤죽을 먹으면서 자란 사람같아 그러합니다. 재봉침 있는 집에 가서는 라디오가 없다고 시비요, 또 라디오 있는 집에 가서는 재봉침이 없다고 시비를 하는 모양인데...

금단 아버지두 참... 그야 갖출것을 다 갖추고 살아야 한다는 말이지요 뭐.

달수 야, 산골사람들이 이만큼 살았으면 됐지 뭘 또.

송재 환경은 좋은 청년이요.

달수 아이구, 어디서 저런 사람이 날아와서 말썽인지. 그 사람이 오자 소란스러워서 못 견디겠습니다.

송재 산골이라 와놓고보니 안착은 안되구 거 빠져나갈 구실을 찾는것 같은데 아무튼 잘 안착 시킵시다.

달수 예.

송재 금단이 네가 말는게 어때?

금단 누굴요?

송재 석철이 말이다.

금단 예?

달수 예?(놀라서 복을 넘어뜨린다.)

봉녀 호호호.

달수 그 애가 석철이틀요?

송재 산골에 취미를 붙이게끔 잘 안착시키면 좋은 청년이 돼.

금단 그렇지만 그 동문...

송재 마음만 먹으면 된다니까. 너야 고집불통이던 최령감을 바로잡아주었을라구.

금단 못해요. 제가 어떻게...

송재 내 도와줘. 참, 그 사람이 요즘 옥음이네 집에 자주 드나든다지?

금단 이곳 지대를 알려구 옥음이 할아버지를 만나러 다니는가봐요.

송재 그렇게만 볼게 아니지. 일 잘하던 옥음이
가 요즘 극장으로 보내달라구 제기해오는데 우연
하지 않아.

달수 축산반에선 옥음이가 말썽을 부린다나 볼
디다.

송재 발을 붙여줘야지. 서로 좋아하는 사이라면
가정을 꾸려줄수도 있으니까.

금단 그런 사이는 아닐겁니다.

송재 잘 료해해보라, 응. 에그, 리당위원장이
빨리 배치돼야지 이거 혼자서 사상사업도 할래,
행정사업도 할래 정말 힘에 겨운데...

△ 밖에서 소리 《관리위원장동지, 시작하겠
습니다.》

송재 갑시다. 어쨌든 논밭주변에 있는 땅들을
모두 얻어야겠수다.

△ 송재, 봉녀, 달수 나간다.

금단 (혼자말로) 내가 석철동무를 교양해? 아
이, 망칙스러워.

석철 (나와서 듣다가) 내가 이제 동무의 교양대
상이 되고말았소?

금단 그런게 아니구...

석철 부탁합니다. 잘 돌봐주십시오. 하하, 교양
대상이라.

△ 무대밖에서 시작하는 박수소리 들린다.

금단 저, 한번 맞춰봐요.

석철 뭐요?

금단 재담 말이예요. 군무다음에 우리래요.

석철 틀렸소. 우리 노래재담내용은 오늘 이 회
의내용과 맞지 않는단 말이요.

금단 왜요? 100만톤알곡증산을 위해 혁신하
자는건데 왜 안 맞는다고 그래요.

석철 《우리 조합은 천리마를 탔습니다.》,
《질풍같이 내달리고있습니다.》 그래 우리 조
합이 과연 그 천리마를 탔는가. 천리마 타고파두
달릴데가 없네. 우린 그저 달랑달랑달랑 하늘소가
제격이란 말이요. 가만, 재담을 고쳐야겠소.

금단 고치다니요. 이제 와서 고치면 어떻게
해요.

석철 걱정할건 없소. 우린 연습두 필요없단 말
이요. 동문 그저 내 말에 긍정만 좀 해주오. 금단
동무, 우리 한번 맞춰봅시다.

(노래)여보시오 처녀동무 내 말 좀 들소

옛날에는 정배터던 우리 마을에

알곡풍년 노래풍년 춤풍년 들었소

금단 (노래)암 그렇다마다요 백번 옳은 말

석철 (노래)집집마다 들리느니 재봉침소리

나느니 라디오에 축음기소리

금단 (노래)암 그렇다마다요 그뿐인가요

석철 (노래)벼가마닌 기종기가 옮겨놓구요

프락또르 자동차가 산을 덮었네

금단 네?

석철 (금단의 목소리로 노래) 암 그렇다마다요
그뿐인가요

(자기 목소리로) 웬걸요.

(노래)탈곡도 더레덜덜 기계가 하고

추수도 우릉우릉 기계가 하니

산에산에 만세소리 들에들에 만세소리

옛날옛적 정배터가 신선경이 되었구나

(노래받을것을 강요한다.)

금단 (마지못해 노래와 대사조로) 암 그렇다마
다요 그렇구말구요

석철 (노래)옛날옛적 정배터를 누가 이리 만들었나

돌취내기 삼촌작이 신선경을 만들었지

(말로) 개미가 백층짜리 집을 짓는셈이지요

(노래) 만세만세만세 우리 조합 만만세

어려운 일 하자 해도 할 일이 없고

보수주의 소극성도 있을수 없네

암 그렇다마다요 그렇구말구요

여보시오 동무네들...

금단 그만두라요. 큰일나겠어요. 경쳐요.

석철 동무, 그래두 동무만은 내 마음을 알아줄
줄 알았는데... 그럼 동무두 달랑달랑 하늘소를 탈
작정이요?

금단 예술이라는데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해야지
그렇게 공상으로 이런 말, 저런 말 늘어놓으면 어
떻게 해요?

석철 바로 그 공상이라는데 의미가 있단 말
이요.

금단 예?

석철 자, 만족병에 걸린 간부들은 이 가슴이 좁
뜨끔할것지구 혁신하자는 조합원들은 이걸 목표루
질풍같이 내달릴거란 말이요.

△ 무대밖에서 소리 《석철동무, 군무가 끝났
소. 이번엔 동무네 차례야.》

금단 (어쩔바를 몰라하며) 아니, 저...

석철 금단동무, 웃길수도 있구 울릴수도 있으
니까 우리 한번 해봅시다.

금단 아니, 야 정말.

△ 석철이 금단을 데리고 나간다.

기선 (해금을 들고 나오며) 옥음동무, 옥음동
무. 차, 이거 어디 갔어. 옥음이.

옥음 (나무뒤에서 나오며) 소리치지 말아요, 여
기 있어요.

기선 여기 있는것두 모르구. 자, 우리 출연순선
데 빨리 들어가 준비하자구.

옥음 난 빼달라요.

기선 빼다니? 오, 또 음정이 안 맞을가봐.

옥음 요전날 그만큼 망실했으면 됐지, 누굴 또...

기선 이번엔 틀림없을거야, 연습을 했으니까.
자, 소리를 내보라구, 맞추게.

옥음 악기에 음정을 맞추지 소리에 악기를 맞추
는 법이 어디 있어요.

기선 (어색해하며 웃는다.) 그럼, 자(해금소리를 내며) 맞아? 어때?

옥음 나가서 혼자 독주를 해요.

기선 석철동무네 재답이 끝나면 우리 차례인데 이제 와서 그러면 어떻게 해?

옥음 난 목두 갈리구 기분이 나지 않아서 그래요. 볼래요?(소리를 가다듬으며)

(노래)피꿀 피꿀 피꿀새는

날아가야 해

아— 아—

기선 야, 잘하누만. 우리 한번만 맞추자구.

옥음 아니, 저(일부러 음치를 내며 석철한 소리) 보라요. 편도선이 부은걸.

기선 정 그렇다면 할수 없지. 도립극장에 정말 갈래?

옥음 그건 왜 자꾸 물어요?

기선 아마 판리위원장이 승인을 안할거야.

옥음 예? 내가 발전하는 길을 막아요? 나라구 씨클원으로만 있으라는 법은 없지 않아요. 이젠 내겐 돼지나 양몰이보다두 무대가 필요해요.

기선 조합에선 로력이 긴장한데... 고향을 더 아름답게 만들자던 그 약속을 벌써 잊었어?

옥음 이런것저런것 생각하다간 발전 못하지요 뭐.

기선 뭐라구?

남자2 (달려나오며) 아니, 기선동무! 오늘은 왜 이렇게 규률을 안 지키는가. 노래재답이 끝났어. 빨리.

기선 옥음동문 편도선이 부어서 못하겠대.

남자2 아니 뭐, 잘 논다. 동문 지금 장난하는줄 아우.(격해지다가 손에 들었던 연필을 떨군다.)

옥음 그러게 어제부터 빼달라구 하지 않았어요.

남자2 축산반에서 찬조출연나온 동무가 빠지면 될게 뭐요. 자, 빨리빨리.

옥음 난 못하겠어요.

서로인 (조합원과 함께 나오며) 씨클책임자가 어디 있어? 응, 하하하.

남자2 할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서로인 너희들만 놀지 말구 나두 한번 놀아보자꾸나.

옥음 할아버지, 어서 들어가서 구경이나 하세요.

서로인 구경하다 나오는 길이다. 석철이 그 사람이 우리 마을에 꽃이 폈다구 재담을 한바탕 엮어대는데 어떻게나 신이 나는지 이 늙은 몸에도 이팔청춘이 되살아나는것 같아 그냥 앉아있을수가 있느냐.

남자2 마침 잘됐습니다. 할아버지, 빨리 들어가십시다.

△ 송재, 달수 나온다.

옥음 (할아버지를 잡으며) 할아버지.

송재 애 옥음아, 놔둬라. 할아버지 춤을 춘다는건 우리 조합의 경사야.

서로인 위원장, 내 오늘 풍년가를 부르며 100만톤 춤을 추려네.

△ 남자2 할아버지를 모시고 들어간다.

송재(나가는 기선에게) 여보게 기선이, 석철이를 좀 부르라.

기선 예. (나간다.)

달수 위원장동무, 석철이 그 사람이 말썽을 좀 부리지만 재간 하나만은 있구만요.

송재 버릴 사람이 어디 있소. 긍정면을 찾아야지. 문학적소질이 아주 대단하오.

달수 가만, 혹시 그 재답이 우릴 때리는 재답이 아닐까요?

송재 뭐요?

달수 《밤그릇이 높아졌으니 할일은 없다.》 이런 말들은...

송재 무슨 소릴 하고있소. 아, 돌각담들추기와 삼훈작이 신선경을 만들었다는데 우리 조합을 칭찬하는게 아니요?

달수 거야 그렇지요. 그런데 좀 보십시오. 《달랑달랑 하늘소가 제격이로다. 암, 그렇다마다요 그뿐인가요.》 요 마지막말이 좀...

송재 마지막? 마지막에야 《우리 조합 만세, 만만세.》 이렇게 한것 같은데.

달수 그게 좀 아리송해서 그렇습니다.

송재 아리송하다?

달수 예.

송재 따져봅시다.

달수 예.

석철 (달려나오며) 절 불렀습니까?

송재 이리 좀 오게.

석철 알았습니다. (혼자소리로) 경치게 됐군.

송재 동무가 재담을 썼다지?

석철 예, 제가 썼습니다. 하는 도중에 좀 고쳤습니다.

송재 고쳤다? 동무의 재담에서 《우리 조합》이라는게 바로 우리 조합을 두고 한 말이지?

석철 그렇습니다.

송재 잘했어.

달수 재간있어.

송재 따질 필요 없구만, 하하.

달수 여보게 석철이, 여기 앉으라.

석철 왜 이러십니까?

달수 아니, 여기 앉으라는데. (어리벉벉해서 앉아있는 석철에게) 여보게 석철이, 우리 조합은 꽃이 아니라 열매를 맺었네. 저렇게 팔십로인이 춤을 추고있지 않나.

송재 동무의 재담에서도 나왔지만 해방전에는 여기가 정배살던 곳이야. 베치마 하나 가지고 머느리, 딸이 돌려입었구 동네에 두루마기 하나 만

들어놓고 장을 봤구 장가를 들던 곳이야. 반장동무두 그렇게 장가를 들지 않았소.

달수 위원장동무두 고무신 살 돈이 없어서 짚신을 신고 장가를 들지 않았나요. 그러던 우리가 세상부럽지 않게 살게 됐으니 생각하면...

송재 정배터가 지상락원이 됐소.

달수 예.

송재 당의 은덕이요.

△ 이때 덕실이와 처녀 1, 처녀 2 달려나온다.

덕실 관리위원장아저씨.

송재 오.

덕실 아저씨, 옥음이 할아버지가 춤을 같이 추겠다구 찾아요.

송재 춤을 추재? 추자, 추자.

(송재 나가며 석철이에게) 석철이 이 사람, 이제부터 씨클을 책임지고 지도하게.

석철 제가요?

달수 (처녀들에게 끌려나가며 석철에게) 여보게 석철이, 우리 고장이 얼마나 좋은 고장인가. 조합원들은 저렇게 춤을 추고있네, 춤을. 오, 가자. (나간다.)

석철 반장동지... 가만,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자만자족병을 더 조장시킨게 아니야?

△ 이때 조합청년이 락주를 데리고 들어온다.

조합청년 저 당위원장동지, 여기서 잠깐 기다리십시오. (나간다.)

석철 예그, 그저 달랑달랑 하늘소가 제격이로구만.

락주 (석철에게로 다가가며) 저기서 씨클공연을 하고있구만요.

석철 예.

락주 저... 관리위원장동진 어디 계십니까?

석철 지금 모두들 저기서 덩실덩실 춤들을 춥니다. (락주의 차림새를 훑어보며) 아니, 그런데 이 조합으로 배치돼오십니까?

락주 예.

석철 보아하니 제대군인같은데.

락주 그렇소.

석철 그렇소?! (락주를 그러안고 등을 두드린다.) 자, 배낭을 이리 주오. 거 지금 씨클공연중인데 좀 있으면 끝이 나오. 자, 저기 좀 앉자.

락주 앉자.

석철 앉자. (석철, 락주 마주보며 웃는다.)

락주 동무도 제대군인이요?

석철 그렇소.

락주 여기 조합일이 잘되는거구만요.

석철 예, 아주 굉장하. 그것두 거침없이 잘돼가 구 있습니다.

락주 예.

석철 우리같은 사람들이 필요없을 정도로 잘돼가고있지요.

락주 아니, 우리같은 사람이 필요없다니. 그게 무슨 소리요?

석철 내 생각 같에서는 동무두 우리 관리위원장을 만나기 전에 빨리 뒤로 돌아 다른 조합으로 가는게 좋을것 같소.

락주 그건 왜요?

석철 여, 한개 소대루 능히 적을 공격할수 있는데야 증원부대가 무슨 필요가 있단 말ियो? 여기서 이미 만세를 불렀소. 이제 더는 할일이 없단 말ियो.

락주 아하, 그러니까 거 동무가 먼저 와서 할일을 다 해놓았다는거구만요.

석철 할일이구 뭐구 나두 생각만 하다가 이렇게 털썩 주저앉고말았소.

락주 주저앉다니? 리해하기가 좀 힘든데.

석철 리해하나마나 뻔하니까 나와 같이 갑시다.

락주 어디루?

석철 증원부대를 요구하는 그런 조합으루 가잔 말ियो. 여기 있겠자 결국 분배때 이곳 조합원들의 분배몫이나 축내게 되니까. 알만 하오?

락주 알만 하오. 하지만 점령할 고지는 많은것 같은데.

석철 뭐요?

락주 저기두 그래. 또...

석철 여 동무, 역시 동무두 교양대상자요.

락주 뭐요?

석철 놀랄건 없소. 나도 마찬가지로.

△ 금단 뛰어나온다.

금단 석철동무, 합창이예요, 합창.

석철 합창이요?(락주에게) 동무, 어디 가지 말구 내 인차 오겠으니 잠깐만 기다리라구. 기다리라.

락주 알겠다니까.

석철 팬찮은 동무가 왔는데. (석철 뛰어나간다.)

락주 (나가는 금단이를 세우며) 저 동무, 이자 그 동무의 이름이 뭐요?

금단 황석철입니다.

락주 황석철...

금단 저, 리당위원장동지가 아니십니까?

락주 예, 그런데 절 어떻게...

금단 이자 방금 들었습니다.

락주 예-

금단 가만, 제가 관리위원장동지에게 알려드리지요.

락주 아니,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금단 아이, 잠깐만 기다리세요. (나간다.)

락주 동무, (혼자소리로) 황석철! 하하, 내가 교양대상이라...

금단 (나오며) 관리위원장동지, 왔습니다.

락주 안녕하십니까.

송재 아이구, 리당위원장동무이십니까? 기다렸습니다. 몹시 기다렸습니다.

제 2 막

락주 많이 도와주십시오.
송재 원, 별말씀을. 기별도 없이 급작스레 어떻게...

락주 군에서 전화를 걸었는데 나오질 않더군요.
송재 예, 거 발머리협의회를 하느라구 방을 좀 비웠었습니다. 갑시다.

락주 예. 아니, 그런데 그 상모는?...

송재 (어줍게 웃으며) 씨클공연이 있어서...

락주 그렇습니까? 구경 좀 합시다.

송재 갑시다.

△ 송재, 락주 나가려는데 석철이 나온다.

석철 (락주에게) 여 동무, 어델 가?

락주 (나가다말고) 석철동무, 다시 만납시다.

송재 아는 사이인가요?

락주 예?

송재 온지 얼마 안되지만 우리 조합의 보배입니다.

락주 예—

송재 갑시다, 갑시다.

석철 여, 동무.

금단 (석철이를 보며) 리당위원장동지를 잘 아세요?

석철 (놀라며) 리당위원장이라니?

금단 난 아신다구요, 새로 온 리당위원장동지래요.

석철 뭐—요?! (틸썩 주저앉으며) 잘됐다.

△ 경쾌한 음악속에 전환막이 내린다.

△ 전환막앞으로 석철, 서로인이 나온다.

서로인 석철이, 석철이 이 사람아.

석철 예.

서로인 이보라구, 저기 보이는게 노적봉이구 그 맞은편에 보이는게 장수봉이야.

석철 그렇습니까.

서로인 투구를 쓰고있는게 확인하지 않나.

석철 야, 그거 정말 신통한데요. 야 할아버지, 지금 조합에선 우리가 없어졌다고 야단법석 일겁니다. 그러다가 또 반장동지한테 비판받습니다.

서로인 큰일하러 올라온 사람을 비판할리가 있나.

석철 할아버지, 그러지 마시구 저에게 좀 얹히십시오.

서로인 예끼 이녀석아, 사람을 어떻게 보구 그래.

석철 예?

서로인 날 따라오라.

석철 아니?

서로인 어서.

석철 예.

(서로인, 석철 나가는데 전환막이 오른다.)

때 영농기

곳 발머리휴식터

무대 언덕진 발머리에 아름답리소나무가 서있다.

후면에는 높고 웅장한 계곡들, 그사이로 맑은 개울물이 흐르고있다. 무대 한쪽에는 샘물바위가 있고 가운데 달구지가 놓여있다.

전환막이 오르면 영농작업이 한창이다.

소 모는 소리, 송아지울음소리, 산새들도 우짖는다.

△ 달수 누구를 찾는듯 사방을 살피며 급히 등장한다.

달수 (언덕에 올라서며)여보게 기선이, 기선이!

기선의 소리 네.

달수 우리 석철이 못 봤나?

기선의 소리 못 봤습니다.

달수 아이구, 끝내 말썽이구나.

덕실 (달려나오며) 반장아저씨.

달수 거기두 없던?

덕실 없어요.

달수 1 반에 가지 않았을가?

덕실 그래서 내가 일부러 그쪽으로 돌아왔는데 없지요 뭐.

달수 야, 1 작업반이 우릴 따라잡겠다구 기를 쓰고있는데 좀더 찾아보자, 좀더.

여보게, 석철이.(소리친다. 이때 염소소리)

덕실 석철동무.(염소소리) 고거...

△ 송재 나온다.

송재 3분조에서 파종이 중단됐으니 어떻게 된 일이지?

달수 사람이 없어졌수다.

송재 사람이 없어지다니?

덕실 석철동무가 강냉이종자를 가지러 갔다가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송재 무슨 소리진 모르겠군. ...

달수 종자 가지러 간 사람이 오지 않아서 파종이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송재 종자 가지러야 조합창고에 갔겠지?

덕실 야, 그래서 내가 기다리다못해 조합창고까지 가보았는데 종자 타가지구 갔답니다.

어제는 설참에 없어져서 웬일인가 했더니 강둑을 타고 강아래에서 올라오면서 《동무!》 하구 찾는 바람에 깜짝 놀랐는데요 뭐.

송재 이 바쁜 때 왜 강둑에서 불쑥 올라온다던?

덕실 땅을 찾는대요.

송재 땅을 찾아? (혼자소리로) 금단이가 내가 준 파업을 잊은게 아니야? (덕실에게) 야, 축산반에 가보라.

덕실 축산반예요?
 송재 옥음이한테 좀 갔다오라.
 덕실 맞다. 알았어요. (나간다.)
 금단 (들어오며) 아버지.
 달수 오, 석철이 못 봤니?
 금단 못 봤어요.
 송재 금단인 내가 준 과업을 실천하지 않는것 같애.
 금단 과업이라니요?
 송재 석철이 교양하는 문제 말이다. 왜? 상대가 나이찬 총각이 돼서 수집어서?... 선동원이 그걸 가려서야 되나.
 달수 애가 요즘 빨래두 해주구 가까이 하긴 하는데 워낙 연약해놔서...
 송재 그럴수록 근기있게 달라붙어야 해. 쉬운 일이 있나.
 달수 예.
 금단 아버지, 점심종 칠가요?
 달수 1반에선 일손을 댔던?
 금단 그건 모르겠어요.
 송재 점심시간이야 지켜야지. 야, 처라.
 금단 예. (나간다.)
 달수 (나가는 금단에게) 야 금단아, 거 1반도 들리게 크게 처라.
 금단 예.
 봉녀 (나오며) 아주버니, 저 아주버니, 여기 옥음이 할아버지 안 오셨나요?
 달수 우리 석철이 못 봤소?
 봉녀 예?
 송재 이거 오늘 찾는 사람이 이렇게 많수?
 봉녀 글썄 여물을 먹어야 발갈이를 하겠는데 여물을 꿇이다말구 어딜 갔는지 통 아는 사람이 없구만요.
 달수 예, 반장이 단단히 마음을 먹었수다래. 소여물 꿇이는데까지 따라다니는걸 보니.
 봉녀 예그, 집에두 가봤구 있음직한 곳에 다 찾아가봤는데 안계시니까 예까지 왔수다.
 달수 예.
 △ 밖에서 작업하는 소리.
 봉녀 아니, 그 반에선 점심두 안 먹구 일하나요?
 달수 예? 종을 쳤는데두 자각적으로 저러는걸이 반장인들 어떻게 막겠소.
 △ 덕실 나온다.
 송재 (덕실에게) 거기 있지?
 덕실 없지요 뭐. 오지두 않았댔구 본적두 없대요.
 송재 옥음이 보이던?
 덕실 예, 호호. 그런데 옥음이 있잖아요.
 돼지 두마리가 우리에서 뛰쳐나가는것두 모르구 랄랄랄라 노래부르다가 반장아저씨한테 이렇게 하

구 욕을 먹어요.
 송재 욕먹어?
 봉녀 여기서두 누가 안 보이나요?
 달수 누군 누구겠소? 석철이지. 내 어제 밤에두 그만쯤 싫은 소리를 했는데...
 송재 어제 밤에? 뭐라구 했소?
 달수 예, 말집을 일으키기에 여기보다 더 좋은 고장이 있으면 가라, 짹 가라!
 송재 (큰소리로) 아, 거, 저...(자신을 다잡고 조용히) 사람과의 사업을 그렇게 하면 되우?
 달수 경지면적이 적다느니, 사혼작을 해야 한다느니 하면서 계속 불평을 부리구...
 송재 뭐하든 설복과 교양의 방법으로 해야지 가뜩이나 발이 불지 않아서 왔다갔다하는 사람을 가라구 하면 되우?!
 달수 고치겠습니다.
 송재 (덕실에게) 야, 합숙에 좀 가보라.
 덕실 합숙예요? 아까 창고에로 가는 길에 합숙에두 들러봤습니다.
 송재 그 사람 짐이 있던?
 덕실 짐?
 송재 없던?
 덕실 몰라요.
 송재 가보라.
 덕실 예? 난 일은 안하구 사람만 찾으려...
 송재 빨리.
 △ 덕실 놀라며 나간다.
 봉녀 아이구, 군사복무까지 한 사람이 그런 말이나 했다구 달아나겠나요?
 송재 설마 그렇진 않겠지만 만약을 생각해서 그러는게 안요.
 달수 아주머니, 그 사람을 정말 말했수?
 봉녀 정말 주시겠수?
 달수 예. 아니, 2반에서 못 고친 말썽꾸러기를 1반에서 고쳤다, 요렇게 벽보판에 나붙고싶어 그러지요?
 봉녀 가라구 내쫓을바치군 우리 반으루 보내란 말이웨다.
 달수 미워두 내 님이요, 고와두 내 님이웨다.
 봉녀 그래, 끝내 내놓기 싫으신 모양이군.
 △ 조합원들 휴식터로 나온다.
 송재 (조합원들을 보며) 수고들 했수다.
 송씨 수고야 우리보다 위원장아주버니가 더 하시지요.
 달수 (둘러보며) 우리 석철이 못 봤소?
 봉녀 옥음이 할아버지 본 사람은 없나요?
 달수 (큰소리로) 아주머니! 제 사람 제 반에서 찾구래.
 봉녀 큰소리 왜 치시우.
 △ 모두 웃는다.

△ 기선이 해금을 켜다.
 달수 야 야, 거 해금통 좀 놓지 못해? 사람이 없어졌다는데…
 송씨 사람이 없어지다니요?
 달수 석철이가 없어졌수다.
 봉녀 옥음이 할아버지두 온데간데 없어요.
 송재 자 자, 식사준비나 하시오. 여 기선이, 왜 노여웠나? 해금 또 타라.
 남자1 아, 옥음동무 노래 맞추려고 연습하지 우리 기분 돋구자구 호미자루 놓자 해금켜는줄 아 십니까?
 달수 옥음이한텐 이 해금통보다 이 회초리가 더 필요해. (회초리로 남자1의 종아리를 친다.)
 송재 기선이, 축력제초기를 창안해보겠다는거 어떻게 됐나?
 기선 잘 안될것 같습니다.
 송재 안되다니? 우린 그걸 크게 믿고있는데 재료든 뭐든 요구하라. 다 해결해줘.
 기선 제초기전으로 꼭 만들어보겠습니다.
 송재 그래야지.
 △ 리당위원장이 나온다.
 락주 수고를 했습니다.
 △ 조합원들 인사한다.
 송씨 (락주 들고있는 구력을 보며) 아니, 그런데 그게 됩니까?
 락주 거름입니다.
 모두 거름이요?
 락주 이자 오다 길바닥에 흘렸기에…
 달수 위원장동무, 저 밭엔 자급비료가 19톤이나 들어갔습시다.
 락주 그러니 거름이 넘친단 말씀이지요?
 달수 예.
 락주 하, 이거 처리할데가 없군요.
 봉녀 이리 주시우. 우리 밭에다 뿌리게.
 달수 아, 넘쳐두 좋으니 나한테 주시우.
 모두 (웃는다.)
 봉녀 예익, 거름두 듬뿍 장만했겠다, 올해같은 때 토지만 많으면 얼마나 좋겠수. 이런 뎨 벌방이 부럽단 말이야.
 녀인1 반장, 거 사혼작을 하면 안될가요?
 그렇게 되면 그까짓거 논농사 부럽지 않겠는 데요.
 달수 자 자, 삼혼작만 잘해두 3년은 먹습시다, 3년은…
 송씨 더하면 좋지 뭘 그러우. 난 3자보다 4자가 더 좋습니다.
 달수 원, 욕심두.
 송씨 내 욕심이 어쩔단 말이요?
 봉녀 아, 그러다 집안싸움 하겠수다.
 달수 뭐요?

봉녀 괜히 그러다가 문제 바뀌붙여요.
 달수 이 아주머니가… 그래 아주머니는 당장 사혼작할 타산이 있소? 통풍두 그렇구 로력, 거름두 그래…
 봉녀 아, 천리마시대인데 파고들어봐야지요.
 달수 구호나 든다구 천리마작업반칭호를 탈것 갈소?
 모두 (웃는다.)
 송재 반장동무두 멋진 구호를 들고나서구려. 구호가 중요합니다. 구호가 목표지요.
 모두 (웃는다.)
 락주 (송재에게) 위원장동지, 제 조합원들에게 좀 할 말이 있습니다.
 송재 어서 말씀하십시오.
 락주 여러분, 제 옥음이 할아버지 집엘 가니까 이 당콩종자를 묶어놔더군요. 터밭엔 손녀가 좋아하는 참외와 수박을 심다나니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이 당콩은 심을 자리가 없어 밀어놓은걸 가져왔는데 이걸 조합밭에다 뿌리자고 합니다.
 송재 조합밭에요?!…
 모두 (놀란다.)
 달수 위원장동무, 그럼 그걸 나한테 주시우. 우리 반에 심지요.
 송재 (손을 저으며) 그럴것없이 절 주십시오. 우리 집 터밭에 뿌리게. 아무려든 그까짓 한줌 심을 자리가 없을라구요.
 락주 위원장동지, 한줌에 문제가 있는게 아닙니다.
 송재 예? 아니, 그럼…
 락주 지금 어디서나 알곡 100만톤을 증산하자구 옥음하는데 우리도 당정책을 받들고 당의 요구를 실현하자면 한알의 곡식이라도 더 심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합밭에 뿌리자는겁니다. 삼혼작에 만족하지 말자는거지요.
 송재 (놀라운 눈길을 들며) 그러니까 당위원장 동문 사혼작을?!
 락주 예.
 모두 (웅성댄다.)
 달수 (고개를 기웃거리며) 거, 통풍엔 지장이 되겠는데요?
 락주 (확신있게) 통풍은 일없습시다. 제 타산해보았습시다.
 △ 달수와 송재가 서로 마주보는데 금단 나선다. 금단 일없습시다. 강냉이와 콩사이에 한대씩만 심으면 아무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남자1 감자포기를 한대씩 뛰어넘어도 됩니다.
 청년들 그렇습시다.
 락주 보십시오. 얼마든지 사혼작을 할수 있단 말입니다.
 모두 할수 있습니다. 예!

락주 (송재에게) 관리위원장동지, 어떻습니까?
 송재 그럼, 저...
 락주 합시다. 내가 어제 밤에 구체적으로 계산해보았는데 조합발전체예다 사혼작을 하면 당콩 17톤은 더 수확할수 있습니다.
 모두 (놀라며) 17톤?!
 락주 그리고 강냉이파종할 때 동시에 파종하면 로력도 더 들지 않을겁니다.
 송재 그럼 덧거름을 더 내야겠군요.
 락주 필요하다면 더 내야지요. 우리 조합원들모두가 떨쳐나 한줌의 거름이라도 더 모아 밭들에 낸다면 사혼작은 문제없습니다. (달수에게) 반장동무 결심은 어떻습니까?
 달수 예? 17톤이라...
 송재 가만, 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토론했습니다. 어쨌소? (조합원들에게) 덧거름이 필요하면 추가생산할수 있습니까?
 모두 합시다. 17톤이 아닙니까!
 락주 그렇게만 되면 당에서 제시한 알곡 100만톤은 얼마든지 증산할수 있습니다.
 남자2 사혼작을 합시다.
 모두 (열렬히 호응하며) 합시다!
 처녀2 반장아저씨 사혼작을 반대하시더니 이제 아주머니한테 꼼짝 못하게 됐군요.
 달수 야, 저년은... 날 무슨 보... 보수주의자라는 모양이야. 하자, 하자, 하자.
 모두 (웃는다.)
 송재 계획을 고쳐야겠군.
 덕실 (달려나오며) 관리위원장동지.
 송재 거기 있지?
 덕실 없어요. 그 동무의 배낭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구 벽에 걸렸던 양복두 없구 그 많은 책들두 다 없어요. 그런데 방안에 이렇게 굴러다니요. (종이쪽지를 내놓는다.)
 송재 이게 뭐야?(종이를 받아 펴서 읽는다.)
 아 세상은 회한도 한데 산은 아득히 멀기만 하고나(의아해하며)
 위원장동무, 이게...
 락주 그게 뭐니까?
 송재 (계속해 읽는다.) 하늘소 달랑달랑 길을 가는데 하가에 잠자리 날아와 산정에 쉬랴. 예익, 빌어먹을?
 덕실 (혼자말로) 잠자리 날아와 산정에 쉬랴?
 송재 (계속해 읽는다.) 가야 해, 가야 해?
 달수 (놀라며) 가야 해, 가야 해?
 송재 노래재담 아니야, 이거?
 달수 글썽요.
 송재 (노래조로) 아 세상은 회한도 한데 산은 아득히 멀기만 하고나 하늘소 달랑달랑 길을 가는데

하가에 잠자리 날아와 산정에 쉬랴
 에이- 빌어먹을
 모두 (웃는다.)
 송재 노래재담이 아니구만 뭐.
 달수 그런데 가야 해, 가야 해 하는 말 두번씩이나 쓴걸 보니 간 사람이 틀림없수다.
 락주 가다니? 누가 갓단 말입니까?
 송재 석철이 말입니다.
 락주 석철동무가요?
 조합원 석철동무가요? 아하, 그거 모를 일이다.
 덕실 예?
 조합원 아까 날 보구서 두엄달구지에 종자를 실어달래기에...
 덕실 종자가마닌 어떻게 했나요?
 조합원 3분조 발머리에다가 부려놔지.
 덕실 뭐예요? 야 참, 부려만 놓고 알리지 않으면 우린 어떻게 하나요?
 조합원 나야 점심전에 종자가 소용될줄 알았나.
 덕실 그것때문에 일을 못하고있는데...
 락주 이거 우리가 아래사람들의 심정을 통 모르고 일했습니다.
 송재 성팔이, 관리위원회에 가서 자전거를 가지고 읍으로 가는 길로 쫓아가보게. 보면 무조건 데려오라.
 남자1 예. (뛰어나간다.)
 송재 원식이, 덧고개 지름길 알지? 빨리 가보라.
 남자2 예.
 락주 좀더 알아보고 손을 쓰시지요.
 송재 사람이 가더라도 조직적으로 가야지. 앞길이 구만리같은 사람이 종내 밭을 못 붙이누만, 예-
 남자1 (뛰어들어오며) 석철동무가 저기 읍니다.
 남자2 누굴 업고 오지 않아요?
 봉녀 그게 옥음이 할아버지 아니야요?
 달수 야, 도망치다가 그 아저씨한테 잡혔구나.
 봉녀 잡힌 사람이 잡은 사람을 업구와요?
 달수 가겠다느니 못 간다느니 하다가 다칠수도 있지요.
 덕실 야, 어찌니.
 달수 야, 뭇들 하고있니? 맞받아 나가라.
 △ 청년들 달려나간다.
 달수 위원장동무, 보십시오. 내가 비판하지 않게 됐나.
 송재 잘 타일러줍시다.
 △ 석철이가 서로인을 업고 들어온다. 서로인 꽃을 흔든다.
 서로인 (등에 업힌 상태에서) 석철이, 한바퀴 돌려.
 석철 예. (한바퀴 돈다.)

서로인 하하하.
모두 (어리둥절해 서있다.)
서로인 이거 왜들 이렇게 조용하니?
처녀 1 (웃는다.) 호호호.
서로인 잘 논다. 이게 큰일하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대하는 인사야? 날 내려놓으라, 내려놓으라.
달수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서로인 뭘 어떻게 돼? 위원장!
송재 예.
서로인 었네. (꽃뭉음을 준다.) 석철이 저 사람이 위원장책상에 꽂아드리라구 내려오는 길에 한 줌 꺾어온걸세.
봉녀 할아버지.
서로인 오.
봉녀 소여물 꿰이다말구 어딜 가셨됐어요?
서로인 범바위산에 갔됐네.
모두 범바위산에요?
서로인 석철이, 자네 말하계.
석철 할아버지가 말씀하십시오.
서로인 말하라니까.
석철 차 이런, 저... 땅이 있습니다.
모두 (웅성인다.)
봉녀 땅이라니?
석철 할아버지가요 한 다섯정보쯤 얻어냈는데 거지형적으로 봐서는 스무정보쯤 될것 같습니다.
서로인 토지가 아니라 노다지야, 노다지.
석철 토지가 아니라 노다지입니다.
송재 조리있게 말씀해보시우.
서로인 벌써부터 저 사람이 틈만 있으면 날 찾아와서 우리 조합에 토지가 적은데 산이든 어디든 개간할 땅이 없겠느냐고 묻더군. 그래 요샌 자나깨나 개간할만 한 곳을 생각하던 끝에 범바위산을 넘으면 옛날 우리 선조들이 부대기 굶어먹던 터전이 있음직하더군. 그래 종자가마니를 메고 가는 저 사람을 불러서 그 말을 했더니 다짜고짜로 날 성큼 업고 그 험한 산밭을 타고 올라가는데 그야말로 비호갈애. 내가 뭐 기관총보다 가볍다나. 그래 골짜기를 따라 범바위산에 당도하니깐 잔솔나무가 더러 자라긴 했지만 아직두 이랑과 고랑이 석연하더군.
석철 때만 한꺼풀 벗기면 돌 하나 없구요, 여기보다 더 좋은 땅입니다. 자, 동무들! 여길 좀 보오. (성수가 나서 배낭을 해치고 약초와 산과실표본들을 하나씩 돌려주며) 이건 노박덩굴 그리고 이건 천궁, 이건 닥나무전본이요.
서로인 자, 분비나무.
석철 자, 약재로는 삼지구엽초.
서로인 (노래조로) 고사리, 고사리, 고사리...
모두 (웃는다.)
석철 정말 무진장합니다.
자 동무들, 이게 그 유명한 향나무뿌리같은데

그야말로 수출감이요. 가만가만, 하긴 수출할 필요도 없지. 우리 로동자들이 향수를 요구하고있으니깐.
달수 여보게, 석철이! 그러니까 자넨 범바위산을 개간하자는건가 아니면 산과실을 따자는건가?
석철 우리 두가지 다 합시다.
달수 두가지? 아하.
남자 3 저 범바위산엔 경사가 심할거야.
석철 경사가 심하면 과수나무를 심구 그것두 안되면 산과실을 이식한다든가 경제림을 조성해봐야지요.
달수 로력만 많다면 난 금강산구경까지 해가면서 하겠네.
송재 반장동무! 자, 토론들을 해보우.
남자 3 언제 개간하구 언제 산에 달라붙어?
남자 1 여여, 못한다구 찍어 말할것두 아니야.
덕실 팬히 둥둥 뜨지 말라요. 아니, 산속에 팥맥이 있으면 광산도 개발하겠나요?
남자 1 아니, 그럼 남이 힘들게 원천을 발견했는데 무슨 소릴 하구있어?
송재 자, 시장들 하시겠는데 제격 밥을 잡수시구 오후에 또 신바람내자.
모두 예.
달수 자, 오후에 모두 텃밭밭으로 나오시오.
△ 모두 나가고 송재, 석철, 락주 남는다.
송재 석철동무, 오라. 수풀 해서.
석철 관리위원장동지, 거긴 정말 기막힙니다. 경치두 좋구 정말 보물고입니다.
송재 애국가예두 있지 않소.
석철 예?
송재 우리 나라 흙 한줌한줌이 보물이지.
석철 예, 정말 기막힙니다.
송재 당위원장동무.
락주 예, 어서 말씀하십시오.
송재 (다시 석철에게) 그런데 말이요. 범바위산에 오르자면 강을 건너야 한다는걸 생각해봤나?
석철 생각해봤습니다.
송재 산골이라 소나기만 한번 내려도 물이 불어 건느지 못하는데 한여름에 강을 건널수 있을까?
석철 예?! 건너야지요. 우리가 그까짓 강때문에 할일을 못하겠습니까?
송재 강우로 날아가겠어?
석철 예?
송재 동무, 거 우리 조합의 계획을 좀 생각해봤나? 할일이 많소. 자, 올해엔 팽상모도 80프로 해야지, 계획에 제초도 한번 더하기로 했지, 가축도 길러야지, 작잠두 해야지. 그래 로력을 좀 타산해봤느냐 말이요? 그래도 내가 보수주의잔가? 날아다니는것만 생각지 말구 땅에다 밭을 불이라, 땅에다.

석철 아니?...
 송재 동무가 조합의 핵심이 되라니까. 어서 밥이나 먹소. 당위원장동무, 갑시다.
 락주 먼저 들어가십시오.
 △ 송재 나간다.
 석철 리당위원장동지, 전 관리위원장동지에게 의견있습니다.
 락주 난 동무한테 의견있구만.
 석철 예? 물론 작업중에 자유주의한것은 잘못입니다. 하지만 새땅을 개간해서 더 잘살게 하자는...
 락주 (석철의 말을 자르며) 더 잘살기 위해서 일을 더 하자는 주장만 가지구는 더 잘살수 없소. 내가 관리위원장이래두 그렇게 말하겠소. 구체적인 작전계획두 없이 고지를 점령하자는 지휘관을 봤소? 본적이 있는가 말이요?
 석철 제가 무슨 지휘관이겠습니까? 전 지난날두 그랬구 지금두 전사입니다.
 락주 전사라면 왜 지휘관을 무시하오?
 석철 예?
 락주 그래, 동문 혼자 힘으루 조합을 혁신시킬 것 같소? 당위원회가 발동되구 군중이 동원될 때 동무의 주장을 실현하기 위한 방도와 방법을 내놓을것이구 대책이 서면 누가 반대하겠소? 자 석철동무, 혼자만 그러지 말구 민청원들의 심금을 울려보오.
 석철 예.
 락주 독창보다 합창의 울림이 더 크지 않소. 그럼 생각해보라. (나간다.)
 석철 (혼자소리로)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또 잘못했군. 가만 있자, 독창보다 합창의 울림이 더 크다?! 그렇지...
 △금단이 꽃을 들고 나온다.
 금단 (석철에게 다가서며) 점심 안 잡썰요?
 석철 이제 먹지요.
 금단 그 산에 꽃이 많던가요?
 석철 한번 가보구려.
 금단 아이, 막 봄냄새가 나네. 저...벽에 걸렸던 양복은 뒹어진것 같아서 제가 치웠어요.
 석철 고맙소, 신세를 저서...
 금단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지금 모두들 그러는데 석철동문 남들이 생각못하는 그런 대답한 일을 생각...
 석철 (큰소리로 웃으며) 난 동무가 의례히 이런 식으로 접근해올줄 알고있었소.
 금단 접근이라니요?
 석철 됐습니다. 칭찬해주어 고맙구려.
 금단 동문 요즘 왜 내 말이라면 그렇게 엇나가세요?
 석철 아니, 그럼 동문 왜 요즘 그림자처럼 날 따라다니오?

금단 예? 어마 망칙해. 아니, 내가 언제...
 석철 난 나대루 나갈테니까 동문 제발 좀 아버지에게나 접근해주오, 동무 아버지에게나.
 금단 (꽃을 떨구며) 동문 정말...(뛰어나간다.)
 석철 금단동무, 금단동무! (혼자소리로) 가구말았구나. 좋은 처녀야... 황석철, 언제부터 옥음이와 같이 교양을 받아야 할 사람이 됐는지?...
 △옥음 노래하며 나온다.
 옥음 (노래조로) 찌꼬리와 꿀꿀이는 합창할수 없다네. (사방을 살피고 누구도 없음을 확인한 다음 마음놓고 노래한다.)
 아—아— 뒤산의 빼꾸기 빼꼭빼꼭
 봄맞이처녀의 한가슴에도
 황금이삭꽃보라 안겨온다네
 아— 아—
 (무대에서 하듯이 인사한다.)
 석철 (가만히 옥음의 노래를 듣다가 큰소리로) 재청이요.
 옥음 (깜짝 놀란다.)
 석철 옥음동무, 그 노래 한번만 더 불러주. 야, 동무의 그 노래소리를 들으니 이 속이 다 후련해지우. 어머니생각, 전우들생각...
 옥음 비웃지 말아요.
 석철 아니요, 정말이요. 동무, 다시 듣고보니 노래를 정말 잘하누만. 동문 천재요, 천재.
 옥음 잘하면 뭘해요, 돼지하구 2중창해야 하는걸...
 오늘은 얼룩이하구 패일은 검둥이하구...
 석철 옥음동무, 그럼 내가 지휘봉을 잡을테니 한번 불러보우.
 옥음 예?
 석철 동무하구 돼지하구 2중창하는게 정말 볼만 할거란 말이요. 꿀꿀꿀 찌꿀 꿀꿀꿀 찌꿀...
 옥음 (웃는다.) 호호호... 그러지만 마시구 관리위원장동지한테 말 좀 해달라요.
 석철 왜요? 아하, 우리 관리위원장동지가 동무가 노래하는걸 반대하십니까?
 옥음 놔주지 않으니 반대하는것이지 뭐예요.
 석철 놔주지 않아요?
 옥음 영농기에 조합을 떠나겠다는건 당의 사상이 아니라나요. 게다가 기선동무가 위원장동지에게 키질까지 해놨으니 난 이래저래 비판만 받구, 일은 손에 잡히지두 않구...
 석철 예그, 그런데 동무두 아다싶이 내 말이 위신이 서야지요. 난 말이요, 교양대상자요.
 옥음 산을 옮겨놓겠다는 동무가 나같은거 하나쯤 빼돌릴 힘이 없나요 뭐?
 석철 옥음동무가 산보다 더 큰 존젠데 난들 어떻게 한단 말이요?
 옥음 예? (안타까와한다.)

석철 가만가만, 그렇지. 옥음동무, 내게 좋은 방법이 있소.

△기선이 나와 듣는다.

옥음 무슨 방법이요?

석철 이리 오우. 상부에서 동무에게 소환장이 오게끔 죽자하구 일해보란 말이요.

옥음 저에게두 소환장이 오게 될가요?

석철 읍니다, 오구말구요. 산 좋고 물 맑은 이런 산골에서 인민배우가 안 나오면 도대체 어디서 나온단 말이요?!

옥음 예?!

석철 내 알기에는 동무만 한 성대를 가진 사람 두 찾기 힘들게요.

옥음 도에 있는 배우선생들두 내 노래를 듣구 음색이 맑다고 했어요.

석철 옹게 평가했습니다. 내 알기엔 동무가 성량만 좀 풍부해지면...

옥음 그분들두 그렇게 말했어요.

석철 그러니까 성량만 풍부해지면 동문 그야말로 소환대상이요.

옥음 예?!(기빠서 웃다가 시무룩해진다.)

석철 왜 그러오?

옥음 그런데 성량이란게 하루이틀에 커지는것두 아니구...

석철 건 동무가 잘 모르구 하는 말이요. 산중구 경치 좋은 이런 산골에서 새벽공기를 척 마시면서 (노래런습조로) 아아아.

옥음 (웃는다.) 호호호.

석철 참, 동문 새벽에 양몰이를 하지요?

옥음 예? 요즘엔 몸이 아파서...

석철 바루 그걸 해야 합니다. 예, 그 양몰이를요.

옥음 예?

석철 새벽발성이 성량을 풍부하게 하는데는 저그만이니까. 어쨌든 내 옥음동무만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소. 아차, 이거 가장 중요한것을 잊었는데...

옥음 뭔데요?

석철 소환을 당해두 그렇구 말이요. 어데 가자면 추천장이 있어야 한다는걸 이걸 잊어서는 안되오.

옥음 오— 그야 관리위원회에서나 민청에서 써주지요 뭐.

석철 어떻게 써주느냐 하는게 문제란 말이요. 동무가 노래명수라 할지라도 《로동을 사랑할줄 모름. 양돈공으로서는 건달이었음.》 이렇게만 써주는 날이면 동무나 나나 이게 모든게 다 허사가 되구만단 말이요. 원래 추천장이란게 있는 사실그대루 써주는 법이니까.

옥음 동무에게두 추천장이 필요하나요?

석철 필요하구말구요.

옥음 정말 대학에 가요?

석철 어델 가든요 내 동무를 보내구야 갈테니 걱정할건 없소.

옥음 예, 지금 나에 대한 추천장을 쓴다면...

석철 옥음동무, 동무 오늘 당장 가는것두 아니구 문제는 말이요, 앞으로 어떻게 하는가가 문제요.

옥음 앞으로요?

석철 음, 모든것은 현재를 놓고 평가하니까.

그러니까 내 말은 노래를 하면서 모범양돈공이 되라 그 말이요. 거 뭐, 새로운것을 받기한다든가 어쨌든 좋은 일을 해보란 말이요. 우리 저 범바위산을 개간해야 되겠는데 로력문제가 걸렸구만.

옥음 로력이요?

석철 동무가 한번 풀어볼만 하오?

옥음 아이, 힘자라는데까지는 하겠어요.

석철 그렇소?!

옥음 예.

△금단이 나오다 듣는다.

석철 (옥음에게 꽃을 주며) 옥음동무, 동무의 발전을 축하하오.

옥음 아이, 고마워요.

석철 자 옥음동무, 한마디 뽕소. 내 한번 들어봅시다.

△옥음 노래한다.

산이 좋고 물이 맑아 절승경개 이뤘느냐

△금단이 나가려다 기선이와 마주친다.

두사람 마주보며 놀란다.

△옥음의 노래가 고조되는 속에 무대 어두워진다.

(다음호에 이음)

가 사 교정감의 나무 김국철

병사의 군복 입고 모교를 떠나며
한그루 감나무 교정에 심었네
복무의 나날속에 병사가 자랄 때
교정의 감나무도 키높이 자랐네
아, 키높이 자랐네

전호가 병사의 가슴속에는
언제나 교정의 감나무 설렘었네
감나무 자라서 열매맺을제

영웅되어 돌아가리 맹세도 불렀네
아, 맹세도 불렀네

병사의 가슴에 금별이 빛나던 날
교정의 감나무 감꽃이 피었네
그립던 스승의 품에 안길제
무르익은 감열매 향기를 풍겼네
아, 향기를 풍겼네

리동춘과 경희극 《산울림》

올해 4월 하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국립연극단에서 재창조한 경희극 《산울림》을 몸소 보아주시고 사상은 물론 모든 형상요소들이 최상의 경지에 이른 걸작이라고 높이 평가해주시면서 이 작품에 《**김일성상**》을 수여하도록 해주셨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5월 상순 력사적인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비공식방문을 하시고 조국에 돌아오시자마자 쌓이신 피로도 푸실 사이 없이 또 다시 경희극 《산울림》을 보아주시고 작품은 보면 볼수록 심오한 생활진리를 가슴깊이 새겨주는 시대의 명작이라고, 작품은 커다란 감화력과 인식교양적의의로 하여 오늘도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투쟁과 위훈으로 힘있게 추동하는 위력한 교양수단으로 되고있다고, 우리 창작가, 예술인들이 영원한 생명력을 가진 이런 명작을 더 많이 창조하여 강성대국건설대전에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무한한 힘과 용기를 안겨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일찌기 비범한 령도로 이 땅우에 전설속의 천리마를 불러오신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1960년대초 현지지도의 길에서 경희극 《산울림》을 몸소 보아주시고 사회주의건설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는 농촌의 현실을 생동하게 형상한 작품이라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작품을 온 나라가 다 보게 해야 한다고, 누구나 이 작품의 주인공들처럼 조국건설에 애국의 땀을 바쳐야 한다고 간곡히 가르쳐주시였다.

이번에 수십년전에 창작되었지만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재창조된 경희극 《산울림》을 보아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이 작품은 필독교본과 같다는 뜻깊은 말씀도 해주셨다.

필독교본과 같은 경희극 《산울림》.

1960년대초 강원도도립예술극장에서 창작공연되고 그후 여러 예술단체들에서 무대에 올린 경희극 《산울림》은 작품의 높은 사상예술성과 감화력으로 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경희극 《산울림》의 문학은 《**김일성상**》계관인이며 로력영웅인 작가 리동춘〔주체14(1925)년 8월—주체77(1988)년 3월〕이 주체50(1961)년에 창작한것이다.

작가는 희곡작가로서 황해북도 사리원시 상하동로동자의 가정에서 출생하였다.

주체28(1939)년에 사립학교를 마친 그는 먹고살기 위해 소년로동자로 뼈가 굵기 전부터 막로동을 하였으며 주체33(1944)년에는 일제의 패

망을 앞두고 일본 홋카이도에 강제로 징병에 끌려가 놈들의 인간이하의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노예로동을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8.15조국해방은 작가에게 이루 해아릴수 없는 크나큰 기쁨을 안겨주었다.

조국에 귀국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 안겨서야 작가는 자기의 참된 삶의 길, 보람차고 영예로운 창작의 길을 마음껏 걸을수 있게 되었다.

해방되어서부터 황해도 봉산군에서 자위대원으로, 그후 황해도도립극장에서 전문적인 작가로 창작활동을 하였으며 주체49(1960)년부터는 사회안전부(당시) 창작실 작가로 있으면서 수많은 작품들을 창작하였다.

이 기간 그는 이름있는 작품으로서 불요불굴의 혁명투사이시며 우리 나라 녀성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조선의 어머니 강반석녀사의 혁명활동과 숭고한 품모를 감명깊게 보여준 연극 《우리의 어머니》〔주체57(1968)년〕를 비롯하여 전후복구건설시기 전쟁으로 흑심하게 파괴된 용광로를 자체의 힘과 지혜, 기술로 복구하는 어느 한 제철소 로동계급의 영웅적투쟁모습을 형상한 연극 《위대한 힘》〔주체46(1957)년〕, 알곡 100만톤을 더 낼데 대한 우리 당의 농업정책을 높이 받들고 일떠선 협동농민들의 락천적이며 혁명적인 기백을 명랑한 웃음속에서 보여준 경희극 《산울림》〔주체50(1961)년〕,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한 력사적사실에 기초하여 조선인민의 슬기와 애국주의정신을 형상한 력사주제의 연극인 《서희장군》〔주체52(1963)년〕 등 다양한 주제의 성과작들을 많이 창작하였다.

그는 또한 《산울림》〔주체55(1966)년〕, 《침략선〈서민〉호》〔주체55(1966)년〕 등 여러편의 영화문학도 성과적으로 창작하였다.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천리마의 기세드높이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인 제1차 7개년인민경제계획수행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 떨쳐나섰던 1960년대초의 벅찬 현실은 천리마시대 인간들의 아름다운 생활을 반영하고 그들의 숭고한 지향, 전투적기백을 힘있게 고무할수 있는 현실주제의 다양한 예술작품을 절실히 요구하고있었다. 시대와 혁명발전의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경희극 《산울림》이 창작되게 되었다.

경희극 《산울림》에서는 혼자서 웨치는 소리는 낮은 둔덕도 울리지 못하지만 합창하는 웨침은 산천을 울린다는 뜻깊은 사상을 밝혀내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가는 현실에 있는 극적인 소재를 여러 방면에서 찾아내어 다양한 형태와 양상으로 그려내야 한다.》

경희극 《산울림》에서 제대군인인 황석철은 더 많은 알곡을 벌데 대한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그를 관철하기 위하여 산을 개간할것을 제기한다. 그러나 《자만자족병》에 걸린 관리위원장 송재와 작업반장 달수는 옛날에 못살던 산골을 오늘은 별방부럽지 않는 고장으로 만들어놓았다고 자만하는 한편 발머리돌각담이나 들쳐서 새땅을 얻어내는것으로 만족하면서 석철이의 제기를 막아버린다. 석철은 여러가지 의견을 내놓다못해 나중에는 서로 인과 같이 강건너 몇십리밖에 있는 범바위산에까지 올라가 여러 정보의 땅을 발견하고 그 땅을 개간할것을 제기한다.

송재와 달수는 이러는 석철이를 공상에 몰것고 소총명에 들뜬 《교양대상》으로 여긴다. 그러면서 석철이를 《교양개조》할 과업을 달수의 딸 금단이에게 맡긴다.

석철은 리당위원장(당시)의 지도밑에 농장원들을 발동시키고 기계를 도입하여 범바위산개간의 예비와 가능성을 끝내 마련한다.

석철이를 비롯한 긍정인물들이 새땅개간의 일판을 크게 벌려나가자 송재와 달수도 감화되어 나중에는 조합원들을 범바위산개간으로 조직동원한다. 그리하여 범바위산개간은 성공하게 되며 알곡증산의 커다란 전망이 환히 열리게 된다.

작품에서 황석철은 시종일관 적극적이면서도 모든것을 밝고 명랑한 웃음속에서 처리하는 기지있는 인간으로 그려졌다면 리당위원장 함락주는 말보다 실천행동으로 대중을 새땅찾기로 불러일으키는 리지적이고 침착하면서도 근면한 인물로 형상되고있다.

그리고 작품에서는 모순된 사고방식과 행동을 하는 송재와 달수, 강인한 성격의 소유자이며 열성민청원(당시)인 처녀주인공 금단, 더떨더떨하면서 송재와 달수의 틈바구니에서 분주히 뛰어다니는 덕실, 늘 노래부르며 도시에 날아갈 꿈만 꾸는 들뜬 사양공처녀 옥음, 시골토배기녀성의 냄새가 폭폭 나는 2작업반장 달수의 처 송씨도 개성이 뚜렷한 인물들로 형상하고있다.

경희극은 아무리 유리한 조건이 조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의 부름에 호응하여 더 높은 리상과 포부를 내세우고 분발해나가지 않으면 우물안의 개구리로, 나아가서 본의아니게 시대의 흐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된다는 심각한 교훈을 사람들에게 안겨준다.

작품에서는 산울림에 대한 극적인 기대를 안겨주는 서장과 3막에서 범바위산개간에 펼쳐나설것을 지향하는 청년들의 화답소리, 4막에서 관리위원장 송재가 석철과 리당위원장의 부름에 호응하

는 장면, 작품의 주제사상이 극중인물들의 대합창을 통하여 밝혀지는 종장을 설정하여 《산울림》의 철학적의미가 더욱 부각되고있다.

작품에서는 전망도를 놓고 농장청년들이 열정적인 토론을 벌리는 서로인네 집과 달수네 집앞 마당장면에서 새 세대들의 통이 큰 일본새와 소극적이며 협소한 개조안에 매달려있는 송재와 달수의 뒤떨어진 사고방식의 차이를 비교법으로 뚜렷이 보여주면서도 달구지길보수, 팡튀기집, 도배종이세부 등 인물들의 희극적인 생활을 생동하게 보여주는 이야기거리들을 잘 안받침하여 장면의 극성과 웃음이 생활속에서 저절로 흘러나오도록 하고있다.

경희극 《산울림》은 극문학의 특성에 맞게 대사형상도 이채롭게 하고있다.

작품에서는 소박하면서도 생활적이며 의미깊은 명대사들을 많이 쓰고있는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심금을 울어잡는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있다.

작품의 첫시작에 주인공이 《우리 조합은 천리마를 땀습니까?》하고 스스로 물음을 제기하며 천리마를 타고싶어도 달릴데가 없다고 하는 대사는 이미 이룩한 성과에 만족하고있는 일군들의 정신상태와 더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달려나가는 청년들의 지향을 함축된 대사형상속에서 반영하고있다.

작품에서는 이런 대사를 잘 골라씀으로써 해학적인 웃음속에 앞으로 펼쳐질 생활에 대한 극적기대를 한층 돋구어주는데 효과적으로 이바지하고있다.

그리고 작품에서 일부 일군들의 물리해를 받는것으로 하여 손땀을 놓고있는 석철에게 대중의 힘을 발동할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 진리를 일깨워주는 리당위원장의 대사 또한 웅심깊을뿐아니라 천리마를 타고 내달리려는 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이 얼마나 위력한가를 깊이 체험하게 되는 송재의 내면세계도 생활적인 명대사로 생동하게 형상하고있다.

뿐만아니라 작품에서는 인물들의 성격적특질을 기지있고 유모아적인 대사들로 형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사람들이 보면 볼수록 웃음이 절로 나고 눈물도 절로 나게 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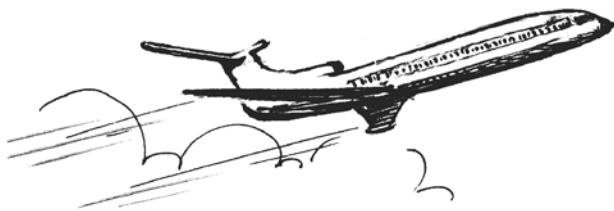
이번에 재창조된 경희극 《산울림》은 무대미술, 음악형상 등에서도 《성황당》식연극형식에 맞게, 선군시대의 미감에 맞게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다.

지난 천리마시대에 창작된 경희극 《산울림》은 태일에 대한 원대한 포부와 리상을 안고 계속 혁신, 계속전진해나가는 우리 인민의 투쟁과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하고 의의있는 시대적문제를 밝혀내고있는것으로 하여 오늘도 그 생명력을 남김없이 펼치고있다.

실로 경희극 《산울림》은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인 걸작, 국보적인 작품으로 길이 빛날것이다.

리 순 철

의지



김 명 진

7월의 태양이 눈부시게 빛나고있었다. 달아오른 대기에는 야자나무들에서 풍기는 향기가 그윽하게 떠돌았다.

하지만 그 공기가 흘러드는 방안에는 무겁고 칙칙한 정적이 깃들어있었다.

움베르토는 창가에 서서 멀리 바라보이는 안데스산줄기를 점도록 지켜보고있다가 조용히 돌아섰다. 고개를 수긏하고 방안을 천천히 거니는 그의 마음은 번거롭기 그지없었다.

(그 애가 의식을 차리었을까?)

병원에 가있는 안해한테서는 여전히 소식이 없었다. 벌써 3일째 삶과 죽음의 계선에서 아들 벨슨은 방황하고있다. 채굴이 부스러지고 피를 많이 흘려 종이장처럼 창백해진 얼굴, 산소호흡기로 겨우 이어가고있는 가느다란 숨결... 그 생명을 지켜안해는 소생실을 뜨지 못하고있는것이다.

아들의 치명상은 움베르토의 가정을 커다란 불행에 밀어넣었다. 불안이 깃든 집에선 모든 생활이 정지된듯싶었다. 가뜩이나 약한 움베르토의 심장은 또 얼마나 커다란 타격을 받았는가.

지금도 그는 뜨끔뜨끔 조여오는 심장의 아픔에 가슴노리를 손으로 지그시 누르며 이 산악처럼 무거운 압박감에서 벗어나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랐다. 움베르토는 문득 책상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책상위에 놓여있는 파르스름한 러권... 목적지를 조선으로 밝힌 러권은 벌써 며칠째 여기 책상우에서 그를 지켜보고있었다. 언제면 떠나겠는지...

찰칵, 찰칵... 탁상시계의 초침소리마저 그의 마음을 재촉하는듯싶었다. 덧없이 흘러가는 순간순간이 그의 가슴을 더욱 압박하고있었다.

어떻게 해야 할것인가? 아들은 여전히 혼수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이제라도 의식을 회복하면 마음놓고 비행장으로 나갈수 있으면만...

움베르토는 러권을 더욱더 지켜보다가 육중한 몸을 쏘파에 묻었다. 피로움으로 이그러진 얼굴을 두손으로 힘껏 비볌다. 짙은 눈섭아래 우뚝히 패

워들어간 두눈은 빨갛게 충혈지고 우뚝 솟아오른 코날은 풀무마냥 벌름거렸다.

(이제라도 기적이 일어났으면...)

움베르토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이런 때일수록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사고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인생의 쓰고 단맛을 다 보고 로년기에 이른 내가 이만한 일에 맥을 놓아서야 되랴.

그는 책상서랍에서 담배를 꺼내 한대 꼬나물었다. 불을 붙여 연기를 길게 내어뿜으며 며칠사이에 일어난 뜻밖의 일들을 하나하나 돌이켜보았다.

...그날 아침 움베르토의 집으로는 예파도르주재 미국대사관의 참사 클라크가 찾아왔다. 뜻밖이었다. 두눈이 파랗고 입가에 노상 웃음을 띠고있는 푸점좋은 사나이, 그의 얼굴을 본지가 오래되었는데 무슨 일로 갑자기 찾아왔을까.

움베르토가 사장으로 일하고있는 《불룬파드》출판사에서 미국을 선전하는 글을 더 많이 실어달라는 명목으로 교제를 시작하면서 퍼그나 발길이 잦던 인물이었다. 출판사의 일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때로는 자기 낮을 내어 선심을 쓰기도 했었다.

그랬던 클라크는 움베르토가 몇년동안 심장병치료를 받게 되자 얼굴을 내밀지 않았었다. 움베르토의 머리에서는 칠면조처럼 변화가 심한 미국인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졌다.

그렇게 잊고있던 클라크가 이 아침에 문득 찾아온것이 움베르토에게는 어딘가 꺼림직하였다. 평시에도 그라는 인간을 그닥 좋지 않게 보아온 움베르토는 이 미국인에 대한 각성을 높이지 않을수 없었다.

클라크가 움베르토에게 심장수술을 받은 경과가 어땠가, 자기는 그동안 본국의 부름을 받고 가있느라 한번도 와보지 못했노라고 사죄의 인사를 하였다.

움베르토는 팬찮다고, 이제는 심장이 퍼그나 좋아졌다고 웅대하면서 내심으로는 이자가 본론을

꺼내기를 기다렸다.

클라크는 담배 한대를 태우고나서 움베르토에게 던지시 말을 건넸다.

《듣자니 사장선생은 조선을 방문하러 한다면서요?》

(소식이 빠르기도 하군.)

자기의 조선방문계획이 어떻게 벌써 이자의 귀에 들어갔을가 하고 움베르토는 놀랍게 생각했다.

《내 친구로서 권고를 하는데… 그만두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시는 말씀인가요?》

움베르토는 클라크의 파란 눈을 지그시 쏘아보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클라크는 신중한 기색을 지었다.

《사장선생도 알고계실테지만… 북조선은 곧 붕괴될것입니다. 이건 시간문제입니다. 머지않아서 지구상에서 이름이 없어질 그런 나라에 무슨 일로 간단 말입니까.》

클라크가 속심을 내보이자 움베르토는 얼굴에 쓰거운 빛을 지으며 대꾸를 하지 않았다. 클라크는 더욱 열을 올렸다.

《내 기억이 틀리지 않는다면… 사장선생은 조선을 열번 다녀왔지요? 옳습니까?》

그때로부터 세월은 멀리 흘러왔습니다. 그사이 조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서방의 출판물들이 조선의 붕괴를 앞을 다투어 예고하고있지 않습니까?》

《그만하십시오. 내게도 귀가 있소.》

움베르토는 그자의 말을 듣기가 역하여 통명스레 한마디 내뉘었다. 찾아온 손님에게 실례가 되는줄 알면서도 이렇게 하지 않을수 없었다.

하지만 클라크는 낯색을 달리하지 않았다.

《나는 사장선생을 생각해서 이런 말을 하는겁니다. 머나먼 길에 공연한 수고를 하는것 같아서… 그리고 왔던김에 한마디 조언을 드릴것은 출판사가 너무 좌익으로 기울어지는것 같습니다. 에파도르와 친선관계를 유지하고있는 미국으로서는 그것을 우려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사장선생이 이런 사정을 알고 잘 조치해주기를 바랍니다.》

클라크는 얼굴에 옅은 웃음을 띠고있었지만 그의 어조에서는 로골적인 위협이 풍기고있었다.

그렇다고 크게 놀랄것은 없었지만 어쨌든 신중해야 했다. 움베르토는 속으로 가늠해보았다.

(이자는 미중앙정보국의 요원일수 있다. 내가 조선을 열번 갔다온것까지 꿰뚫고있지 않는가.) 그러고보니 클라크가 출판사와 자신의 움직임을 날날이 살펴보고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움베르토는 내쏘듯이 말하였다.

《여보시오, 남의 집일에 무슨 그리 간참이요? 내 일은 내가 알아 처리할테니 너무 참견하지 마시오.》

《간참이 아닙니다. 나는 오랜 친구로서 사장선생일이 넘려되어 그러는겁니다. 내 성의를 곡해하지 마십시오. 조선방문문제는 다시 잘 생각해보고 결심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클라크는 이렇게 다짐을 두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움베르토는 그자를 바라주고나서 기분이 썩 좋지 않아 방안을 서성거렸다.

(홍, 조선방문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라고?…)

클라크가 말하지 않아도 그에 대해서 움베르토는 생각해볼대로 생각해보았다. 열한번째의 조선방문… 오늘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또 했던가. 오늘의 결심을 위하여 8년이라는 세월을 바쳤다. 마음속에 항시 안고있던 조선, 자신을 이끌어줄 위대한 령도자를 만나뵈오려고 얼마나 가슴을 태워왔던가. 조선을 방문하려는 나의 결심은 확고하다. 이것을 꺾어보려고 원수들은 비렬하게 책동하고있는것이 아닌가. 미국놈들이 아무리 방해책동을 하여도 조선으로 정해놓은 나의 향로를 변경시킬수는 없다.

그날 저녁 아들이 돌아오자 움베르토는 미국인이 왔었던 일을 이야기하였다. 출판사에서 아버지의 일을 도와주고있는 넬슨은 이야기를 듣더니 낯색이 심각해졌다. 얼마후에 그는 힘들게 말을 꺼냈다.

《아버지, 그자가 한 말이 심상치 않군요. 아버지의 의지를 기어이 꺾으려고 그러는것 같은데… 그자들이야 자기 눈에 들지 않으면 못하는것이 없지 않아요?》

《내 그자에게 남의 일에 간참말라고 면박은 주었지만… 어딘가 불안한 생각이 든다.》

《아버지, 제 생각에는 조선방문을 미루는게 좋을것 같아요. 아버지가 미국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 출판사에 대한 압력이 커질것은 불보듯 명백해요. 지금 출판사의 경영이 시원치 않은데다 아버지의 건강도 그렇고… 아무래도 그 몸으로 먼 려행길에 나서는것이 마음 놓이지 않아요. 아버지, 조선방문을 다문 얼마동안만이라도 미루어주세요.》

그러지 않아도 움베르토의 조선방문을 뜨아히 여기고있던 넬슨은 이 기회에 아버지를 돌려세우려고 꼭진히 당부했다.

움베르토는 아들을 타일렀다.

《너무 걱정말아. 내가 이번 려행길을 어떻게 결심했는지 너는 알고있지 않느냐. 미국사람들이 어떻게 나오든간에 내 결심을 꺾지는 못한다. 너도 이 아버지의 마음을 리해해다오.》

움베르토의 드팀없는 결심에 아들은 더 만류를 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튿날 저녁 뜻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했다. 넬슨이 출판사에서 일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골목길에서 갑자기 중량급화물자동차가 달려

나오며 그가 탄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승용차는 앞머리가 납작해지고 차를 운전하던 넬슨은 머리가 터지고 쇠골이 부스러졌다. 그에게 치명상을 입힌 화물차는 어디론가 종적을 감추어버렸다.

그 소식을 듣고 움베르토가 병원으로 허둥지둥 달려가니 아들은 반주검이 되어 혼수상태에 놓여 있었다. 구급처치를 하고 수혈을 하여도 그는 의식을 차리지 못하였다.

움베르토는 밤새 아들의 곁을 떠나지 못하였다. 가슴속에서는 아들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은 놈들에 대한 분노가 끓어올랐다.

어떤 놈들이 이런 짓을 했을까. 우연한 사고인가?

미국대사관원의 로골적인 위협, 자동차충돌... 이것은 나의 조선방문을 막으려는 고의적인 행동이 아닐까. 아직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그렇게 추측되었다. 미국사람들이 나의 조선방문에 대해 왜 그렇게 신경을 쓰고 그 길을 가로막으려고 하는가. 조선의 현실을 보고 오는것이 저들에게 그렇듯 커다란 위협으로 되는가?

아들의 치명상은 움베르토에게 있어서 커다란 타격이었다. 그러지 않아도 동통을 느끼고있는 심장이 부담을 받아 모진 아픔을 자아냈다. 놈들은 바로 이것을 노리고 이번 사고를 조작해낸게 아닐까. 조선방문을 가로막으려는 흉심에서...

아닌게아니라 하루이틀내로 조선으로 향한 비행기를 타려고 했던 움베르토는 뜻하지 않은 일로 걸음을 늦추지 않을수 없었다. 아들이 빈사상태에 놓여있는것을 보고 그대로 발길을 땔수는 없었다. 아들이 의식을 차리고 소생할수 있는 가망만 보여도 마음놓고 비행기에 오를수 있으련만...

열한번째의 조선방문... 오랜만에 마련한 이번 걸음이 왜 이렇게 힘든가. 편이어 나서는 이 모든 정황들은 조선을 방문하려는 움베르토의 신념과 의지를 시험해보는듯싶었다.

움베르토는 쏘파에 몸을 푹고 눈을 감았다. 한창나이에 편인을 찾는 설레는 마음으로 조선을 처음 방문했던 일이 어제런듯 선히 눈에 밝혀왔다.

...움베르토가 조선과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에 대하여 알게 된것은 20여년전이었다.

어느날 끼포종합대학에서 교편을 잡고있는 한 친구가 찾아와 동방일각에 조선이라는 작은 나라가 우뚝 솟아 빛을 뿌리고있다고 이야기해주었다. **김일성**주석님께서 사람중심의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의 나라를 세우셨다는 그의 말은 움베르토에게 지울수 없는 충격을 주었다.

(지구상에 인류가 바라는 그런 나라가 있단 말인가?)

대학을 졸업하고 부귀와 권세가 판을 치는 이 사회를 바로잡아보려고 세상에 두주먹을 부르치고 도전해나섰던 움베르토였다. 돈도 재부도 없는 그

는 오직 자신의 힘과 의지로 험난한 길을 개척해 나가야 했다. 가까스로 마련한 돈으로 출판사를 하나 내오고 자신의 생활신조를 반영하여 그 이름도 《불론파드(의지)》로 달았었다.

움베르토는 태양신을 숭배하고있었다.

빈부의 차이가 없이 누구나 골고루 사는 사회에서 살아보았으면 하는것은 움베르토의 소원이자 에파도르인민의 세기적인 념원이기도 하였다.

태양신을 믿으면 그 복을 누릴수 있을듯싶어 하늘가까이 안데스산정에 수도를 정하고 태양신을 열심히 숭배해온 인까국의 후손들.

세기를 이어가며 태양신을 숭배해왔지만 인민들의 소박한 념원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 산정에 뼈와 살을 묻어온 조상들이여, 말해다오, 오랜 세월 빌고 또 빌었던만 태양신이 그 대들에게 가져다준것이 무엇이었던가. 빈부의 차이는 여전히 심하고 사회는 모순되고 불합리한채로 남아있었다. 정녕 인민이 의지하고 살아나갈 길을 가르쳐주는 그런 신은 이 세상에 없단 말인가. ...

이런 몸부림을 안고있는 움베르토에게 있어서 동방일각에 솟은 조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에 대한 전설같은 이야기는 앞길을 찬란히 비쳐주는 등대와도 같았다.

가자, 조선으로 가서 주석님을 만나뵙읍자. 그이의 가르치심을 직접 받고 인민의 나라로 된 그 나라 실정을 눈으로 직접 보고싶었다.

그날부터 움베르토는 **김일성**주석님께 드릴 선물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안데스산정에 올라 줄이 안 쏘고 재질이 좋은 진귀한 나무를 구해가지고 왔다. 그는 자신이 직접 조각칼을 들고 조각가와 함께 조각품을 만드는 일에 달라붙었다.

한손에 동냥바가지를 들고 구걸하는 늙은이를 형상한 조각품에는 에파도르의 가난한 사람들을 구원해줄 은인을 기다리는 절절한 소망이 담겨있었다. 조각품에 온갖 성의를 다 기울이었지만 위인에게 올리는 선물로는 너무 초라하게만 여겨졌다.

하지만 조선을 방문한 움베르토는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을 뵙읍는 자리에서 그 선물을 올리고 파분한 치하를 받았다.

주석님께서서는 조각품을 주의깊게 살펴보시고 이걸 만드느라고 수고가 많았겠다고, 이 선물을 박물관에 가져다놓고 사람들을 교양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넋을 잃게 하는 환한 미소, 한없이 소탈하고 겸허하신 인품, 사물현상에 대한 명철한 분석과 천리혜안의 가르치심... 뵙읍는 첫순간부터 그이께 매혹되어버린 움베르토는 두시간동안을 어떻게 보냈는지 몰랐다.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

을 바쳐 일하고있다는 그이의 말씀을 들으며 움베르토의 가슴은 한껏 부풀어올랐다.

(주석님이시야말로 나와 에파도르인민의 운명을 맡길분이시구나. ...)

김일성주석님에 대한 존경과 신뢰심은 조선방문의 나날에 더욱 굳어져갔다. 인민들이 조밥을 먹을 때는 자신도 조밥을 잡수시고 때로는 평범한 농장원이 되시어 인민들과 고락을 같이하시는 진정한 인민의 수령, 그이의 거룩한 발자취가 어련 곳마다에서 듣게 되는 전설같은 이야기들...

하다면 인민이 따르고 흠모하는 **김일성**주석님의 위인상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것인가.

만경대고향집을 방문하게 되면서 그는 그 해답을 찾게 되었다. 수수한 초가집, 닭고닭은 농쟁기들, 대대로 농사를 지어온 조부모님들에 대한 이야기...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는 **김일성**주석님의 위인상은 바로 이 수수한 초가집에서부터 시작되었구나. 어느해인가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 연풍중학교를 찾으시어 새 교복을 입은 아이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리도 기뻐하시며 손수 사진을 찍어주시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이께서는 한 나라의 수령이기 전에 인민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시는 인민의 어버이이시라는 생각으로 가슴이 뜨거웠다.

밤이면 그이께서 집필하신 고전적로작들을 탐독하느라 그는 언제 새날이 밝는지 알지 못했다.

그러느라니 그는 처음 예견하였던 일정을 넘기게 되었다.

문득 그의 귀전에는 떠나올 때 안해와 아들이 당부하던 말이 떠올랐다.

《생일전에 꼭 돌아오셔야 해요.》

《알겠소, 제 날자에 들어설테니 상이나 푸짐히 차려놓소.》

안해와 아들에게 남긴 그 약속을 어기게 되었다는 생각으로 움베르토는 한순간 가슴이 허전하였다. 이국에서 남모르게 생일을 맞게 되는 아쉬움을 금할수 없었다.

생일날 아침 한 일군의 안내를 받으며 식당으로 내려간 움베르토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따로 차려놓은 풍성한 식탁... 거기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고기를 넣은 만두까지 놓여있었다.

《움베르토선생, 우리 나라에서 생일을 맞는 선생에게 **김일성**동지께서 친히 보내주신 생일상입니다.》

그 말을 듣고 움베르토는 자기 귀를 의심하였다. 한 나라뿐아니라 세계의 정치를 주도하고계시는 경애하는 주석님께서 한 이름없는 외국인사의 생일까지 헤아려 이렇게...

눈물이 앞을 가리워 그는 고개를 수그리고 《주석님,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목메여 부르짖

었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 베푸시는 고결한 의리와 사랑을 직접 받아안은 움베르토는 그이에 대한 절대적인 존경심이 가슴가득히 차올랐다. 세상에 이렇듯 위대한 친화력을 지닌 인민의 수령이 또 어데 있으랴.

그후에도 움베르토는 조선을 여러차례나 방문하여 **김일성**주석님을 만나뵙는 영광을 지니었다.

조선방문의 나날에 그를 더욱 기쁘게 해준것은 이 전설같은 나라에 또 한분의 위대한 인민의 지도자를 모시게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김일성주석님의 사상과 덕망을 그대로 체현하신 **김정일**령도자에 대한 인민들의 존경과 흠모심을 직접 목격하게 된 움베르토는 이 나라의 앞날이 창창하리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조선인민이 것처럼 흠모하여 따르는 두분의 령도자에 대한 인식을 깊이하면서 움베르토의 머리에는 하나의 확신이 형성되어갔다. 인민의 아들로 태어나 인민을 위한 일에 한평생을 다바쳐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그분들이시야말로 인민형의 지도자라고...

그분들이야말로 안데스산정에 만민이 복되게 살게 해주기를 소원하여 자신과 에파도르인민이 숭배하며 찾고 기다렸던 태양신이 아니신가.

하늘가까이에 수도를 정하고 만복을 가져다 주기를 그렇게 바랐던 그 하늘이 주지 못했던 인민이 살아나갈 자주의 앞길을 그분들이 가르쳐주고있었다.

움베르토는 조선을 방문하는 기회에 자신의 지성을 담아 **김일성**주석님께 또 하나의 조각품을 선물로 드리었다. 동남바가지에 음식을 수북이 받아 들고 주름진 얼굴에 만족한 웃음을 지은 늙은이의 형상, 그것은 자기 힘을 믿고 살아나갈 길을 찾은 에파도르인민의 모습을 형상한것이라고 할수 있다.

10차에 걸치는 조선방문과정에 움베르토는 **김일성**주석님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자신의 심장에 생명수처럼 받아안았다. 생각을 해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걸음을 걸어도 그이의 가르치심대로... 그의 숨결은 조선과 잇닿아있었고 그의 심장은 주석님께서 안겨주신 생의 활력으로 높뛰고있었다.

그는 자신이 일하는 출판사에서 주석님의 로작을 수백만부나 출판하여 에파도르와 남아메리카나라들에 보급하였다. ...

《짜르릉!》 하는 전화종소리가 울렸다.

움베르토는 깊은 회억에서 깨어나 눈을 떴다. 정적을 깨뜨린 종소리에 그의 심장은 놀란듯 후두둑 뛰었다.

(안해가 찾는 전화구나. 벨슨이 의식을 차렸을가. 아니면...)

움베르토는 소파에서 무거운 몸을 일으켜 책상 한옆에 놓인 전화기에 손을 가져갔다. 기쁨 아니면 그 어떤 슬픔이 기다리고있을듯싶어 송수화기를 잡는 그의 손은 가늘게 떨렸다.

수화구에서는 뜻밖에도 능글맞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사장선생, 안녕하십니까?》

클라크였다. 이자가 무슨 일로 또 전화를 하는 것일까. 움베르토는 쓰거운 약을 입에 넣었을 때처럼 미간을 찌프리였다.

《무슨 일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통명스레 울렸다. 눈앞에는 사람의 속을 꿰뚫어보는듯 한 클라크의 파란 눈이 떠올랐다.

《그동안 생각해보았습니까?》

단도직입적이었다. 움베르토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틀어쥐려는 자세였다.

하지만 움베르토는 주저하지 않았다.

《생각해보았소.》

《그렇다면 결심이 섰을테지요?》

《결심이 섰소, 달라지지 않았소. 아니, 더욱 확고해졌소.》

움베르토는 힘주어 대답하였다. 클라크는 뜻밖인듯 잠시 잠잠하더니 코멘 소리를 하였다.

《듣자니... 아들이 뜻하지 않은 불상사를 당했다는데... 일이 참 안되였습니다. 아들이 아직 의식을 차리지 못했다는데 어떻게 조선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아들부터 구원해야지요. ...》

(음, 그랬었구나. 내 아들을 네놈들이 그렇게 만들어놓았구나. ...)

이제는 모든것이 명백하였다. 미국놈들이 그의 의지를 꺾으려고, 조선방문을 저지시키려고 비렬한짓을 했다는것이 명백해졌다. 움베르토는 갑자기 심장이 푹 멎는듯 한 아픔이 엄습하여 한손으로 가슴을 그러쥐며 《음.》하고 신음소리를 냈다. 수화구에서는 클라크의 다급한 소리가 흘러나왔다.

《사장선생, 왜 그러니까. 심장이 또 말썽을 일으키는게 아닙니까?》

《...》

《역시 건강은 속일수 없구만요. 심장이 그렇게 약해가지고 어떻게 먼 여행길에 나선다고 그러니까.》

사장선생, 진심으로 권고합니다. 조선방문을 취소하고 집에서 치료나 받으십시오. 조선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는데... 선생이 후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모한 길에 나섰다가는 너무도 많은것을 잃어버릴수 있습니다. 선생 나이에는 무엇보다도 심장을 아껴야 하지요.》

클라크의 능글맞은 목소리를 듣느라니 움베르토는 온몸에 땀이 기어드는듯 한 소름이 끼쳤다. 가

슴에 엄습해오는 동통을 가까스로 눌러놓았다.

《생각해주어 고맙소. 그러나 조선에 가야 내 심장이 좋아진다는것을 당신은 알아야 하오!》

움베르토는 선언하듯 말하고 송수화기를 소리나게 놓아버렸다. 그는 흥분을 누르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직도 지긋한 아픔이 느껴지는 가슴우에 한손을 얹고 방안을 조용히 거닐기 시작했다.

(내 심장은 지금 무엇을 위해 뛰고있는가. ...)

툭, 툭... 심장의 박동을 손으로 느끼며 움베르토는 마음속으로 물었다. 사람은 자신에게 심장이 있다는것을 느끼지 못해야 건강체라고 한다. 그런데 움베르토는 자신의 심장이 뛰고있다는, 그것도 몹시 힘들게 뛰고있다는 느낌을 받고있은지가 오래다.

이제는 70고령에 이른 나이이니 그동안 자신의 심장은 얼마나 많이 뛰었을것인가. 그의 심장은 너무도 많은것을 체험하였고 수많은 기쁨과 슬픔으로 높뛰었다. 짧지 않은 한생을 돌이켜보느라니 그의 심장이 가장 큰 기쁨으로 뛴것은 조선을 방문하여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을 만나뵈었을 때이고 그의 심장이 가장 큰 슬픔에 젖어든것은 **김일성**주석님께서 서거하시었다는 비보를 들었을 때이다.

지금도 움베르토는 1994년 7월의 그 저녁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듯 한 아픔을 느끼곤 한다.

그때도 움베르토는 조선방문을 준비하고있었다. 래일이면 비행기를 타게 되어 여행가방을 꾸려놓고 텔레비존과 마주앉았다. 그런데 저녁보도를 하는 방송원의 얼굴이 여느때없이 킁킁하게 굳어져 있었다.

《세계는 심장을 잃었다. ...》

순간 불길한 예감이 심장을 움켜쥐었다. 움베르토는 숨이 꺾 막히는 침묵속에서 방송원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서거하시었다는것을 가장 비통한 심정으로...》

(아, 아, 이럴수가... 이럴수가 있는가?)

청천벽력이였다. 움베르토는 머리를 되게 얻어맞은듯 한 충격으로 정신이 아찔하였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하늘땅이 무너져내려앉는듯 했다. 세상에 과연 이런 일이 생기다니, **김일성**주석님께서 가시다니?... 아니, 아니, 거짓말이다. 도저히 그럴수 없는 일이다.

움베르토는 너무도 믿기 어려워 이 현실을 부정해보려고 했으나 결코 꿈은 아니였다. 엄연한 현실이였다. 그는 심장이 푹 멎는듯 하여 손으로 가슴을 그러쥐었다. 신음소리와 함께 오열을 터뜨리었다.

《주석님!》

얼굴에서는 눈물이 비오듯 흘러내리고 헤아릴수

없는 슬픔이 가슴에 짙게 차올랐다. 하늘에 태양이 영원하듯이 그이께서는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리라 믿고있었는데... 그 태양이 어떻게 꺼질 수 있단 말인가. 이제 며칠후에는 그이의 자애로운 품에 다시 안기리라 생각했었는데, 에파도르 인민이 나아가길 밝혀주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런 분이 떠나가셨다니 이것이 웬일인가!

움베르토는 가슴이 터지는듯 한 아픔을 더는 이겨내지 못하고 그만 그 자리에 쓰러져버리고 말았다. ...

움베르토가 의식을 차린것은 그때로부터 이틀이 지나 병원의 침대우에서였다.

의사들은 그에게 심근경색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그러지 않아도 심장이 약했더랬는데 크나큰 충격을 받고 위험계선에 이르렀다는 것이었다. 몸을 빨리 회복하고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여보, 꼭 그래주세요. 수술을 받아야 회복할 수 있어요.》

《아버지, 제발 부탁드립니다.》

안해와 아들은 움베르토에게 매달리며 애원하였다.

허나 움베르토는 그저 묵묵히 침묵할뿐이었다.

이제 수술을 받아서 무엇하랴, 수술을 하고나면 소생할수도 있겠으나 그렇게 살고싶은 생각이 없어졌다. 자신이 것처럼 존경하고 운명을 맡기었던 태양, 에파도르인민의 앞길에 밝은 서광을 비쳐주던 그 태양이 꺼져버렸는데 내 이제 살아서 무엇하랴. 앞날에 대한 희망도, 삶의 의욕도 태양과 함께 모두 잃어버렸다.

눈앞에는 항상 먹장구름이 드리운 캄캄한 하늘만 보이였다. 심장이 조여드는 지긋한 아픔은 갈수록 더해만지는 **김일성** 주석님에 대한 생각으로 덜어질줄 모른다.

제국주의연합세력의 포위속에서 붉은기를 지켜가는 조선은 장차 어찌될것인가. 미국이라는 포악한 승냥이가 그 작은 땅덩어리를 덮치려고 으르렁거리고있지 않는가.

조선의 슬픔이자 움베르토의 슬픔이었고 조선인민의 운명이자 움베르토자신의 운명이였다. 이제 조선이 승냥이의 거치른 발톱에 밟히울 생각을 하니 움베르토는 가슴이 서늘해지고 숨이 막히는듯했다.

《움베르토선생, 무슨 고민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자신을 괴롭히다가는... 안됩니다.》

의사들은 날로 하강선을 내려가으며 그의 심장의 박동이 점점 약해지는것을 보고 우려를 표시하였다. 그의 건강을 회복하려고 좋다는 약을 다 쓰고 극진히 간호하여도 효험을 보지 못하였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다.

어느날 안해가 가져온 여러장의 신문을 들추어 보던 움베르토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조선이 땅을 차고 일어섰다!》

눈앞에 확 안겨드는 글발...

조선이 곧 붕괴될것이라는 서방의 어용통신들의 떠벌임을 밀어내고 불사신같은 투지로 고난을 맞아 나가는 영웅적조선인민의 투쟁소식이 안데스 산정에도 날아온것이다.

슬픔을 힘으로 바꾸어 일어난 인민들, 도처에 일떠서는 크고작은 발전소들...

《여보, 신문을 매일 가져다주세요.》

움베르토는 신문에서 눈길을 땔줄 모르며 안해에게 부탁하였다.

안해가 매일 날라다주는 여러 통신, 신문들은 움베르토에게 생의 활력을 부여주었다.

그의 심장을 더욱 격동시키는 것은 **김정일** 최고사령관께서 인민군부대들에 대한 끊임없는 현지지도를 하고계신다는 소식이었다. 선군정치, 그이께서는 엄혹한 환경에서도 이 강철의 보검으로 만단을 이겨가고있지 않는가.

세계의 진보적인민들이 조선을 불안과 우려의 눈길로부터 오늘은 경탄의 눈길로 지켜보고있었다. 것처럼 작은 나라가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국과 맞서 당당히 나가는 그 정신적힘은 어디에 있는가.

선군정치였다. **김일성** 주석님께서 개척하신 그 길을 **김정일** 최고사령관께서 억척같이 이어가고 있었다.

그분께서 집필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이 련이어 세계를 놀래웠다.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이것이다!) 하고 움베르토는 침대에서 자리를 차고 일어섰다. 조선에서 벌어지는 놀랄만 한 변화를 지켜보는 과정에 그는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된듯싶었다.

그것은 **김정일** 최고사령관은 곧 **김일성** 주석님 이시고 자신이 것처럼 믿고 따르는 태양신이라는 것이다. 태양은 여전히 하늘에서 빛나고있었다. 태양의 력사는 계속되고있었다. 나는 왜 이것을 모르고 일찌기 모든것을 포기하려고 했던가. 살아야 한다. 살아서 다시 조선을 밝아보아야 한다.

《의사선생, 내 심장을 수술해주시요.》

움베르토는 의사들에게 간청하였다. 생에 대한 애착을 잃어버렸던 환자한테서 뜻하지 않은 변화가 생긴데 대하여 의사들은 몹시 놀라와했다. 움베르토가 어떻게 결심을 내렸는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의사들은 생에 대한 강렬한 욕구가 그의 건강회복에 좋은 영향을 주리라는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심장수술은 매우 어렵게 진행되었다. 고령의 나
이이므로 수술을 조심스럽게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워낙 병이 깊은데다 최대의 신중성과 높
은 기술을 요구하는 수술이었다.

죽음의 고비를 넘으신 움베르토는 이 세상에 두
번다시 태어난 기분이었다. 몸에서 봉대를 풀고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자 그는 매일 아침 정원으로
나가 안데스산정에서 솟아오르는 태양을 맞이
하곤 하였다.

검푸른 하늘을 불그레하게 물들이며 아아한 산
봉우리위에 불끈 솟아오르는 태양... 그 눈부신 빛
발은 부채살처럼 퍼지며 대지를 금빛으로 만들어
버린다. 그 한줄기 빛발은 두팔을 벌리고 마주선
움베르토의 가슴에도 따뜻이 안겨지며 생의 희열
을 복돋아준다. 그는 그 찬란한 빛발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외우곤 했다.

(태양신여, 내 기어이 그대 품에 안기리라!)

움베르토에게 있어서 하루하루는 자신의 병을
이겨내기 위한 투쟁의 나날이었다. 그의 생의 순
간순간은 조선으로 가기 위한 길을 닦는 노력의
련속이었다.

위대한 **김일성** 주석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위업
을 곳곳이 이어가시며 력사의 지휘봉을 높이 드시
여 세계를 이끌고 나가시는 **김정일** 동지를 만나뵈
옵고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는것이 움베르토의 생
의 목표이고 생활의 전부였다.

인간이 발휘할수 있는 의지의 힘을 모아 그 길
을 한치한치 닦아온 움베르토는 드디어 먼 려행길
에 나설수 있는 담보를 마련하였다. 그의 병을 오
래동안 치료해온 의사들도 그가 떠나는것을 허락
해주었던것이다.

그날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움베르토 자신이 환희
에 넘쳐있는 결정적시기에 뜻하지 않은 정황이 발
생하였던것이다. 미국놈들의 비렬한 책동, 뜻하지
않은 불상사... 조선으로 끌리어우고있는 나의 신념
과 의지를 또다시 시험하려고 하는가.

(비렬한 놈들!)

움베르토는 마음속으로 단죄하였다. 해빛을 손
으로 가리울수 없듯이 내놈들은 내 앞길을 절대로
가로막지 못할것이다, 하늘에는 일시적으로 구름
이 끼였지만 반드시 이 땅에는 찬연한 해빛이 쏴

아져내릴것이다.

《얼마나 속을 태우셨어요?》

가벼운 문소리와 함께 귀익은 목소리가 울려 움
베르토는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보았다. 문가에 안
해가 서있었다. 며칠사이엔 얼굴의 살이 내려 더
늙어보이는 안해는 몹시 지쳐버렸다. 집안으로 들
어서며 금방 쓰러질듯이 비칠거렸다.

움베르토는 반사적으로 앞으로 달려나가며 주저
않으려는 안해를 겨우 부여잡았다.

《넌슨은?》

그의 눈은 이것부터 물고있었다. 하지만 어떤
대답이 있을지 몰라 두려움으로 입을 열지 못했
다. 그는 안해의 두눈에 생기가 반짝이는것을 보
고 비로소 마음을 놓았다.

《의식을 회복했어요. 지금은 깊이 잠들었어
요.》

안해의 말을 듣고 움베르토의 가슴에서는 막혔
던 숨이 후하고 나갔다.

《이젠 됐소, 됐단 말이요!》

그는 반가움으로 안해의 자그마한 손을 짹 부둥
켜잡았다. 안해는 가까스로 걸어 쏘파에 가서 앉
더니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주었다.

《알베스는 눈을 뜨더니 당신의 안부부터 물었
어요. 아버지가 몹시 걱정하고있다고 말했더니 그
애는 눈물을 흘리며... 자기는 넘려말라고, 아버지
가 결심한것이 옳았다는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
어요. 자기 걱정은 하지 말고 어서 계획한대로 조
선으로 떠나라고...》

《고맙소, 고맙소!》

움베르토는 안해의 손을 잡고 격동적으로 흔들
어주었다. 이제는 모든것이 제대로 되어가고있
었다.

×

그로부터 이틀후에 움베르토는 기포비행장으
로 나왔다. 동방으로 날으는 비행기의 맨 앞좌석
에 그는 설레는 가슴으로 앉아있었다.

열한번째의 조선방문이었다.

조선속담

살림살이, 절약, 랑비

- 드는줄은 몰라도 나는줄은 안다
- 살림은 오장 같다
- 살림에는 눈이 보배
- 음식도 적어야 맛이 있다
- 가을 식은밥이 봄랑식이다

- 사슴이 어금이 아끼듯 한다
- 싸래기 한말에 칠푼오리라도 오리 없어 못 먹는다
- 닭잡아 쥐을 나그네 소잡아 쥐는다
- 호박씨 까서 한입에 넣는다

산촌의 랑만에서 내려치는 시대의 기상

— 장편소설 《산촌의 랑만》(상, 하)에 대하여—

김 학

...

우리는 자기를 믿듯 승리를 굳게 믿고 산다
고난의 천리를 가면 행복의 만리가 온다

...

(가요 《승리의 길》 중에서)

전대미문의 시련과 고난을 박차고 이 땅에 일어난 세기적인 변동에 깃든 가지가지의 눈물겨운 사연을 궁지높이 돌이켜보며 어머니 우리 당창건 65돐과 조선로동당대표자회를 맞는 올해에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고야말 결사의 각오를 더욱 굳게 해주는 또 하나의 부피두터운 소설이 나와 독자들의 환영을 받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시대의 전진에 앞장서나가며 자주적으로 살려는 인민대중의 투쟁을 선도하는 문학예술이라야 생활의 참다운 교과서로,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에 힘있게 불려일으키는 사상적무기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다.》

시대정신의 최첨단을 지향한 장편소설 《산촌의 랑만》(신용선 작)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 어느 한 산골농장에서 풀판을 대대적으로 조성하고 염소를 비롯한 풀먹는 집짐승기르기와 젓가공사업을 따라세워 뒤떨어진 벽촌을 모든것이 흥하고 잘사는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린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투쟁이야기를 통하여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높은 이상을 내세우고 과학적인 타산, 대담한 작전, 완강한 실천력을 발휘할 때 밝은 사상의 도전을 물리치고 행복을 창조할수 있다는것을 풍만한 생활형상으로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리상이 높아야 변이 난다

주체의 인간학이 자주성에 대한 문제, 자주적인 간에 대한 문제를 내세우고 때 시대의 참다운 인간전형을 창조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주체혁명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는 문학이라고 할 때 그것은 결국 인류의 이상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제기되는 절실하고 의의있는 사회적문제를 제기하고 인간학적으로 옳게 풀어내는것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다.

리상사회는 말그대로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사회, 인간의 이상이 활짝 꽃핀 사회이다. 따라서 리상사회는 숭고하고 아름다운 높은 이상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리상문제는 참으로 중요하다. 그것은 이상이념으로 내세운 목표이고 과제이며 시대와 미래와의 약속이고 진리와 량심앞에 다지는 맹세이기때문이다. 하기에 주체문학은 그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자주적인 간의 높은 이상에 대한 문제를 언제나 제기하고 그에 심원한 해답을 주면서 주체혁명위업수행을 힘있게 고무추동해왔다.

오늘 우리는 바야흐로 어버이수령님 한평생 념원하시던 강성대국의 대문을 눈앞에 바라보는 전환의 새시대에 들어섰다. 우리 문학은 마침내 지금까지 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했던 위대한 리상, 자기 땅에 발붙이고 세계를 굽어보는 최고의 이상을 내세우고 과감히 돌진해나가는 시대의 기상에 대한 문제에 접하게 되었으며 최첨단의 수준에서 형상적해답을 주어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제를 받아안게 되었다. 소설은 여기에 민감했다.

벽촌농장 구봉리, 논이라고는 떼기는 여라문 정보, 나머지밭들은 트랙토르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부림소들도 제대로 밭을 불이기는 힘든 경사급한 떼기밭들이었다. 물론 온 나라가 《고난의 행군》의 시련을 겪고있는 때이긴 하지만 집집의 울타리조차 영성하기 그지없다. 작업반들에서는 사무실과 농업과학기술식선전실도 제대로 꾸리지 않았고 덩실한 축사마다에는 돼지가 고작 몇마리정도밖에 없다. 어디를 가나 생활의 좁과 활력, 의욕과 지향이 부족했다. 눈에 보이는것, 만나는 사람들 거의모두가 두터운 눈속에 파묻혀 잠을 자고 있었다.

리상이 낮았다. 안형길관리부위원장을 비롯하여 농장의 핵심이라고 말할수 있는 작업반장들과 분조장들은 깊고 험한 산골과 척박한 땅에서 지금만큼 살아가고 농사를 짓는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있었다. 안형길은 15년동안 관리위원장을 했지만 기껏해서 마을의 산모들과 탁아소와 유치원 애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떼기는 몇정보밖에 푼것이 없고 농장원들의 현금수입을 높인다고 하면서 박이나 심게 하고 도끼자루, 삽자루나 깎고 도라지를 심으며 초지나 생산하다가 그것도 다 췌버리었다. 그리고는 싸리나무밭을 조성하여 꼴이나 따

불가 하는 생각이 고작이다. 그들의 《리상》이란 기껏 《난알을 한줌이라도 더 수확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것이다.

이런 리상아닌 《리상》으로는 아무것도 이룩할 수 없다는것을 주인공 림경준의 리상이 말해주고 있다. 산간벽촌농장의 관리위원장으로 갓 부임되어 처음으로 참가한 리당위원회에서 경준은 자기의 결심을 이렇게 선포한다.

《…우리 구봉리는 산골짜기에 자리잡고있는 벽촌입니다.

이런 형편에서 농사를 잘 짓는것만으로는 절대로 농장을 추켜세울수 없습니다.

때문에 풀먹는 집짐승 즉 염소와 토끼, 젖소들을 많이 길러야 합니다. 다시말해서 풀과 고기를 바꾸라는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과 풀먹는 집짐승을 많이 기를데 대한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는것, 여기에 바로 농장의 밝은 전망을 열어나갈수 있는 근본열쇠, 〈종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염소를 많이 기르고 거기서 나오는 젖으로 산유, 빠다, 치즈를 만들면 우리 농장은 몇해사이에 허리를 펴수 있습니다.》 젖가공품을 만들어도 최상의 수준으로, 《염소를 5 000마리, 토끼를 4 000마리이상 기르면 우리 농장을 부유한 농장으로 전변시킬수 있습니다.》 농사와 축산비료를 5대 5로 해야 한다.

이것이 새 관리위원장의 리상이었다.

그뿐이 아니다. 농장발전 5개년계획전망도만 보아도 그가 얼마나 높고 아름다운 리상의 소유자인가 하는것을 더 잘 알수 있다. …지금 있는 마을의 집들을 죄다 허물어버리고 양지쪽 산기슭에 새 문화주택들을 줄지어 짓고 리병원과 10일유치원, 탁아소와 문화회관(2 500평방짜리)을 새로 지으며 구봉천과 일청천석축공사를 하고 중소형발전소를 건설하며 자체탄광을 개발하여 농장의 땀감문제를 완전히 풀고 세멘트와 소석회를 생산하며 농업대학분교를 건설하여 청년들을 모두 대학졸업생으로 만든다. …하여 구봉리를 4~5년어간에 온 나라가 다 아는 사회주의선경으로 만들고 경애하는 장군님을 농장에 모신다!…

림경준의 이 높은 리상은 그 어떤 즉흥적인 욕망이나 독선적인 주관과 인연이 없다. 우리 수령님의 념원,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뜻에 삶의 전부를 얹은 충정이, 인간이 운명을 걸고 타산한 과학적리상이며 대변혁의 시대가 요구하는 현실적 리상이다. 림경준은 말한다.

《…우리 구봉리는 풀이 많고 물이 맑으며 잡관목이 또한 무성하여 풀먹는 집짐승을 기르기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있습니다. 염소는 생활력이 강할뿐아니라 증식도 빠르기때문에 수익성이 높습니다. 특히 염소젖은 사람들에게 영양가 높은 여러가지 젖가공품을 제공하여줍니다. …》

정확히 5년후 산간벽촌에는 천지개벽이 일어났다. 구봉땅은 마침내 가장 준엄한 시련의 시기에

최첨단의 리상을 지닌 사람들에 의하여 변이났다.

소설은 이러한 형상을 통하여 리상은 무엇보다 믿는 마음이라는것, 경애하는 장군님을 따라 그이의 뜻을 결사관철하는 길에 반드시 승리가 있고 번영이 온다는 확고부동한 신념이 리상의 나래이라는것 그리고 시대를 개척해나가는 일군들에게는 그 시대에 맞는 최첨단의 리상이 있어야 한다는것을 웅심깊게 보여주고있다. 장편소설 《석개울의 새봄》의 창혁이와 같이, 경희극 《산울림》의 석철이와 같이.

소설이 내세운 문제제기의 시대성과 일반화의 폭이 여기에 있고 만사람을 격동시키는 형상의 감화력도 바로 여기에 있다.

최첨단의 인간성격창조를 지향하여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최첨단을 돌파할데 대한 당의 부름에 호응하여 우리 문학분야에서도 최첨단돌파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고있다.

사실 최첨단의 인간성격이라고 하면 시대의 가장 전형적인 인간성격이라는 말이기도 하다. 그러면 선군시대, 지식경제시대의 인간성격은 어떤 전형성을 가지고있겠는가.

장편소설 《산촌의 랑만》(상, 하)은 이에 대한 일정한 사상미학적해답을 주면서 작품이 제기한 문제를 풀어내고있다.

농장의 경영관리에서 혁신을 일으킬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는 리당위원회에서 림경준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선군시대에 살고있습니다. 조국청사에 가장 위대하고 영웅적인 선군시대는 우리 일군들에게 세기를 두고 꿈과 리상만으로 그려보던 행복의 지상락원을 눈앞의 현실로 펼쳐놓아야 할 역사적인 중임을 맡겨주고있습니다.

성스러운 이 역사적중임을 실현하자면 우리 일군들이 대답하고 통이 크게 작전하고 일판을 벌리는 것과 함께 그 어느때, 그 어느 시기보다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할것을 엄숙하게 요구하고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림경준의 성격이 집약되어있고 선군시대 일군들의 전형적면모가 일반화되어있다.

승고한 리상이 자주적인간에게 가없이 넓은 창공이라면 대담한 작전과 완강한 실천력, 해박한 지식은 그 창공에로 힘있게 나래쳐오르게 하는 날개라고도 말할수 있다. 특히 그것은 최첨단시대를 주도해나가는 오늘의 우리 일군들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것임을 소설은 다양하고 풍부한 생활형상으로 힘있게 보여주고있다.

림경준은 리당위원회의 결정대로 40t이상의 거름을 내지 못한 밭에는 절대로 씨를 뿌리지 못하게 하는 한편 관리위원회 성원들로 《분조》를 못하고 포전을 따로 맡아 관리하면서 농장적인 최고수확을 내기 위해 노력하는가 하면 염소마리수를 확

보하기 위해 농장일꾼들부터 시급한 시일내에 염소 두마리씩 구하라고 호소하고 제먼저 가장짐물을 팔아 세마리의 염소를 구하면서 이 사업을 완강하게 내민다. 젓가공장을 현대적으로 꾸리고 가공설비를 자체로 마련하기도 하고 멀리 생물본원의 연구사를 데려오기 위해 걸음도 많이 걷는다.

허다한 난관이 앞을 막아나섰지만 인공플란을 조성하는 문제는 림경준의 신념과 의지를 시험하는 하나의 운명적인 계기였다. 농경지를 플란으로 전환시키는 심각한 문제에서 관리부위원장을 비롯하여 군협동농장 경영위원회 기사장 등의 완강한 반대에도 부딪치고 상급기관의 료해도 받아야 했지만 림경준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인공플란조성의 필요성을 과학적으로 납득시켜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다. 인공플란에 뿌린 풀씨가 제대로 싹트지 않았다고 하여 갈아엎고 강냉이를 심을데 대해서와 집단사육하는 염소들이 죽어넘어졌다고 하여 농가들에 분산사육시킬데 대한 상급의 지지도 그는 정당한 론거를 가지고 끝까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이 과정은 그에게 있어서 정신육체적으로 매우 견디기 어려운 나날이었다. 오래전부터 깊은 연고 관계를 맺고있는 가까운 사람들과 충돌하기도 해야 했고 지어 혈육들의 오해를 사기도 해야 하였으며 당조직의 원칙적인 충고를 받기도 해야 하였다.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대수술로 당하는 부담도 이겨내야 하였다.

소설은 주인공의 성격창조를 여기에만 국한시키지 않았다. 선군시대, 지식경제시대의 전형적성격을 창조하려면 아직은 여지가 있었다. 오늘의 시대적전형은 인간과 생활에 대한 희생적인 사랑과 헌신의 투철한 소유자, 자기 분야의 지식과 실무에 정통한 높은 실력가여야 한다는것을 놓침없이 보여줌으로써 소설은 형상의 풍격을 한껏 높였다.

군사임무수행중 한다리를 잃은 영예군인처녀를 기꺼이 안해로 맞아들이고 남들이 권고하는 상점이나 유치원이 아니라 축산반에서 일하게 하는 열렬하고 원칙적인 사랑, 자기는 관리위원회 건물의 창고를 정리해서 이사해 살면서도 연구사의 거처지와 실험실은 리에서 제일 크고 멋진것으로 지어준 사심없는 사랑, 《입삐뚫이령감》이라고 누구나 고와하지 않는 김성겸농장원의 실농군적품성과 대바른 성격을 높이 보고 법앞에서까지 지켜주는 희생적인 사랑, 지정심과 안학철, 리순정과 한영호 등 청춘들의 아름다운 결합을 위해 남 모르는 수고를 바쳐가는 혈연적인 사랑, 특히 오래전부터 혈육이상의 깊은 연고관계에 있고 나이도 우이며 상급이지만 안형길 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이나 우진국 군협동농장 경영위원회 기사장의 부정면에 대해서는 주저없이 비판하고 일깨워주는 동지적인 사랑 등은 림경준의 인간적품모를 참으로 높은 시대적정지에서 보여주는 실례들이다. 그러면서도 림경준의 성격형상이 리상화되지 않고

친근하게, 진실하게 안겨오는것은 결사사람들의 옳은 의견을 듣지 않다가 무리로 염소를 죽이는 등 일부 주관주의를 범하고 자신을 타매하는것을 비롯하여 인간으로서의 그의 결점도 정당하게 보여 주었기때문이다.

림경준은 또한 실력가이다. 대학때에는 위병에 걸릴 정도로 식사시간마저 잊고 공부하였는가 하면 생산현장에서 관리사업을 하는 그 바쁜 속에서도 학습을 중단하지 않고 꾸준히 하여 농사물계는 물론 건설물계, 집짐승사육지식, 젓가공분야의 지식이 매우 풍부하고 깊다. 하기에 지난 시기 농장에서 기르던 양이 무리로 죽은 원인에 대해서도 단번에 밝혀내며 젓소독시에 《가마치》를 제거하기 위한 기술적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한 대안을 내놓는다. 생물본원의 숙경연구사까지도 젓가공에서 제기되는 문제가 있으면 주저없이 림경준을 찾아가는 정도이다.

이처럼 시대의 리상이 나래치는 일꾼의 전형을 훌륭히 창조한것은 소설이 거둔 커다란 성과의 하나이다.

소설은 주인공 림경준이뿐아니라 많은 긍정인물들을 시대의 전형답게 참으로 아름답고 매력있게 그렸다. 리당비서 윤민혁, 군당책임비서 김정현은 위대한 장군님식 당사업방법대로 일하기 위하여 아글타글 애쓰는 선군시대 당일꾼의 전형들로서 위대한 변혁을 추동하고 이끌어어나가는 우리 당의 향도적역할에 대한 정당한 인식을 주고있으며 제대군인 안학철과 한영호를 비롯한 청년들의 형상은 최첨단의 리상, 장군님의 숭고한 리상을 혁명적군인정신과 순결한 량심으로 앞장서 실현해나가는 시대의 새로운 력량으로서의 전형들로 일반화되고있다. 또한 림재익, 김성겸의 형상들은 당을 받들어 한생 충정을 고여온 로세대들의 《뿌리》가 있어 새 세대들의 무성하는 리상의 《술》이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특히 녀인들의 형상을 하나같이 매혹적으로 그린것은 시대의 본질을 깊이있게 파악한 작가의 발견적인 시도로서 소설의 격을 한층 돋구는데 은근히 이바지하고있다.

영예군인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권고하는 쉬운 일자리가 아니라 축산반에 나가며 일체 남편의 손을 바람이 없이 집안의 크고작은 일을 군말없이 해나가는 림경준의 안해 옥선, 두 아이의 어머니로서 년로한 시어머니를 모셔야 하고 남편을 돌봐야 할 가정부인의 몸임에도 먼 산간벽촌에 나와 수년세월 젓가공연구에 심신을 다 바쳐가는 연구사 리숙경, 3년을 기한으로 구봉농장에 지원나왔지만 예정날자가 다 지나 다시 읍에 돌아가야 할 처지임에도 그것을 마다하고 같이 일하던 한 청년, 그것도 아버지가 파오를 범하고 법적제재를 받은 총각을 순결한 량심과 진실한 애정으로 열렬히 사랑하는 농장처녀 리순정, 본의아닌 오해로 불신하긴 했지만 총각의 진정을 깨달은 순간에는 자신을 끝없이 타매하며 결혼식

날에는 자기가 기르던 백여마리의 토끼를 《레장》으로 가지고오는 벌방치녀 지정심, 가정을 두고 기약할수 없는 연구의 길을 떠나야 하는 형편에서 순간이나마 주저하고 동요하는 머느리에게 전쟁로병, 오랜 당원으로서 신심을 주고 용기를 주며 떠밀어보내는 숙정연구사의 시어머니...

진정 처녀로부터 가정부인, 로인에 이르기까지 각이한 나이, 각이한 직업, 각이한 처지, 각이한 성격의 녀인들이지만 하나같이 제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을 지닌 이러한 형상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승리적전진에 커다란 활약을 더해준 이 나라 녀인들에 대한 시대의 찬양인 동시에 이 소설이 가지는 또 하나의 감화력이다.

시대가 바라는 최첨단의 인간성격창조는 이렇게 지향된다. 협동화시대에는 《창혁》이가 농촌일군 성격의 앞장에 섰다면 천리마시대에는 《석철》이가 농촌선구자의 앞장이었다고 말할수 있을것이다.

산촌의 정서, 시대의 랑만

소설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를 배경으로 하고있지만 결코 어둡거나 침침하지 않다. 오히려 밝고 랑만적인 색채가 작품전반을 질게 물들이고있다. 이것은 작가가 어렵고 힘겨울지언정 막막하고 절망적일수 없고 부족하고 모자랄지언정 맥을 놓고 주저앉을수 없는 당시의 조건과 환경에 대하여 심오히 파악하고 작품의 생리에 맞게 형상각도를 정확히 잡았다는것을 말해준다.

작가는 무엇보다도 생활의 주인공들인 긍정적인물들의 성격에 랑만성을 질게 부여하고 그들의 체험세계가 드러나는 주요한 생활적체계들에서 어김없이 발현되게 하였다. 그것은 랑만적인 향기가 자연스럽게 깃들수 있는 산등판의 염소방목길이나 구봉천석축공사장, 승냥이무리를 《일망타진》하는 장면이나 온 농장이 달라붙어 진행하는 모내기장면, 여러 쌍의 청춘남녀들의 사랑선과 연고관계인물들의 인정선 등에서는 더 말할것도 없고 《심각》하고 무거운 분위기가 일쭉일것 같은 회의장면과 청춘남녀들의 사랑의 고민장면, 부정인물과의 정면대결장면 등에서까지 의도적으로 밝은 색깔을 조명하여 작품의 전반적인 양상을 랑만성으로 통일시키고있다.

이때의 형상수법은 주로 자연의 리치에 의탁한 비유의 수법이다. 작가는 작은 산골농장을 무대로 한 작품의 형상적특성에 맞게 벽촌의 신선하고 변화무쌍하며 다양하고 조화로우며 오묘하고 매혹적인 자연을 형상에 자유분방하게 끌어들이고있다. 이 자연이 때로는 정황과 결부되기도 하고 때로는 심리와 어울리기도 하며 때로는 《철학》을 드러내기도 하면서 한편 자연의 본성 그대로 정서깊은 랑만적빛깔을 발산하기도 한다.

《창밖은 고요하였다. 합숙마당에 서있는 한 그루의 잣나무가 눈에 안겨왔다. 잣나무아지마

다엔 흰눈이 소담하게 얹혀있었다. 어째선지 림경준은 심술궂은 바람이 불어와 아지마의 눈송이들을 훑날려버릴가봐 은근히 걱정되었다.》(아직은 일부 사람들의 편견과 오해, 심술궂은 바람으로 하여 순정이네의 그지없이 순결한 사랑—눈송이가 깨질가보아 걱정하는 심리.)

《여름도 복거리가 가까와오자 숲은 푸르다못해 꺼렇게 보였다.

정오무렵의 푸른 하늘에서는 흰구름덩이들이 어디론가 흘러가고 길쭉의 나무아지 풀잎사귀들은 꺾으면 즈액이 똑똑 떨어질상싶었다. ...

그들이 짙은 길우에는 더위가 느껴지지 않았다. 더위는 이깔과 소나무, 잣나무들에서 즈을 빨아내여 송진내를 풍기었다.

거기에 각종 풀향기까지 섞이면서 산협의 공기는 워라 형언할수 없으리만치 향긋하고 들크무레하였다.

자연의 조화는 참으로 신묘하고 장엄하였다. 애 어린 나무와 풀줄기와 아지, 잎사귀들을 키우고 살찌우면서 이렇듯 자극성이 강한 향기까지 풍기고있으니 마치 자연의 아름답고 우아한 그리고 감미로운 예술을 감상하는듯 했다.

신묘하고 장엄한 자연의 창조물과 아름답고 우아한 자연의 예술도 그 리치를 따져보면 태양의 빛을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자연의 존재방식에 비유한 인간의 존재방식, 정도자와 각이한 인간들과의 관계에 대하여 심오히 깨우치고있다.)

자연의 리치에 의거하여 다양한 형상수법을 발휘하는 기교는 이 작가의 특기인듯싶다. 부피두터운 소설은 온통 자연으로 이루어져있다. 소설의 시작도 자연이며 마감도 자연이다. 특히 작가는 자연을 묘사함에 있어서 대부분 《밤》의 자연을 그리고있다. 《달》과 《별》과 《어둠》을 가지고 얼마나 자유분방하게 생활을 다루고있는지 언제 《밤》에 이런 신비의 세계가 있었던가싶게 황홀해진다. 고난과 시련을 비상히 랑만적으로 그린 소설의 형상세계가 어둠(밤)을 지극히 아름답게 감수하고있는 작가의 심원한 미학세계에서 출발한것이라고 아니 말할수 없다.

소설은 이밖에도 작품의 양상적특성에 맞게 긍정인물들의 대립관계를 표면화된 충돌로보다 주로 심리적인 극적체험으로 해결하고있는것이라든가, 성구속담을 인물의 개성을 살리고 문체를 구수하고 경쾌하게 하는데 적극 활용한것 등 시사적인 측면들이 적지 않다.

소설은 주제적특성에 맞게 인물들의 랑만적성격을 더욱 개성화하고 시대정서가 탁 트인 생활을 탐구하는데서 일정한 형상적여지를 남겨둔것만은 사실이다. 하지만 최첨단시대의 기상을 일반화하고 인민생활향상의 결정적전환으로 강성대국의 대문을 힘있게 열어제길 대혁신, 대비약의 진군대오에 더 큰 활력을 부여하는데서 소설은 무시할수 없는 기여를 할것이다.

《세 세 일 주》

백 성 근

아마도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치고 세계를 한번 편답하고 싶은 욕망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호기심이 동하여 하고 싶어하는 세계일주를 위해 누군가는 뚝배를, 또 누군가는 발동선을, 또 누군가는 모터씨클을, 또 누군가는 자동차와 비행기를 리용하였다.

하지만 이러저러한 수단을 리용하여 세계일주를 했다는 사람들도 여행비용과 여행수단의 일정한 제한을 받느니라 세계의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다 가보지 못하고 대체로 가장 빨리 횡단할수 있는 로정을 택하여 한바퀴 지구를 돌아보는것으로 그쳤을뿐이다.

그만큼 세계일주는 많은 사람들의 꿈이고 희망이기도 하다.

나역시 세계일주를 희망하는 그 솔한 사람들중의 하나였다.

그러던 내가 《세계일주》의 꿈을 이루게 될줄이야. ...

해빛이 눈부시게 비치는 어느 일요일에 나는 아들애의 손목을 잡고 중앙동물원에 갔었다.

형형색색의 물고기들이 꼬리치는 수족관에 들어서니 마치도 태평양이나 대서양의 깊은 바다물속에 잠긴듯 신비감을 자아냈고 갖가지 새들이 저마끔 지저귀는 소리를 듣노라니 열대나 아열대, 온대의 무성한 수림속에 들어선것처럼 싱그러운 숲의 향취가 느껴졌다.

단봉약대나 쌍봉약대를 보면 사막의 모래바다가련상되고 악어와 이구아나, 이끼돌거부기 등을 보면 강과 못, 늪지대에 온것처럼 축축한감이 들었다.

정말 볼만 했다.

입을 찹— 벌리고 게걸스레 풀을 받아먹는 하마와 큰 귀를 너풀거리며 육중한 몸집을 자랑하는듯 천천히 모래땅을 거니는 코끼리, 훌쩍훌쩍 몸을 날리며 날렵하게 나무타기숨씨를 보이는 흰귀비단털원숭이와 엉기적엉기적 걸어가며 코를 벌름거리리는 갈색곰, 갈기를 부르르 떨며 늘씬하게 기지개를 하는 아프리카사자, 점잖게 누워있어도 맹수다운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운 조선범, 경쾌하게 달리다가 갑자기 《오호호—》하고 힘차게 투레질을 하는 백마...

어느 사이에 마음이 흥그러워진 나는 동심이 되살아나 아들애와 함께 깜짝 놀라기도 하고 껄껄 웃음도 터뜨렸으며 고개를 기우뚱한채 동물들의 행동거지를 유심히 관찰하기도 하였다.

주변풍치와 어울리게 자연미를 부각시킨 동물사들에서 희귀한 동물들을 정신없이 구경하느라 온종일 시간가는줄 몰랐다.

각양각색의 각종 동물들을 다 구경하고 되돌아나오던 나는 아들애를 데리고 수삼나무들이 촘촘히 모여서서 시원한 그늘을 던지는 의자에 앉았다.

다리를 주무르며 보니 아들애가 엉치를 들썩거리며 또 볼게 없는가 해서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어때, 빠근하지? 하긴 아시아, 아프리카랑 유럽과 아메리카에 사는 동물들을 다 보았으니까...》

《아버지, 온 세상의 동물들이 여기에 다 있나?》

《그래, 다 있다.》

《야, 그럼 우린 오늘 세상을 한바퀴 돌아본것이나 같지요?》

《?!》

손벽을 치며 기뻐하는 아들애를 바라보며 나는 쿵—하고 가슴을 치는 충격을 느꼈다.

결국 그렇다.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과 아메리카, 오세안주에 이르기까지 세계의 각이한 나라와 서로 다른 자연환경에 분포되어 사는 희귀한 동물들을 다 보았으니 그 모든곳에 다 가본셈이 아닌가.

사막의 모래불과 태평양의 깊은 바다물속은 물론 온대의 강이나 못가, 습지대뿐아니라 열대의 울창한 수림, 아지랑이 피어오르는 아열대의 무연한 초원까지도 다 가보았다고 할수 있었다.

세계일주라는데 별다른건가. 이거야말로 가장 짧은 시간동안에 지구를 립체적으로 돌아본 《세계일주》가 아니겠는가.

그렇다. 나는 중앙동물원을 돌아보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세계일주》를 하였다.

인민을 위해서라면 천만금을 다 들여서라도 세계의 희귀한것들을 다 안겨주고싶어하시교 보여주고싶어하시는 우리 장군님의 숭고한 뜻과 사랑에 떠받들리워 그이께서 마련해주신 사랑과 은정의

조피장의 람시

전 승 일

조피장의 레사로운 보통날
수십개의 붉고 푸른 신호등들이
제마끔 명멸하는 조작대에
젊은 조작공 온넛을 쏟고있는데
꿈만 같아라
우리 장군님께서 조종실에 들어서신다

꼭 두달전
여기 조피장에 모셨던 장군님을
어찌하랴 그만 교대가 달라
뵈지 못한 아쉬움
한으로 쌓여있던 조작공이었던만
또다시 찾아오실줄 꿈에도 생각 못했어라

사품치던 쇠물이
거대한 불덩어리 강괴가 되어 밀려나오는
희한한 모습앞에서
하냥 미소를 짓고계시던 장군님
젊은 조작공에게 물으신다
—저 강편을 몇미터씩 절단하나?

얼마나 기다렸던가 이 순간을
조작공은 기운차게 말씀드렸네
—옛 장군님 여섯메터씩 자릅니다
순간 드르릉 조종실이 울리도록
호탕히 웃으시는 장군님
—이 친구 전형적인 함북도 사투리아

쇠물의 화광처럼 조작공의 얼굴은 익어가는데
더 많은 조작단추를 다루어내자면
기능이 높아야 하겠다고
여기에도 CNC를 해야 한다고
사랑가득 믿음가득 안겨주신다

꿈같은 시간은 빨리도 흘러
어느덧 30분
천천히 문가로 다가서시던 장군님
다시금 몸을 돌리신다
—함북도내기

또다시 얼굴이 붉어지는 조작공
두번 다시 사투리로 대답올린다면...
저절로 입술은 얼어드는데
장군님 한손들어 흔들어주신다
—잘했어 함북도내기
고맙소!

순간 눈가에 고이는 더운 눈물
아아 고맙다는 인사는 장군님 받으셔야 합니다
깊이깊이 허리굽혀 큰절드리는
젊은 조작공의 심장은 웨쳤어라

—장군님 강철만을 안고 사는
진짜배기 함북도내기
김철내기가 되겠습니다!...

.....

세계를 단숨에 일주할수 있었다.

즐거운 마음에 한껏 들떠 한바퀴 다 돌아볼 때
까지도 몰랐던것을 이제야 비로소 깨닫는것 같다.

정녕 인민을 위하여서는 무엇을 하나 가져다놓
아도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것을, 무엇을 하나 새
로 구상해도 먼 후날의 세계적인 발전방향까지 고
려하여 가장 훌륭한것을, 무엇을 하나 창조해도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고 완벽한것을 마련해놓으시
려는 우리 장군님의 위대한 인민사랑의 세계가 여
기에도 뜨겁게 어려있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대륙과 대양의 동물들이 우
리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을 위하여 모여있는 이
곳에서, 언제나 인민을 위하시는 우리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가슴이 벅차도록 더욱 절감
하게 되는 이곳에서 나는 특이한 《세계일주》를

한 소감을 이렇게 터치고싶다.

여기서 세계속에 있는 조선이 아니라 조선속에
있는 《세계》를 보았다고.

이제 멀지 않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는
그날이 오면 우리들자신의 피땀으로 이룩한 명실
공히 현대적인 창조물들이 이 땅을 가득 채우게
될것이다. 그때에 가서는 세계가 부러워하게 될
그 모든것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그것들이 가득
찬 조국땅 방방곡곡을 환희에 넘쳐 편답하며 우리
인민모두가 다시금 오늘의 나처럼 웨칠것이다.

세계속에 있는 조선이 아니라 조선속에 있는
《세계》를 보았다고.

아, 나에겐 벌써 더 멋진 《세계일주》를 하게
될 그날이 눈에 선히 보인다.

그날의 탄성도 귀전에 들려온다.

《 고 까 짓 거 ! 》

안 명 애

강선제강련합기업소 구내에 들어서면 대형속보판들이 아주 이채롭다.

특색있는 제명들과 선명한 색채와 뚜렷한 구도로 확 안겨오는 인물들...

처녀시절의 즐거움과 랑만, 로동의 희열이 깃들어있는 제강소를 종종 찾아 그때의 그 감정을 되살려보는것이 늘그막에 이른 나의 습벽이기도 하다. 찾으면 꼭 제강소로동계급의 습결이 뛰는듯한 대형속보판부터 훑어보곤 한다.

오늘도 나의 이 로정은 변함이 없었다.

바라보느라니 가운데속보판에 씌여있는 큼직 큼직한 시뻘건 글자의 제명이 나의 시선을 확 끌었다.

《고까짓거 단숨에!》 1강철직장의 로동계급이 강철생산계획을 넘쳐수행하였다는 내용이였다.

제목이 마음에 들었다. 용해공들의 자신만만한 루지와 신심이 슬그머니 내 마음속에 옮겨오는것만 같았다. 나는 흐뭇한 기분으로 1강철직장을 향해 걸었다.

기업소안은 그야말로 대교향곡의 거세찬 선율인양 왕성한 소음들로 들끓고있었다.

강삭직장에서 쇠바줄 감겨지는 권선기의 웅글은 소리, 공작직장에서 부속품 깎아지는 선반기의 사르륵 흥겨운 소리...

불줄기런가 하늘의 룡들이 일제히 기업을 토하듯 압연직장 압연로르에서 줄줄이 뻗어가며 쌓여지는 강재더미들, 차판마다 목직이 강재를 실은 공장구내기관차의 드바쁜 기적소리...

강철직장 용해장에 들어섰을 때의 광경 또한 이에 못지 않게 장관이였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의 끈질긴 《고립》, 《압살》책동을 까부시는 폭음인듯, 번영하는 내 조국의 장쾌한 진격의 나팔소리인듯 1호, 2호, 3호전기로서 삼단같은 불연기를 내뿜으며 쇠물이 끓는 소리, 쇠물이 익는 소리...

아찔한 천정에서 왕고래만 한 파첼더미를 물고 미끄러지듯 굴러오는 기중기, 출강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초고전력전기로서 또다시 천지를 진감하는듯 울리는 전기로의 아크소리, 로동안전원의 연신 불어대는 호각소리...

모든것이 활력에 넘쳐있었다.

철기둥들에 붙어있는 《새로운 천리마속도!》, 《강철생산에서 비약의 폭풍을!》, 《교대당 2차지출장 정상!》 등의 표어들이 펄펄 뛰는 용해공

들의 심장의 피방울처럼 안겨왔다.

나는 담배 한대를 붙여물고 쇠바줄을 손질하고 있는 용해공청년을 만나보았다. 그리고 물었다.

《저, 년간계획수행전망이 어때요?》 내 스스로도 심각함이 느껴지는 질문.

그러자 그는 싱긋 웃었다.

순간 나는 그 싱긋웃음에서 그 어떤 자신만만한 배심을 느끼었다.

대답을 기다리는 나의 진지한 눈빛에 못 견디겠는지 그는 한손을 뺏 멋있게 내리거렸다.

《고까짓거! 아무것도 아니지요. 강선의 본때는 그 곱을 넘겨다봅니다.》

이 청년의 입에서도 대수롭지 않게 《고까짓거!》라는 말이 흘러나왔다.

나는 저절로 머리를 끄덕거렸다.

그렇다. 이들은 강선의 강철전사들이다, 우리 수령님 아시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내세워주시는.

50년대의 그 나날에도 강선의 본때는 6만톤능력의 분괴압연기에서 12만톤의 강재를 생산해내는 기적을 창조하지 않았던가.

수령의 부르심이라면 그 어떤 난관도 시련도 웃으며 배심있게 뚫고나가는 우리 강철로동계급의 투쟁정신의 전통은 오늘날에도 맥맥히 이어져오고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12월의 그날에 지펴주신 강선의 봉화로 심장의 불을 끓이며 장군님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생산실적으로 드세차게 실현해가고있는 이들만이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투쟁과 창조의 걸음을 걸을수 있는것이다.

이들에게서 나는 바로 이 배포유한 자신심을 한결같이 느낄수 있었다.

이는 여기 강선의 로동계급의 배심만이 아니다.

이 땅 어디 가나 느낄수 있는 우리 인민의 배짱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시여 우리는 꼭 그이께서 그어주신 리정표대로 사회주의강성대국의 대문안에 들어설수 있다는 신심, 경애하는 장군님의 구상대로만 하면 무조건 이긴다는 락판이다.

흘러온 세월을 승리만으로 새겨왔듯이 승리자로 살아온 삶을 영원토록 승리자로 빛내이려는 용감한 우리 인민의 기개이며 담력이다.

《고까짓거!》

나도 신심있게 이 말을 입밖에 떠올려보며 기업소구내를 나섰다.

가보에 비친 대조적인 성격형상

— 단편소설 《가보》를 보고 —

최 준 희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작품을 읽어도 인물의 성격에 끌려 읽지 자기자기한 사건적인 이야기나 보자고 읽는것이 아니다.》

사건이 아니라 성격을 위주로 하여 형상을 창조하는것이 우리 문학이다. 소설창작에서도 마땅히 독자들의 흥미를 끌만 한 개성적인 인간성격이 탐구되고 형상되어야 한다. 그러자면 생활에서 작가가 독창적으로 탐구하고 발견한 특색있는 성격이 높은 기교로 형상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단편소설 《가보》 [김혜인 작, 《조선문학》 잡지 주체99(2010)년 1호]는 작가의 개성적인 발견이 있는 인상적인 성격이 창조된것으로 하여 주목을 끄는 작품이라고 말할수 있다.

이 소설을 읽고나서 문득 생각되는것, 다시말하여 성격창조에서 발휘한 작가의 기교에 대하여 론한다면 그것은 대조의 수법을 재치있게 활용한것이라고 할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조라고 할 때 그것은 성격상 차이나는 대상들을 서로 비교하여 보여줌으로써 본질적특성을 부각하여 밝히는 형상수법이다.

이 소설에서는 우선 대조의 수법을 가보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립체적으로 리용하고있다. 바로 이것이 이 소설의 성격창조에서 작가가 보여준 특색있는 기교라고 할수 있다.

작품에는 한 가정에서 가보로 대를 이어 전해내려오는 목도리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4대가 등장하고있다. 꽤 오래되어보이는 《죽신히 오래된》 밤색목도리, 그것은 항일무장투쟁시기 빨찌산녀대원으로부터 《나》의 외증조할아버지, 다시말하여 1세가 받은 귀중한 가보였다.

《아버님,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눈오는 산속에서 왜놈들과 싸우며 고생을 겪지만 이제 해방된 조국땅에서 **김일성**장군님을 모시고 잘살 날이 꼭 옵니다.》

그러면서 그 녀대원은 자기의 목도리를 풀어 할아버지의 목에 둘러주었다.》

빨찌산녀대원이 둘러준 목도리, 그것은 《나》의 외증조할아버지의 마음속에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을 더 깊이 간직하게 하였고 유격대원호 사업에도 더 적극적으로 참가하게 하였으며 자신뿐 아니라 아들도 조국해방의 성전에 떨쳐나서게 하였다. 그 목도리는 외증조할아버지와 외할아

버지로 하여금 해방후에도 자기들이 조국광복회 회원이었다는것을 말하지 않고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서 위대한 수령님을 받들어 한생을 순결하게 살아가게 한 힘있는 정신적원천이였다.

소설에서는 선렬들의 넋이 깃든 사연깊은 목도리—가보에 대한 문제를 펼쳐보이면서 전세대들의 넋을 후세가 어떻게 이어나가야 하는가 하는것을 대조시켜 보여주고있다. 즉 혁명에 충직하였던 반일애국렬사인 1세와 2세에 《나》의 어머니세대인 3세와 《나》의 세대인 4세를 대조시키고있다. 어찌하여 아들인 외삼촌에게 물려졌어야 할 가보—목도리가 딸인 어머니에게 물려지게 되였는가? 여기에 전세대와 대조되는 후세—3세의 대조적인 형상이 있다.

《수십여년전 일이다. 어떤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야 그 할아버지가 조국광복회 회원으로서 많은 일을 해놓았다는걸 알았다.

그 사람은 당장 할아버지의 공로를 인정받자구 해당 기관에 찾아가려고 했단다. 몹시 기뻐하면서 말이다. 그런데 그 사람의 아버지가 엄하게 꾸중했지. 왜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도 그 공로를 인정받자고 하는가? 본인조차 물어두어온것을 손자가 이제 와서 무엇때문에 들춰내려고 하는가? 그 사람은 뼈꼭소리 한마디 못했다. 사실 할아버지의 공로를 빗대구 편안하게 살자고, 그 덕을 봐서 발전하자고 했으니까. 결국 그 할아버지의 공로는 할아버지인생에는 필요없었지만 그 후대의 인생에는 절실히 필요한셈이었지. 그후로 그 사람의 아버지는 그를 못미더워했구 종당에는 집안의 가보도 넘겨주지 않았단다.》

바로 이것이 1, 2세대와 대조된 3세—《나》의 외삼촌이였다. 여기에 얼마나 의미심장한 철학이 숨배여있는가.

이 작품에서 등장인물들사이의 대조는 특히 《나》의 세대인 4세와 1, 2, 3세와의 대조로 하여 더욱 립체적인것으로 되고있다.

외증조할아버지, 외할아버지뿐 아니라 어머니의 공로를 자기 발전의 밑천으로 하려는 《나》의 동생 두호.

《내가 헛키웠구나, 헛키웠어. 푹푹히 알아두거라. 인간이 누구의 공로나 덕에 매달려 살아버릇하면 눈을 편히 뜨고있으면서도 청맹파니가 되고 제 발을 가지고있으면서도 옳바로 걸어나갈수 없는 법이다. 아들은 어머니에게 매달리구 어머니는

남편이나 누구한테 매달리구... 두호야, 조국앞에 손바닥만 한것 한가지라두 땃땃한 자기의것을 가지고 살아라.》

어머니가 키운 염소를 자기 발전의 밑천으로 삼으려는 두호에게 하는 어머니의 준절한 타이름, 그것은 후세는 전세대의 공로를 호강하고 발전할 밑천으로 삼을것이 아니라 그들의 혁명정신과 넋을 이어받아 혁명에 충직해야만 한다는 심오한 진리를 새겨준것이였다.

작가는 인물들사이의 대조를 단순히 1, 2세와 3세, 4세로 설정하지 않았다. 그것은 1, 2세와 3세, 1, 2, 3세와 4세 그리고 3세에서도 어머니와 외삼촌, 4세에서 《나》와 두호 이렇게 서로 립체적으로 대조시켜 성격을 보여줌으로써 특색있는 인물형상을 인상깊이 창조할수 있었다.

이 작품의 성격형상에서 발휘한 작가의 기교는 또한 등장인물들사이의 대조를 생활적으로 타당하게 매우 인상깊게 보여주고있는것이다.

생활적이면서도 특색있는 대조는 특히 《나》와 동생 두호의 성격형상에서 찾아볼수 있다. 《나》와 동생 두호와와 대조는 작품의 첫 장면에서부터 인상깊이 제시되고있다. 암청색하늘에서 떨어지는 별찌를 보고 하는 《나》와 두호의 서로 대조되는 대사, 즉 《나》는 시내에 가서 살았으면 한다는 말과 이담에 커서두 그냥 엄마하구 같이 있구싶다고 하는 두호의 말이 처음부터 인상깊이 대조되고있다.

소설에서는 시종 《나》와 두호를 서로 대조시켜 보여주고있다. 기법이 할아버지가 가꾸는 참외밭 《습격》에 대한 세부, 숙제를 못한 《나》와 숙제를 한 두호가 옷을 서로 바꾸어입고 추궁을 모면하는 장면, 동네아이들에게 《나》의 옷을 입고 으시대는 두호, 군사복무를 마치고 대학을

졸업한 후의 《나》와 돌격대생활을 하는 두호와 의 대조 등 소설은 인상깊으면서도 생활적인 대조를 특색있게 보여줌으로써 성격창조에서 좋은 경험을 시사해주게 되었다.

특히 마감부분에서 외증조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 그리고 어머니에게 베풀어지는 아버지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부각하여 보여줌으로써 오늘의 새 세대들에게 우리 혁명의 1세들이 지녔던 백두의 혁명정신과 순결한 넋을 가풍으로 대를 이어 빛내여나가야 한다는 철의 진리를 가슴깊이 심어주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여러차례에 걸쳐 혁명가의 혁명정신은 결코 저절로 이어지는것이 아니라고 간곡하게 가르쳐주시였습니다. 한생을 조국과 혁명을 위해 성실하게 바치고도 그 어떤 평가나 보수도 바람이 없이 조용히 살다가 세상을 떠난 리영희동지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도 훌륭하지만 가정의 그 가풍을 지켜 한생을 그분들처럼 산 리영희동지는 또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렇다. 이것이 오늘의 선군시대 인간들이며 새 세대들이다.

소설에서는 구태여 더 쓰지 않았지만 우리는 능히 말할수 있다. 어머니가 이어받은 선렬들의 혁명정신이 숨배여있는 그 목도리가 《나》와 두호에게 굳건히 전해질것이다, 이 땅의 수많은 《나》—새 세대들은 그 목도리를 심장속깊이에 새기고 선군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싸워나갈것이다. ...

좋은 경험을 시사해주었다. 보통 단편소설들에서는 대조의 대상이 2명정도 이루어지는것이 보편적인데 이 소설은 등장인물전체를 서로 립체적으로 대조시켜 보여주었다. 이것이 특색을 보여준 작가의 기교가 아니겠는가. ...

스몰렌스크대로로

와쉴리 자하르첸코(이전 쏘련)

리 정 임 역

앞에는 피로 붉게 물들었던
스몰렌스크대로로가 있다
머리우에선 새들이 나래를 펴고
조용히 감돌고있고

이 길을 자유로이 오가는 사람들과
진펄가에 들어찬 사시나무가 없이는
그리고 저 숲과 풀밭
또 벌들과 연갈색머리 처녀가 없이는
나는 조국을 알지 못한다

그 모든것이 고요한데

저 멀리 고동소리가 메아리쳐온다
나에게는 그 고동소리가
전쟁을 몰아오는 우리처럼 생각된다
그러나 로씨야의 황금가을은
지금 고요에 휩싸이고있다

삶과 죽음이며
네 잠시 멈춰서라!
모자를 벗고 그 도로옆에 서보라
영광은 보이지 않지만
영원할 이 길은
세기와 더불어 력력할것이다!

《바통》이 안겨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 단편소설 《바통》을 두고 —

송 원 길

우리 작가들이 년초부터 문제성있는 작품들을 활발히 창작해내고있는 가운데 또 한편의 단편소설이 나와 독자들을 기쁘게 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예술은 마땅히 시대와 함께 전진하여야 하며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을 선도하여야 한다.》

《조선문학》잡지 주제99(2010)년 4호에 발표된 단편소설 《바통》(백명길 작)은 현시기 더욱 절실하게 제기되고있는 세대와 세대간의 참다운 계승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석탄전선을 지켜선 탄부들의 생활을 통하여 비교적 감명깊은 형상적해답을 주고있다.

소설이 구체적인 형상과제로 내세운 문제는 위대한 혁명위업계승앞에서 전, 후세대가 지켜야 할 사명문제 즉 전세대는 후세대에게 무엇을 넘겨주어야 하며 후세대는 전세대에게서 무엇을 넘겨받아야 하는가 하는 《바통》에 관한 문제이다.

사실 전세대와 후세대간의 《바통》에 관한 문제는 혁명의 전도와 운명을 좌우하는 사활적인 문제로서 비로소 오늘날 이 단편소설에 와서 처음 제기되는 형상과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설형상이 비교적 감명깊게 안겨오는것은 지난 시기 많은 작품에서처럼 하나의 초소를 대를 이어 지켜가는 문제를 놓고 부모자식간에 《티각태각》하는 대립관계로 형상을 끌고간것이 아니라 전세대는 후세대앞에 지닌 량심과 의리를 두고, 후세대는 전세대앞에 지닌 자각과 도리를 두고 서로 모대기면서 하나의 숭고한 목적으로 지향해나가는 과정을 아름답게 보여주고있는데 그 주되는 비결이 있다고 볼수 있다.

그럼 보자.

전세대를 대표하는 인물은 도중소탄광관리국 운영과장 장명식이다. 그는 한때 솔골탄광에서 갱장으로 일하면서 많은 일을 해온 손탁이 드센 혁신적인 일꾼이었다. 그리하여 그후 도중소탄광관리국에서 운영과장의 직책을 맡아 일하게 되었다. 하지만 명식은 자기가 떠나왔던 솔골탄광으로 다시 내려갈 결심을 한다.

그러면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제는 익숙해진 도시생활을 버리고 탄가루 날리는 옛 탄전으로 다시 내려가도록 추동하였는가. 그것은 아들앞에, 후세대앞에 지닌 탄부의 량심, 전세대의 시대적책임감이였다.

자기가 어제날 갱장을 하던 솔골탄광의 350갱이 그즈음 생사존망의 기로우에 놓인것이 명식의 심중을 무겁게 한것도 사실이지만 그가 탄광에 내려갈 결심을 결정적으로 품게 한것은 바로 이제 군사복무를 마치고 석탄공업대학에 지망하여 돌아오는 아들앞에 아버지로서만이 아니라 혁명선배로서 떳떳하게 나서려는 대쪽같은 량심, 숭고한 세대적의리심이였다.

떠나온지도 어언 7년세월, 오늘에 와서 350갱이 폐갱되다싶이한 책임을 장명식에게 묻는 사람은 없었다. 또 이제는 예순고개를 바라보는 그가 구태여 탄광에 내려가지 않는다고 탓할 사람도 없었다. 그러나 명식은 이제는 정든 도시와 대학추천을 받고 돌아오는 아들을 도시에서 맞고싶어하는 안해의 눈물어린 애원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탄광으로 떠나간다.

소설은 장명식의 이러한 결단이 단지 후세대앞에서만이 아니라 자기의 선배들앞에서의 량심과 의리에도 뿌리를 둔것이라는것을 정당하게 보여줌으로써 명식의 결단의 사상적기초와 성격의 높이를 더욱 진실하고 숭고하게 확증할수 있었다.

350갱의 처참한 실태에 접했을 때 명식의 눈앞에는 솔골탄광의 첫 개발자이며 탄부로서의 자신의 바른 걸음새를 익혀준 칠순고령의 정학수로인의 등 굽은 모습이 떠올랐고 막장을 위협하며 팽창하게 터진 물주머니를 육탄이 되어 막고 영웅적으로 희생된 옛소대장(국철의 친아버지)의 숭고한 모습이 솟아올랐던것이다.

탄광을 위해, 나라의 석탄증산을 위해 한생을 바치고 한목숨을 바쳐온 혁명선배들앞에서도 떳떳해야 자기 다음세대들에게도 떳떳할수 있다는것을 명식의 성격형상에 체현시킨 여기에 소설이 가지는 철학적심오성과 감화력의 하나가 있다.

다음 후세대를 대표하고있는 인물은 국철이다. 새 세대로서의 국철은 참으로 사랑이 가는 청년이다. 제대될무렵 아버지들의 뒤를 이어 석탄공업부문에서 한생을 살 결심으로 석탄공업대학을 지망했던 국철은 그마저 포기하고 일하면서 배우겠다며 아버지가 내려와 일하는 솔골탄광으로 왔다.

국철의 이 결단 역시 단순한 부자간의 《도리》나 일시적인 흥분이 아니였다.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늘 말씀하셨습니다. 탄부는 우리 장군님께서 아끼시는 나라의 보배들이라고 말입니다. 이젠 아버지의 머리에 흰서리가

철 의 봉 화

권 태 여

출장의 불노을 불노을
밤하늘을 태우며
좌 좌

강물처럼 흘러내리는 쇠물

이리도 눈부시게 어리어옴은
이리도 가슴시원히 안기어옴은
불내 쇠내 몸에 배인 내
쇠물의 뜨거움을 비로소 깨달음인가

불로 끓인 쇠물이어도
불씨 다른 이 쇠물
불길 다른 열풍
우리 힘으로 배심든든히 지켜낸 궁지

쇠물 한방울에도
남의것 티끌만큼도 섞지 않은
아 우리 불 우리 불로 끓여낸
주체의 쇠물 주체철이어

《고난의 행군》 언덕길을 걸으시며
우리 식 제강법의 숨결을 부어주시려
우리 장군님 심중에 품고오신 철의 불씨

아름다운 불노을을 펼쳐주셨나니

남의 불에 익힌 강쇠 녹이 쓸어도
우리 불로 버린 장검 무덤이 있으랴
사대와 보수를 불태워버린
멋스러운 출장의 황홀경이어

장군님 결심이면
만사가 끝개 펴이고
앞길이 펴임
절대의 신념으로 뇌리에 새겨준
주체의 도도한 시위여

천출명장 우리 장군님
신비로운 지략으로 지퍼주신
제철사의 기적을 더 높이 펼치며
총공세의 나래를 활짝 펼치라

아 위대한 장군님을 강철로 받들어갈
결사의 맹세 하늘을 불태우는
야금기지의 불노을 불노을
밝아오는 강성대국성세우에
활활 타오르는 철의 봉화여

내렸는데 내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훌륭한 탄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새 세대 국철이의 사상정신적지향이며 성격의 핵이다. 소설은 이러한 지향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것을 정연한 생활적론리로 놓치지 않고 보여줌으로써 성격형상의 감화력을 높였다.

국철은 어릴 때부터 명식에게서 《세상에서 으뜸가는것이 있다면 그것은 석탄》이라고, 《석탄은 뜨거운 열과 빛으로 사람들에게 만복을 가져다주》기때문에 《우리 장군님께서도 탄부들을 나라의 보배로 내세워주》신다는것을 뼈에 사무치게 들어왔으며 군대로 떠나보내면서 《석탄처럼 자기를 바쳐 조국을 지키》라는 탄부의 당부를 심장깊이 새겨안고 복무의 나날을 탄광과 함께 보내었다. 특히 입대하는 날 침수될뻔 한 갯을 구원하고 희생된 탄부가 자기의 친아버지였다는것을 오랜 탄부 정학수로인에게서 들은 다음부터 국철의 결심은 더욱 굳건한것으로 되었다.

《아버지! 이제는 마음을 놓으십시오. 제가 있지 않습니까?! 탄광의 앞날은 우리 세대가 경애하는 장군님의 리상대로 훌륭히 가꾸어가겠습니다. 이것이 친아버지의 생전의 소원이고 아버지가 저에게 넘겨주려는 바통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이런 숭고한 정신세계의 소유자였기에 국철은

아버지들이 섰던 탄전으로 주저없이 달려오게 되었으며 명식이와 함께 폐갱이 되다싶이했던 350갱을 희생적으로 되살리게 되었던것이다. 바로 이 나날은 아버지세대가 아들세대앞에 몇몇한 탄부의 량심과 영예를 보여준 나날이었고 아들세대가 아버지세대앞에 순결하고 확고한 새 세대 탄부의 맹세와 미래를 확인시킨 나날이었다.

이처럼 소설은 전세대와 후세대가 서로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자기의 숭고한 사명과 의무, 량심과 의리를 찾아 간직하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두갈래의 강줄기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거창한 대하를 이루듯이 지향과 목적이 같은 두 세대의 사상정신적결합으로 혁명의 바통이 굳건히 이어지고있음을 궁지높이 강조하고있다. 이 주체의 소설들에서 흔히 있을법 한 대립과 충돌이 아니라 자각과 리해에 기초한 의지적단합의 관계로 인물관계를 구성하고 내세운 문제를 밝힌데 이 소설의 특징이 있고 평가할만 한 긍정점이 있다.

우리 소설가들은 앞으로 혁명위업의 계승에 관한 문제를 보다 다양하게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다양한 형상수법으로 풀어보임으로써 자랑찬 선군시대의 문단을 더욱 아름답게 장식하며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줄기차게 완성해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을 보다 힘있게 고무추동해야 할것이다.

돌물을 꿰이는 마음

리 기 창

1

사나운 겨울바람은 카바이드로의 굴뚝에서 솟아 오르는 뜨거운 열기를 휘몰아가지고 바다쪽으로 기승스름게 불어치었다.

전기로의 푸른 섬팡이 병긋거리는 카바이드직장 정문을 나선 전로공 박성남은 땀뻘 찬바람을 등진채 불빛이 아물아물 바라보이는 살림집지구를 향해 걷고있었다. 걷는다기보다 가슴속에서 부글 부글 고패치는 분기를 다잡지 못한 타성으로 그저 걸음을 스택스적 옮길뿐이었다.

오늘 있는 일을 생각할수록 그는 억이 막히고 가슴이 찢기듯 쓰러졌다.

그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관철하기 위하여 비날론생산공정을 새롭게 현대화함에 따라 더 질 좋고 더 많은 카바이드를 생산보장하여야 할 때 뜻밖에도 성남이네 3호전기로에 불순물이 돌덩이처럼 융착되었기때문이었다. 이런 경우에는 로를 세우고 융착된 불순물을 꺼내야겠으나 그 누구나 손꼽아 기다리는 비날론숨생산에 이바지하지 못한채 유독 자기네 3호로만 세울수 없노라고 결심한 전로공들은 그 해결방도를 찾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전로공들이 융접봉처럼 쇠장대에 전류를 투입시켜 방전법으로 불순물을 녹여보자는 등 여러가지 방안을 내놓았지만 실패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말았다.

그러자 지난해 화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자진하여 전로공이 된 박성남은 이런 때 한번 남다른 위훈을 세워보리라는 열망을 안고 배전반실의 전류계와 전기로의 전극에서 눈부시게 번쩍이는 방전의 불꽃을 예리하게 살피기 시작하였다.

번거로운 모색의 갈피를 더듬던 그의 뇌리에 불현듯 한가지 착상이 떠올랐다.

(그렇지, 지금보다 로의 전류부하를 더 높인다면 불순물덩이까지 말짱 녹아버리지 않을까?)

성남은 활랑거리는 가슴의 파동에 떠밀리우듯 김영철로장을 찾아 휴계실로 부리나케 달려갔다.

성남이가 휴계실에 들어서니 영철로장은 이마를 손바닥으로 싸편채 그 무슨 돌덩이 같은것을 앞에 놓고 돌미룩처럼 앉아있었다.

성남은 열면 어조로 자기의 착상을 로장한테 자초지종 더놓았다.

그의 말을 들은 영철로장은 담배를 한대 불어물고 창가로 묵묵히 걸어가더니 퍼런 불빛이 번뜩거리는 전기로쪽을 이윽도록 바라보는것이였다.

《어떻습니까? 대답하게 한번 해봅시다.》

성남은 빗장을 지른듯 꼭 다문 로장의 두툼한 입을 지켜보다못해 다급히 물었다.

《육망은 좋은데 그건 모험일세.》

여전히 전기로쪽에서 눈길을 떼지 않은채 로장이 말문을 열었다.

《모험이라구요?!》

성남은 예술영화나 소설에서 나오는 기술신비주의자들이 늘 방패로 삼는 《모험》이라는 말귀가 뜻밖에도 영철로장의 입에서 튀어나오자 사뭇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모험이구말구. 전류부하를 더이상 높였다가 돌물이 로상으로 거품처럼 끓어올라 넘쳐날 땐 어쩔셈인가?》

《저 밥가마에 뚜껑을 덮듯 하면 될텐데요.》

그것은 성남의 머리에 얼핏 떠오른 생각이였다.

《뭐라구?! 전기로가 동무네 집 부뚜막에 건 밥가마인줄 아나? 단번에 수십톤의 돌물을 끓여내는 집채같은 전기로란 말일세. 물론 화학전문학교를 나왔으니 전기로속은 아직 잘 모를테지만 좀더 심사숙고해보게!》

그러자 성남은 난로불을 뒤집어쓴듯 삼시에 얼굴이 화끈 달아오름을 어쩔수 없어 밖으로 황급히 뛰쳐나오고말았던것이다.

지금 퇴근길에 오른 성남의 얼굴은 그때의 생각으로 여전히 푸들거렸다.

(뭐 모험이라구?! 내가 제기한것을 누구보다 적극 지지하리라 믿었던 로장아바이가 어찌편...)

이렇게 입속으로 중얼거리는 성남의 머리에는 자기가 처음으로 배치받아와서 영철로장을 알게 되던 나날이 주마등처럼 떠올랐다.

그날 영철로장은 성남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얼마나 뜨겁게 맞아주었던가.

《우리 카바이드직장이야말로 우리 기업소의 심장이니만치 동무와 같은 혈기왕성한 청년들이 한번 소리치며 일해볼만 한 곳이지.》

《카바이드직장이 우리 기업소의 심장이란 말이지요?》

《그거야 우리 전로공들이 끓여낸 카바이드에서 염화비닐로부터 초산과 비날론숨을 비롯한 수백가지의 화학제품들이 생산되니 사람으로 보면 심장에서 피를 온몸에 보내주는것과 같거던. 뭐니뭐니 해도 심장이 든든해야 하지 않겠나. 그러니 돌물을 펄펄 끓이는건 바로 우리 전로공들의 뜨거운 심장과 마음일세.》

그러면서 현대과학기술을 배운 청년답게 앞으로 전기로를 부단히 갱신하는데서 한번 본때를 보이라고 믿음을 주던 로장이었다.

하기에 성남은 《열공학》, 《전기공학》, 《전기로조작법》을 비롯한 기술서적들을 뒤져보며 몇 밤을 지새웠는지 모른다. 그러나 막상 돌물이 이글이글 끓어번지고 귀청이 멎듯이 웅웅거리며 통트림을 해대는 우람찬 전기로앞에 나설 때면 저도 모르게 심장이 졸아드는듯싶었다.

또한 실지 자기 손으로 전기로를 조작해보니 마음대로 되지 않고 드문히 실수를 하곤 했다.

자기가 첫 후야근교대에 들어갔을 때였다.

무슨 원인인지 모르게 로상태가 매우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분명히 자기 집으로 퇴근했던 영철로장이 어떻게 알았는지 숨이 턱에 닿아 혈색거리며 달려나오더니 로상태를 바로잡았다.

성남은 너무나 신기하게 생각되어 눈을 껌뻍거리다가 마침 분석시료를 뜨러 나온 영철로장의 딸인 윤희에게 넌지시 물어보았다.

《윤희동무네 집에 혹시 로상태를 감시하는 콤퓨터 같은걸 설치한게 아니요?》

그러자 윤희는 버들잎같이 곱게 생긴 입가에 손등을 가져가며 까르르 웃었다.

《우리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도 늘썹 창문을 열어놓고 전기로에서 울려오는 전극소릴 듣거나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색을 가늠해보는걸요. 그래서 사포거리의 새 아파트를 배정받고도 이사가지 않고 직장 가까이에 있는 단층집에서 사는걸요.》

윤희의 말을 듣자 성남은 가슴노리가 몽클해졌다.

그러고보면 영철로장은 전기로를 자기의 숨결과 심장처럼 여기는듯싶었다.

그후 전기로별로 진행되던 사회주의경쟁 마감날 때였다.

시료분석결과 3호로의 카바이드분석치가 다른 로와 갈아질 상태여서 성남은 윤희한테 슬그머니 사정하였다.

《로장인 동무네 아버지의 체면을 봐서라도 시료분석치를 0.1프로만 높여줄수 없겠소? 그러면 우리 로가 1등을 한단 말이요.》

《아이참, 아버지가 알면 어쩔려구요.》

윤희는 눈을 할깃 빨며 앵돌아지었다.

《그래서 아버지 모르게 해달라는거요.》

이때 느닷없이 등뒤에서 영철로장의 엄한 목소리가 울렸다.

《뭐가 어쨌다구?》

그러자 윤희는 땀집한채 분석실로 뛰어가고 성남은 고개를 떨구고 엉겨주춤 서있었다.

《그런 마음으로는 돌물을 제대로 끓이지 못해.》

자기 가슴을 쿡 찌르는듯 한 로장의 말에 아무런 변명도 할수 없었던것이다.

지난날을 더듬어보며 스적스적 걸음을 옮기는 성남의 뇌리에 아리송한 의혹이 갈마들었다.

(그런 로장아버지가 오늘은 무엇때문에 모험이라면서 반대하는것일까? 이제 나이를 먹더니 소심해진것이 아닐까?)

삼거웃처럼 엉켜드는 의혹의 실머리를 풀지 못한채 걸어가던 성남은 누군지 손전지불을 켜들고 마주 오는것을 띠어보았다.

《성남동무, 이제 퇴근하세요?》

귀에 익은 목소리에 눈여겨보니 전지불빛에 까만 목도리를 쓰고 가방을 멘 윤희의 가름한 얼굴이 드러났다.

성남은 그가 오늘 자기와 같은 낮교대를 했는데 이밤에 어째서 또다시 직장으로 나가고있는지 자못 의문스러웠다.

성남은 윤희가 메고있는 묵직한 가방에 눈길을 던지며 넌지시 물었다.

《윤희동문 오늘 낮교대를 했는데 무슨 일때문에 밤교대에 이렇게 또 나가는가요?》

《그런게 아니라 아버지가 오늘 밤 집에 들어오지 못하니 밥을 갖다달라고 연락이 왔길래 나가는 길이에요.》

《아버진 왜 못 들어오신다요?》

《그건 모르겠어요. 현대 성남동문 왜 이렇게 늦어와요?》

윤희의 느닷없는 질문에 손으로 뒤덜미를 어루쓸던 성남은 오늘 영철로장과 벌어진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런 일이 있었됐군요. 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어째서 성남동무의 제안을 반대했는지 전 이해가 돼요. ...》

윤희는 속눈섭을 살뚝이 내려깔며 혼자소리처럼 뇌이였다.

성남은 그 말에 호기심이 부쩍 동했다.

《무슨 이유때문인지 말해줄수 없소?》

성남이가 거둬 재촉하자 윤희는 마치 자기 아버지의 립장을 대변이라도 하듯이 담담한 어조로 말쑥지를 떼는것이였다.

《지난날 우리 아버지가 군사복무를 마치고 제대되어 전로공으로 일하던 때였대요.》

카바이드돌물을 끓이는 시간을 좀더 단축하려고로의 전류부하를 몇단 높이는 시험을 진행하다가 글썽 돌물이 로상으로 부글부글 넘쳐나고 로벽까지 녹기 시작하는 지경에 이르렀대요.》

《뭐라구?!》

성남은 전기에 감전된것처럼 놀라며 몸을 흠뻑 떨었다.

《그렇게 되자 아버지랑 급히 로를 세우고 몸에 화상을 입으면서까지 겨우 로를 다시 살렸으나봐요. ...》

《그런 일이 있었됐구만. …》
성남은 고개를 무겁게 숙이며 입안소리로 중얼거렸다.

《우리 아버지 성남동무가 그런 전철을 다시 밟을가봐 그랬을테니 너무 고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윤희는 고개를 다소곳이 숙이고 기업소쪽으로 총총히 걸어갔다.

성남은 전류부하를 높이자는 자기의 말을 듣자 영철로장이 왜 대답없이 퍼런 불빛이 병긋거리는 전기로를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단호히 거절했는지 심분 이해할수 있었다.

(나는 그런것도 모르고 로장아바이를 소심하다고 억측하지 않았는가.)

성남은 불시에 얼굴이 뜨거워짐을 느끼며 다시 걸음을 옮겼다.

(그런데 로장아바이가 오늘 밤 왜 퇴근하지 않을가? 혹시 로를 세우고 밤교대 전로공들과 같이 불순물덩어리를 꺼내려는데 아닐가. 로보수기일을 단축하자면 그럴수도 있을것이다.)

피줄이 펄떡거리는 이마전으로 땀방울이 땀기를 끼었으며 불어쳤으나 성남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채 한자리에 이윽도록 서있었다. 영철로장이 밤을 지새우며 로벽의 불순물을 꺼내리라는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그냥 집으로 간다는것이 어쩐지 마음 한구석에 걸렸다. 그래그런지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로장아바이가 지난날처럼 또 로가 식기도 전에 불순물덩어리를 꺼낼지도 모른다. 그러니 나도 로장동지의 뒤를 따라 그 전투에 참가해야 한다!)

이렇게 결심한 성남은 입술을 지그시 감쳐물며 오던 길로 되짚어 걸어갔다. 자기가 저녁밥을 먹지 않았다는것마저 가뭇 잊어버린채 걸었다.

헐떡거리며 전기로현장으로 들어서던 성남은 그 자리에 무춤 굳어졌다.

뜻밖에도 로장을 비롯한 전로공들이 톱트림하듯 웅웅거리는 로안을 주시하며 쇠장대로 류출구를 세관게 찢러보고있는것이 아닌가.

그리고보면 아직은 로를 세우지 않은것이였다. 성남은 다행이라싶어 철계단을 밟으며 로상으로 올라갔다.

영철로장이 안전모에 달린 보안경으로 돌물이 부글부글 끓는 로속을 살피며 서있었다.

성남이가 그앞으로 다가서며 어떻게 됐는가고 묻자 영철로장이 고개를 돌렸다.

《아니, 왜 나왔나? 윤희의 말을 듣고 왔나?》

보안경을 안전모우로 걸어올리며 로장이 물었다.

《로를 세우고 불순물을 꺼내는줄로 알고 저도 같이…》

성남은 말끝을 얼버무리었다.

《그래서 나왔단 말이지? 그렇게 쟁개비끓듯 하는 마음으로는 돌물을 제대로 못 끓인다니.》

《쟁개비끓듯 하는 마음이 아니라 저도 식지 않

은 로속에 뛰어들어 불순물을 꺼내기 위한 결사전에 한몫 바칠 결심을 품고 나왔습니다.》

성남은 주먹으로 동가슴을 쿵쿵 두드리며 웨쳤다. 그리고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저으기 잦아든 어조로 중얼거리었다.

《그런거야 모험이라고 욕하지 않을테지요.》

《허참, 녀석두. 이제 로를 세우고 달라붙어 힘내기로 꺼낸다 해도 한달은 걸릴걸세.》

하루빨리 비날론섬유를 생산해서 경애하는 장군님께 보고를 드리자고 온 기업소가 부글부글 끓고있는데 우리만 숨겨진 로속에 들어앉아 함마 질이나 하고있겠나.》

영철로장이 목수건으로 땀기가 내뻗 얼굴을 문다지며 말했다.

《그럼 도대체 어찌자는겁니까? 이것도 저것도 다 안된다니 참.》

성남은 불부는 소리를 질렀다.

영철로장은 쇠메같은 주먹으로 성남의 머리를 가볍게 쥐어박았다.

《녀석두… 전문학교를 나왔다는 녀석이 고작 한다는게 그런 생각이냐? 지금이 그렇게 독심으로 힘내거나 하며 일할 때냐?…》

《?!…》

성남은 얼머름해서 영철로장을 지켜보았다.

영철로장이 주머니에서 주먹만 한 고체덩이를 꺼내서 성남에게 내밀었다.

《이건 뭔데요?》

성남이가 눈여겨보니 영철로장이 휴게실에서 앞에 놓고있던 그 돌덩이였다.

《불순물시료일세. 우리 윤희가 분석해보니 주성분이 〈γ〉 석이라누만. 성남인 화학전문을 나왔으니 여기에 어떤 성분의 첨가제를 화학적으로 반응시키면 불순물이 녹아버리겠는가를 찾을수 있을거라고 생각하네.》

로장의 말을 들으니 성남이의 생각에도 어떤 실마리를 찾아낼듯싶었다.

이때 로밀에서 윤희가 입가에 손바닥을 대고 소리쳤다.

《아버지, 어서 내려와서 식사를 하세요.》

《성남이도 아직 저녁식사를 못했겠는데 같이 먹자구.》

하며 영철로장이 성남의 손목을 잡았다.

《아닙니다. 전 그만…》

성남은 황황히 손을 내저으며 달려갔다. 한시 빨리 첨가제를 찾아보고싶은 열망이 그의 가슴을 불태웠던것이다.

3

그날 밤 집으로 달려온 성남은 학창시절에 화학방정식을 풀어보듯이 화학교과서와 화학사전을 살살이 훑어보던 끝에 《s》성분의 첨가제를 리용하면 불순물을 능히 녹일수 있다는 실마리를 찾아

내고야말았다. 더우기 그런 첨가제는 새로 제조하지 않고도 기업소에 흔한 폐설물로 얼마든지 리용할 수 있을테니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었다.

성남은 얼마나 기쁜지 목청껏 환성을 터치고 싶은 심정이었다. 이번에는 영철로장이 찬성하리라고 생각하니 더욱 기뻐다.

아닌게 아니라 성남이가 찾아낸 것을 영철로장한테 보였을 때 수고가 많았다고 무등 기뻐하면서 기술협의회에서 동의를 받고 지체없이 도입하자는 것이었다. 성남은 이제야 자기도 비날론생산에 이바지할 위훈을 세웠다는 자랑이 가슴가득 차넘치는 듯싶었다.

영철로장이 자기한테 그런 말을 뒀겨주지 않았다면 어쩔 번 했겠는가. 아마 《스》첨가제라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리라.

이윽고 성남은 윤희에게 그 사연을 전하고 싶은 충동에 끌려 분석실로 찾아갔다. 그런데 분석실에서 윤희와 영철로장이 주고받는 말마디를 듣자 그 자리에 굳어졌다.

《아버진 이렇게 〈스〉 첨가제를 찾을 수 있었는데도 무엇때문에 성남동무한테 그런 과업을 주었었어요? 전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성남은 윤희의 뜻밖의 물음에 금시 귀가 멍멍해지는 것 같았다.

(그럼 로장아바이도 《스》첨가제를 찾아냈단 말인가?)

영철로장의 석박한 목소리가 울렸다.

《윤희야, 너두 이번에 비날론생산공정들을 최첨단의 컴퓨터조종체제로 전변시키는데 우리 기업소의 공장대학이나 전문학교를 다닌 젊은 세대들이 많이 참가하였다는걸 잘 알리지.》

앞으로 우리 기업소의 주인은 바로 그들처럼 현대적인 새 기술을 배운 새 세대 젊은이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난 성남이도 그들처럼 앞으로 우리 카바이드로를 새롭게 현대화하는데 한몫 했으면 해서 그러는 거란다.

그러니 너도 성남이를 잘 도와주거라.》

《아버지의 심정을 알겠어요. ...》

성남은 불시에 눈곱이 젖어드는 것을 견잡지 못한채 그 자리를 떠나 휴계실로 휘청휘청 걸어갔다. 이윽고 휴계실에 들어선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아직도 영철로장의 목소리가 귀전에 울리는 듯싶었다.

전기로의 화광이 휴계실 창가에 번뜩번뜩 비쳤다.

얼마후 휴계실로 영철로장이 들어섰다.

《여기 있었구만. 직장장실에서 기술협의회를 하는데 어서 가자구.》

《혼자 가십시오.》

성남은 고개를 짓속인채 저으기 목에 잠긴 소리로 대꾸했다.

일순 영철로장의 꺼먼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게 무슨 소린가? 창안자인 동무가 직접 발표해야지.》

잠시 모두숨을 내뿜던 성남은 도리머리를 저으며 나직하나 힘있게 대꾸하였다.

《그걸 로장아바이가 먼저 찾았다는 사실을 제가 모르는줄 압니까? 그러고도 어찌면...》

성남의 어글어글한 눈에는 물기가 번들거렸다.

《누가 그러던가?!》

눈을 커다랗게 흘뜨며 영철로장이 물었다.

《그건 더 묻지 마십시오!》

성남은 자기가 분석실앞에서 귀동냥해 들었다는 것을 차마 말할 수 없어 이렇게 밀막아버리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성남이—》

등뒤에서 로장의 갈린 목소리가 울렸으나 성남은 들었는지 말았는지 그냥 내쳐 걸어갔다.

그는 로장아바이의 창안을 한시빨리 실현하도록 하기 위해 그길로 전로공들과 함께 손수레를 끌고 가서 《스》첨가제(폐설물)를 실어왔다.

그날 기술협의회에서 《스》첨가제를 시험해 보기로 지지를 받은 영철로장이 로상으로 올라오다가 뜻밖에도 원료투입기에 첨가제를 한가득 담아놓고 자기를 기다리고있는 성남이와 전로공들을 보자 눈을 뜨부럭거렸다.

로장은 물어보지 않아도 성남의 마음을 알수 있었다.

《수고들 했네. 기술협의회에서도 지지를 받았으니 우리 함께 해보자구!》

그러면서 영철로장은 성남이더러 첨가제를 투입하라는 것이었다.

뜨거운 믿음이 어린 로장의 눈길을 받으며 성남이가 투입기단추를 지그시 누르자 첨가제가 돌물이 뿜어오르는 로안으로 와르르 쏟아져내리어 무수한 불꽃이 튀겼다.

이제 로안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날 것인가?

전기로의 웅글은 동음에 한동안 귀를 강구며 가늠해보던 영철로장이 철계단을 광광 울리면서 로 밑으로 달려내려가자 성남이와 전로공들도 그의 뒤를 따랐다.

영철로장이 보안경을 쓰고 로안을 주시해보더니 쇠장대를 거머쥐고 류출구를 찢어대기 시작하였다.

《성남이, 돌물남비들을 대라구!》

영철로장이 소리치자 성남은 황급히 달려가서 남비를 실은 밀차의 가동개폐기를 넣었다. 그러자 남비들이 류출구앞으로 줄지어 밀려왔다. 어느새 알았는지 윤희가 시료조각을 가져갈 쇠집계를 손에 들고 나타났다.

성남은 영철로장한테로 다시 달려가서 쇠장대를 맞들고 류출구를 세관게 찢었다. 쇠장대끝에 무엇인가 찢득찢득한 것이 마쳐오는 듯싶었다.

(혹시 유착물이 녹을 징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자 성남의 가슴은 후두둑 뛴뛰기

시작했다. 영철로장도 그것을 감촉했는지 쇠장대를 더욱 힘있게 찢러대는 것이었다.

아닌게 아니라 얼마후 불순물이 눈석이물처럼 흐물흐물 녹아서 류출구로 쏟아져내리기 시작했다.

첫번째 남비와 두번째 남비까지 불순물이 섞인 돌물이 나왔으나 세번째 남비부터는 순수한 카바이드돌물이 주황색불꽃을 날리며 즐기치게 쏟아지었다.

윤희가 시료분석치를 들고와서 불순물이 조금도 없는 카바이드라고 기쁨에 넘쳐 말했을 때 전로공들은 영철로장과 성남이를 부둥켜안은채 덩실덩실 춤추듯 돌아갔다.

《이제부터 이런 첨가제만 넣으면 로보수를 하지 않으면서도 불순물이 없는 질 좋은 카바이드돌물을 중단없이 뽑게 될걸세!》

영철로장이 남비마다 가득가득 넘치는 주황색돌물을 흐뭇이 바라보며 말하였다.

이윽고 영철로장은 성남이의 어깨우에 손을 얹더니 전로공들을 둘러보며 한마디 덧붙였다.

《내가 오늘 무엇보다 더 기쁘게 생각하는건 우리 전기로의 돌물을 더 많이, 더 질 좋게 끓이려고 자기의 마음을 불태우는 박성남동무와 같은 새 세대 전로공들이 앞으로도 비날론생산의 돌파구를 순간도 막힘없이 열어나가리라 것을 확신했기 때문일세!》

뒤를 이어 전로공들의 박수소리가 울리자 성남은 뜨거운 것이 왈칵 목으로 차오르면서 눈곱이 축축히 젖어뜯을 금할수 없었다.

이때 천정기중기가 남비마다 굳어진 카바이드덩지를 닦아내며 파쇄장쪽으로 우르릉 미끄러져갔다.

영철로장이 거기서 시선을 던지며 혼자소리처럼 말하는 것이었다.

《우리가 끓인 저 돌물에서 비날론섬까지 쏟아지여야 경애하는 장군님께 더 큰 기쁨을 드릴수 있겠는데...》

성남이 역시 비날론섬이 폭포처럼 쏟아질 경사의 그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하는 생각에 불현듯 사로잡혔다.

x

하얀 눈송이가 꽃보라처럼 흩날리는 사포거리로 뺨스들이 경쾌히 달린다.

길가에서 시민들이 뺨스를 향하여 손을 흔들며 축하의 인사를 보내었다.

뺨스에는 주체의 비날론섬유를 폭포처럼 쏟아지게 하는데서 빛나는 위훈을 펼친 2.8비날론련합기업소의 로력영웅들과 모범혁신자들이 타고 있었다.

얼마전 경애하는 장군님의 뜨거운 은정에 의해 카바이드직장에서만도 김영철로장을 비롯한 8명이 로력영웅칭호를 수여받고 수십명의 전로공

들이 국가수훈자의 영예를 지녔던 그들이 오늘은 또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시고 성대히 진행된 함흥시군중대회에 참가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지금도 성남의 가슴속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러러 목청껏 만세의 환호성을 터뜨리던 격정의 파도가 뒤채이는 듯싶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직까지 남다른 위훈을 세워보지 못한 자기로서 영철로장과 같은 로력영웅들과 함께 그런 영광의 자리에 설 줄은 차마 몰랐기 때문이었다.

(지금은 평범한 전로공이지만 앞으로 나도 반드시 놀라운 기술혁신을 해서 영철로장동지처럼 금별의 수훈자가 되리라!)

성남이가 입술을 감쳐몰며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곁에 앉은 영철로장의 중얼거리는 소리가 귀가에 울려왔다.

《돌물이 잘 끓는 모양이군.》

성남은 영철로장이 혹시 술곳이 쪽잡에 든채 꿈소리를 하는가 싶어 얼른 고개를 돌렸다.

그런데 영철로장이 수북한 장미밭에서 빛을 내뿜는듯 한 눈길로 방금전까지 내리던 눈송이대신 밝은 해빛이 비낀 차창밖을 내다보고있지 않는가.

영철로장이 바라보는 차창너머로 눈길을 옮기자 성남의 시야에는 저 멀리 카바이드로굴둑에서 뭉게뭉게 타래쳐오르는 흰 연기가 안겨왔다.

이윽고 영철로장이 입속으로 나직이 뇌이는 소리가 들렸다.

《오늘 함흥시군중대회에 몸소 참가하셨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떠나가시는 길에 우리 카바이드로굴둑에서 솟구쳐오르는 저 흰 연기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으랴. ...》

혼자소리처럼 뇌이는 영철로장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성남의 가슴은 뭉클해졌다.

뺨스에 앉아가는 이 시각에조차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릴 일념으로 카바이드로굴둑의 연기부터 가늠해보는 영철로장이 아닌가.

성남은 영철로장이 바로 그런 마음으로 출퇴근 길에서나 일터에서나 늘 카바이드로굴둑의 연기와 전기로의 동음을 자신의 숨결처럼 감득하며 돌물에 한점의 불순물이라도 섞일세라 그토록 아글타글 애써왔으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다만 남다른 위훈이나 펼쳐보려는 마음부터 앞세우면서 돌물을 끓이지 않았던가. 그러고보면 돌물을 끓이는 마음의 차이는?!...)

성남은 부지중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는듯 한 자책감에 잠기어 다시금 영철로장을 보았다.

성남의 눈길은 영철로장의 가슴팍에서 빛을 뿌리는 로력영웅메달에 쏠리었다.

순간 성남의 눈에는 영철로장의 앞가슴에 빛나는 그 영웅메달이 마치도 한점의 불순물도 없이 은금빛돌물을 펄펄 끓이는 로장의 열화같은 총정의 마음이 비끼여 것처럼 빛을 뿌리는 듯싶었던 것이었다.

《천안》호사건에서 역사를 보며

한영실

《어머니, 저놈들은 왜 우리가 왔다고 한사코 우기나요?》

텔레비전을 보던 아들이 눈이 울통해서 묻는 말이다.

《우리 나라에 이목을 집중시켜놓고 제놈들이 함정에서 벗어나려고 그러지.》

《난 어제 길에서 넘어졌을 때 제 힘으로 일어났는데...》

동에 닿지 않는 말이지만 일곱살난 철부지에도 남한에 밀어붙이는것이 싫다는 소리다.

아들애의 머리를 쓸어주며 보도를 듣는 나의 생각은 깊어졌다.

(그때, 앞뒤로 물리게 된 리명박역도가 이번엔 조작한 《천안》호침몰사건이야말로 사리에 전혀 맞지 않는 완전한 날조극이 아닌가.

궁지에 몰리게 될 때마다 상투적으로 날조극을 만들어내는 그 나쁜 습성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구나.)

사실 6.15공동선언발표 10돐을 맞는 올해 공동사설을 받아안으며 나는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보다 획기적인 발전이 있기를 은근히 기대해왔다.

그런데 천만뜻밖에도 그 무슨 배가 가라앉은것을 놓고 《북 어뢰공격설》을 퍼뜨리며 우리를 절고드는 놈들의 꾀변은 청청 밝은 대낮의 밤뻘꾸기 소리마냥 괴이쩍기 이룰데 없다.

이것이야말로 민족을 등진 민족반역자들의 어처구니없는 망발이 아닐수 없다.

역적패당은 미제를 등에 업고 저들이 짜놓은 《북 어뢰공격설》을 《인정》시키려고 《화약성분》이요, 《합금짜각》이요, 《1번》이요 하는 꾀변을 내돌리며 세계여론을 오도하고 조선반도정세를 전쟁접경으로 몰아가는 반민족적당동을 벌리었다.

나는 오늘의 시점에서 지나온 나날들을 돌이켜 보지 않을수 없다.

우리 조국의 통일사에 격변하는 자취들을 수많은 남겼던 지난 세기의 나날들...

궁지에 몰릴 때마다 남조선괴뢰들이 통치위기를 수습하고 장기집권을 위해 꾸며낸 서툰 희비극 《날조품》은 어제오늘에 시작된것이 아니며 하루이틀에 조작된것은 더욱 아니다.

1987년 《대통령선거》때 있는 남조선력거기실 종사건도 우리와 결부시켜 것처럼 요란스럽게 떠들었지만 그것이 로태우의 《당선》을 위해 꾸며냈다는것이 2006년에 밝혀지고 1992년 《대통령선거》때 《안기부》가 《남한 조선로동당사건》을 조작하여 김영삼의 《당선》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 사실이 드러난것을 비롯하여 미제를 등에

업은 역대 파썬독재자들이 어부지리를 얻으려고 충격사건을 조작하여 우리 공화국을 절고들었다가 코코망신을 당한 실례는 수없이 많다.

지난해에도 괴뢰들은 북의 《미싸일발사준비》니, 《핵시설재가동》이니 하는 《북정보》 공개소동을 요란하게 벌리었다.

그것은 놈들이 당시 로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사망사건을 계기로 폭발하는 반《정부》투쟁기운을 녹잡고 막다른 궁지에서 벗어나려고 또하나의 《북풍》놀음을 조작한것이였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내외정책의 총과산으로 헤어나기 어려운 처지에서 진행되는 《지방자치제》선거를 앞두고 당황해진 놈들은 《천안》호침몰사건을 통하여 정치적 리득을 보려고 《북의 소행》으로 날조한 《조사결과》라는것을 서둘러 발표하는 광대극을 벌린것이다.

불을 즐기고 동족상쟁을 즐기는 역대 민족반역자들의 전철을 또다시 밟으며 《문민》파썬독재시기에 출현하였던 《주적》론을 들고나오면서 《응징》과 《보복》을 떠드는 리명박패당의 망동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5 000여년의 기나긴 세월 한하늘, 한강토에서 대를 잇고 피를 나누며 살아온 우리 겨레가 《주적》이라니 웬말인가.

굳이 《주적》을 논한다면 민족의 통일의를 꺾고 민족의 통일열기에 찬물을 끼얹으며 민족의 통일흐름을 가로막는 남조선집권보수세력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 민족분렬의 책임이 마치 우리에게 있는것처럼 소멸해야 할 《주적》으로 몰아붙이며 동족상쟁에 열을 올리는 역적무리들을 조선민족은 절대로 용서할수 없으며 응당한 철추를 내릴것이다.

오직 통일 하나의 의지로 줄달음쳐온 6.15통일 10년사를 거꾸로 돌려놓고 이 땅에 핵전쟁의 참화를 들쭉우려고 미쳐날뛰는 놈들이 갈길은 불보듯 뻔하다.

동족도 모르고 날뛰는 놈에게 차례질것이란 파멸뿐이다.

놈들이 수치스러운 참패를 거듭할수록 우리 공화국의 위용과 존엄은 더욱 높아지고 함부로 건드릴수 없는 강국으로 더욱 부각된다는것이 지난 세기를 통하여 우리가 새긴 진리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최정예로 다져진 우리의 혁명무력은 정의의 총검을 높이 들었다.

최신무기로 만장악된 우리의 국방력은 공화국의 존엄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려는자에게 관용과 용서를

불을 토하는 상처

— 《한일합병》국치일 100년에 부치다—

문 동 식

100년
세월은 흘렀어도
우리 마음속엔
오늘도 그대로 남아있다
100년전 8월 29일
그날의 상처
그날의 곡성
그날의 아픔이

사람의 살점을 씹어 삼키는
일본 오랑캐
그 잔악한 야수들이
역적들과 마주앉아
국토를 통채로 빼앗는
《합병》을 날조했으니

《조선총독부》
《동조동근》
《내선일체》를 부르짖던
그 악마의 소굴에서
이 땅우에
우박처럼 쏟아져내렸다

조선사람은 일본법률에 복종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죽어야 한다는
무수한 법률과 폭언
제령과 포고들이...

그때부터
2천만 단군의 후손들은
도마에 놓인 물고기 신세
조선은 하나의 감옥
인간 생지옥

생각만 해도
가슴 찢기고 치가 떨려
잊으려 해도
그냥 생생히 살아
오늘도 아픔과 수치를 주는
그날의 치욕의 상처여

상상만 해도 소름끼치는
《한일합병》망국일 상처
천년이 가고 만년이 가도
아물수 없는 이 상처는
세기를 이어 세대를 이어
분노와 저주
멸적의 불을 토하고있거니

미제를 등에 업고 재생한
일본군국주의 호전광들아
어리석게도 이 순간에도
이 땅을 노리며 피를 물고 날뛰는
네놈들의 《대본영》 기동마다에
나는 오늘 이렇게 쪼아박는다
또다시 이 땅에 덤벼드는 그런 때가 오면

오, 그런 때가 오면
백두의 무적강국 우리 조선은
썰리고썰린 아픔과 원한을
활화산처럼 터치고터쳐
최악의 암 일본을 통채로
행성우에서 없애버린다는것을

나는 쪼아박는다 깊이 더 깊이
우리가 당한 그날의 국치일이
일본망국의 영원한 국치일로 되리라는것을
일본반동들은 똑똑히 알라

모를것이다.

력대 파썸독재자들이 그러했듯이 경거망동하는
역적패당은 제 지른 불에 제놈이 타죽고야
말것이다.

나는 《천안》호사건 역시 놈들이 이번에 진행
한 《지방자치제선거》에서의 대참패로만 끝나
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선군으로 백배해지고 굳건해진 우리는 공화국의
존엄을 지키는 력사의 대결전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며 삼천리강토에 통일만세를 부를 그날을 앞

당겨올것이다.

보도는 끝났지만 방송원의 격동에 찬 목소리는
나의 귀전에 아직도 울리고있다.

아들애도 씩씩하게 말한다.

《어머니, 나도 크면 진남형처럼 인민군대가 될
래요. 그래서 저놈들이 다시는 허튼 소릴 못하게
꼭 눌러버릴테예요.》

아들애의 결의이자 우리 천만군민의 한결같은
배짱이고 의지라고 생각하니 마음은 산을 안은듯
든든해진다.

고국은 멀리 있어도



리 평

《연나리가 여기 왜국땅에 남으려 한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어둑컴컴한 찌창박을 내다보며 똑같은 말마디만을 거듭 뇌이던 고구려의 병기장공인 노류지는 무엇에 들레이기라도 한듯 벌떡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러자 연나리의 매혹적인 얼굴이 보름달마냥 우렁이 떠올랐다. 금시 피어난 들꽃송이마냥 밟그레한 얼굴, 침착하면서도 도고한 성품이 그대로 어려있는 처녀의 얼굴을 한동안 그려보던 노류지는 맥없이 채머리를 흔들었다.

(과연 연나리가 그럴수 있단 말인가?)

질은 의혹과 빠져린 원망이 부각부각 피어올랐다.

그런중에도 방금전 자기의 처소를 찾아왔던 고우찌 아스까지방(현재 오사까 동쪽으로부터 나라현의 서쪽지역)의 성주인 단바 야স্য오리가 갱뽀한 얼굴을 호들갑스럽게 휘저으며 또박또박 뇌이던 말마디들이 언거번거 갈마들었다.

《이마끼노 데히도 (새로 온 기술자라는 뜻으로 당시 일본인들이 고구려기술자들을 존대하여 부르던 호칭)! 얼마 안있어 당신들모두가 고국으로 돌아간다니 정녕 서운하구려.

터놓고 말해서 지금 우리 일본사람들은 고구려사람들이 우리 나라의 사물의 진보발달을 추진시킨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라고 입을 모아 칭송하고 있소.

나역시 이번 기회에 고구려야말로 동방의 강국으로서 군력은 더 말할것 없고 기술과 문화의 모든 면에서 천하의 으뜸이라는것을 재삼 실감하였소.》

사람이 다소 경망스럽기는 하나 매양 삽삽한 태를 짓곤 하는 단바는 연송 고구려에 대한 격찬의 말마디를 늘어놓았다.

원체 솔직하고 진실한 성품을 지닌 노류지는 새삼스레 우러오르는 고구려백성의 긍지감과 자부심으로 하여 가슴이 얼벌벌해났다. 대고구려의 위용을 더욱 떨치는 성스러운 위업에 다소나마 기여하기 위해 산설고 물설은 여기 왜국에 와서 2년

세월을 고스란히 바쳐온 자기자신이 스스로도 자랑스러웠다.

이럴 때 실눈을 짓고 앉아 연해 노류지의 기색을 살피던 단바는 급기야 화제를 돌리었다.

《참 듣자니 이마끼노 데히도께서는 이곳에 와있는 고구려 봉공녀(방직기술자) 연나리와 자별한 사이라던데 사실인가요?》

아닌게아니라 노류지는 연나리를 무척 사랑하고 있었다. 허나 여직껏 연나리한테서 정다운 말 한마디 들어보지 못한것으로 하여 노방 속이 알알해있느터였다.

헌데 어떻게 되어 성주가 불시에 연나리의 이름을 꺼들어올리는것인가.

노류지가 미처 대답도 하기 전에 단바는 묘한 미소를 띄우며 말을 이었다.

《내 옛그제 인사차림삼아 봉공녀들의 처소에 들렸었는데 그때 연나리가 조용히 하는 말이 자기는 그사이 여기 고우찌 아스까지방에 흠뻑 정이 들어 정녕 떠나기 싫다나요.

우리가 받아만 준다면 귀국을 단념하고 이곳에 영 눌러 살겠다더군요. ...》

노류지는 대바람 장대한 상체를 단바쪽으로 내밀며 버쩍 목청을 높였다.

《그렇리가 있겠소. 연나리는 나나 마찬가지로 고국으로 돌아갈 날을 손꼽아기다리는 처녀요.》

《헛허, 녀자의 마음 조석변이라는 말을 통히 모르시는 모양이군.

연나리는 자기의 영주의향을 패히 받아준 이 성주에게 체 손으로 직접 비단옷감을 날아 사례까지 하겠다던데...

그것도 꽤일 정오에 우리가 귀국하는 고구려장공인들을 위해 배설하게 될 연회장에서...

그리고 참, 처녀가 또 한마디 은근히 이르기를 이마끼노 데히도께서도 자기와 함께 이곳에 남는다면 다음날로 부부의 인연을 맺겠다고 하더군요.》

《뭘라구요?》

노류지의 가슴속에서 마침내 돌담같은것이 와르르 허물어져내리었다.

허나 단바는 부드러운 표정과 유연한 자세를 조금도 허물지 않은채 자기가 이미 쏟아놓은 말마디위에 기를을 치고 깨를 뿌리었다.

《털어놓고 말해서 이제 당신들이 고국에 간다 한들 누가 큰 상을 주겠소, 중히 써주기를 하겠소?! 명색없는 장공인으로 한생 시골구석에 골박히여 속절없이 썩기가 십상일게요.

그털바에는 여기에 그냥 남아 이 성주나 다름없는 부귀와 권세를 누리면서 흥청거리며 사는게 훨씬 좋을것 같은데... 어떠시오?》

이윽하여 단바는 《행운의 기회는 자주 찾아오는 손님이 아니다》라는 시큰둥한 수작까지 덧붙이고나서 자못 득의양양한 기색으로 호기있게 방을 나섰다.

...노류지는 허리띠를 조여매며 성급한 반달음으로 문앞에 다가갔다. 뇌리속에서 우뢰소리같은것이 꾸룽꾸룽 울었다.

(연나리가 과연 고구려사람의 소중한 녀를 왜국의 부귀와 바꾸어먹을 치욕스러운 공냥을 할수 있단 말인가.

아니 그럴수 없다, 그럴수 없어. ...)

...2년전, 그러니 미천왕이 고구려의 정사를 보던 306년의 어느 여름날이었다.

왜국의 사신으로 고구려에 입국한 단바 야스요리는 고구려의 발달된 문물을 끌고루 참관하던중 미천왕을 알현하는 천행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미천왕앞에서 단바는 자그마한 머리를 연신 조아리며 일생일대의 소망을 루루이 아뢰었다.

《...대왕마마께서도 널리 통촉합시는바와 같이 우리에게는 지금 농업이나 건축 같은것은 더 말할것 없고 군사나 방직면에서도 전혀 발달의 기풍을 찾아볼수 없소이다.

군사들은 말안장이라는 말조차 알지 못하고 갑옷도 단갑(가죽으로 만든 통갑옷)밖에 모르며 병기래야 고작 칼과 활밖에 더는 없는줄 아오이다.

또한 백성들은 누에라는 실벌레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뿐아니라 실낱이, 천짜기, 염색 같은 일 역시 서툴기짝이 없을뿐더러 그 가지수도 고작 세가지이상을 넘지 못하오이다.

황공하기 그지없사오나 양양대해와 같은 도량과 해처럼 밝은 빛으로 억만창생을 목양하시는 대왕마마께서 우리한테도 재능있는 장공인들을 파하시여 미개미천한 우리들을 이끌어주게 하신다면 하해와 같은 성덕과 은총을 영세무궁토록 잊지 못하오리다.》

흰 라적비단으로 만든 화려한 판을 쓰고 오색찬란한 비단옷위에 금단추가 박힌 가죽띠를 두른 미천왕은 차림새도 으리으리하고 풍채도 수려했지만 성품 또한 대강국의 임금답게 대활하고 너그러운지라 즉석에서 단바의 간절한 청탁을 수락

해주었다.

왜국의 가공한 정상을 그냥 내버려두기도 안되었지만 모든 방면에서 락후하기짝이 없는 왜인들에게 장성하는 대고구려의 녀과 기상을 과시하는 것은 국책의 견지에서 놓고보아도 십분 옳은 일이었다.

대왕마마의 지엄한 어명을 몸에 받은 태대사자(외교관계를 맡아보는 중앙관리. 고구려의 정3품의 높은 벼슬등급. 외교관계를 맡아보는 중앙관리는 고추대가가 있었다.)는 그날로 여러 고을 태수들에게 각 부면의 재능있는 장공인들을 골라 왜국에 파견할데 대한 국서를 하달하였다.

하여 석수촌의 쇠부리터 야장간에서 뽑힌 병기장공인 노류지도 문암촌의 수공업장에서 선발된 연나리도 정든 향촌을 떠나 평양성중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그날도 성안의 교련장에서는 물고 뽑은듯이 칠칠한 수천명의 군사들이 장창과 장검을 비껴들고 맹훈련을 하고있었다.

교련장 한구석에 모여서서 군사들의 기세찬 훈련모습을 바라보는 장공인들앞으로 평양태수가 말을 타고 달려왔다.

왜국으로 떠나는 고을의 장공인들과 작별인사를 나누기 위해서였다.

원체 장걸한 체구에 번쩍거리는 패쪽갑옷을 입고 고리자루 긴칼을 비껴찬데다 마면갑(말우에 씌우는 갑옷)까지 씌운 군마를 탄 태수의 모습은 자못 위엄스러웠다.

그의 너부죽한 얼굴과 발흥은 채수염에는 땀자욱이 번들거리고있었다.

《듣거라. 오늘도 우리 군사들은 이 나라의 광대한 령토를 철벽으로 수호하기 위해 저렇게 땀흘려 교련을 하고있노라.

하지만 저 멀리 왜국으로 가게 된 그네들 장공인들의 걸음 역시 고구려의 위명을 더욱 떨치는 길이어니...》

누군가 무엄하게도 태수의 군마앞으로 자박자박 다가갔다.

윤기호르는 까만 머리채, 가볍게 나뭇기는 풀색의 통늪은 치마...

그가 바로 처녀임을 알아본 장공인들은 너무도 도담한 그의 거동에 어안이 막히여 하나같이 입을 딱 벌리었다.

그러거나말거나 태수앞에 이른 처녀는 나부시허리를 꺾어 레를 차리고나서 티없이 맑고 랑랑한 목청으로 말하였다.

《태수님께 아뢰나이다. 소녀는 이제 정든 고향과 고을을 떠나 타국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저 군사들과 함께 내 나라를 떨치는 전장으로 달려나가고싶은 심정 더욱 끓어오르나이다.

소녀의 아버지는 일찌기 경당(고구려의 민간교육기관. 가난한 집 청소년들이 모여 글도 읽고

무술도 익혔다.)에서 도사로 계시었는데 그로 하여 소녀도 무술에 바이 어둡지 않사오니 바라옵건대...》

처녀의 절절한 말마디에 귀를 주고있던 태수는 별안간 담백같은 어깨를 뒤로 젖히며 소리높이 웃어제끼었다.

《헛허허... 그러니 봉공녀가 칼을 차고 전장에 나가겠단 말이렷다, 헛허허...》

가만, 이제보니 네가 바로 지난해 여름 우리 고을 천냥이경기에서 상등을 한 문암촌의 연나리로구나. ...》

정찬 시선으로 연나리의 자태를 유심히 내려다보던 태수는 한결 더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을 이었다.

《너의 손재주도 비상하지만 나라를 생각하는 그 마음 또한 가늠하도다.

하지만 너는 아무 걱정말고 떠나거라.

우리 고을에만도 천하에 막능당한(당할자 없다는 뜻) 군사들이 저렇게 차고넘치는데 어떤 놈이 감히 우리의 지경을 한치라도 범할수 있겠느냐?!...》

너희들 역시 단지 기술을 배워주려 가는것이 아니라 대고구려의 위세를 더욱 떨치는 중대한 성전에 나섰노라.

하오매 모두들 왜국에 가서도 자랑스러운 고구려의 아들딸임을 항시 잊지 말고 이 나라를 빛내는 성업에 심신을 다 바치기를 바라노라. ...》

말을 마친 태수는 작별인사를 올리는 장공인들을 다시금 정겨운 시선으로 훑어보고나서 곁에 서있는 사마(무관직. 지방관의 보좌관)에게 군사들의 출전을 명하였다.

쿵쿵쿵... 북소리가 울리었다.

고취악대의 우렁찬 출전음악이 터지었다.

어느결에 말잔등우에 오른 군사들이 좌당, 좌당 땅을 구르며 구름처럼 성문쪽으로 내달리었다.

군사들의 장쾌한 출전모습을 바라보는 연나리의 발갛한 얼굴에는 그윽한 환희와 그 어떤 비장한 맹세가 진하게 어려있었다.

아까부터 멧적은줄도 모르고 연나리의 자태를 얼없이 바라보던 노류지는 숨소리를 높이며 주춤 주춤 처녀에게 다가섰다.

연나리의 작은 손에 들려있는 칼자루를 덥석 움켜잡았다.

너무도 뜻밖의 일에 깜짝 놀란 연나리는 황급히 한걸음 물러섰으나 걱정예 달아오른 노류지는 그에 아랑곳없이 불덩이같은 말마디를 두서없이 쏟아놓았다.

《랑자, 어쩌면 그대의 심정 이 노류지와 그리도 꼭같소.

우리 고을에 그대와 같은 랑자가 있다는것을 알게 되어 정말 기쁘오.

우리 다같이 오늘의 불타는 마음 고이 간직하고

왜국에 가서도 고구려사람들의 기상과 재기를 유감없이 떨친 다음 승전한 군사들처럼 기세당당히 고국으로 돌아옵시다.》

한쪽 눈에만 쌍까풀이 살짝 진, 그로 하여 어색해보이기는커녕 한층 더 이채로운 매력을 풍기는 처녀의 그윽한 눈에서 새별처럼 유난스러운 정체가 쏟아져나왔다.

연나리는 필경 림름한 체구에 열정적인 성격을 지닌 이 사내의 호소가 추호의 가식도 없는 진심임을 여실히 느낀 모양 동그랗게 도려진 고운 턱을 알릴듯말듯 끄덕거리었다.

노류지의 가슴은 더욱 뜨겁게 끓어번지었다.

...며칠후 물결잔잔한 강릉앞바다우에 꽤 큼직한 목선 한척이 커다란 돛목을 펴리며 떠올랐다.

귀알수염이 더북룩한 목대잡이의 구성진 노래소리가 청청히 울려퍼지는 배우에는 여러명의 병기장공인들과 봉공녀들이 올라있었다.

그 봉공녀들중에 연나리도 섞여있었다. ...

동창이 희뻑하게 밝아오자 노류지는 가슴우에 덮인 알팍한 이불을 활 밀어제끼었다.

착잡한 번뇌에 싸이어 온밤을 꼬박기 새우다싶이 한 까닭에 뒤머리가 지끈지끈 들쭉시고 눈시울이 짙었다.

허나 그는 신체상의 피로움같은것은 거의나 의식하지 못한채 황황히 불타는 눈으로 시종 거미줄이 얽혀드러운 천정구석쪽을 노려보고있었다.

부지중 그의 두툼한 입술새로 나직한 소리가 흘러나왔다.

《어쩌면 연나리가 그럴수 있단 말인가?!》

...어제 밤 단바가 꼬리를 사린 뒤 노류지는 황망히 자기의 처소를 나섰다.

깊은 밤 인적없는 산골길이건만 무서운줄도 힘든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내달리었다.

노류지가 나지막한 산등성이를 넘어 봉공녀들의 처소앞에 이르니 수수땀같이 불그레한 등불이 반짝이는 돌탑주위에서 여러명의 파수군이 우르르 일어서며 제압담 노류지의 앞길을 막았다.

파수군들의 수효가 여느때없이 불어난것이 놀랍기는 하였으나 전혀 두렵지 않았다. 노류지는 천둥같은 고향을 터치었다.

《저리들 비켜! 내가 누군지 모르는가?! 난 연나리에게 말 한마디 묻자고 왔다.》

그러자 왜종자치고는 덜썩하게 키가 큰 파수군 하나가 말이발처럼 흥하게 생긴 이발을 드러내며 히물히물 웃어댔다.

《흐흐, 아씨께서는 오늘 밤 누구도 들이지 말라고 했소이다.

밖에서 우리가 지키기도 하지만 안에서도 결쇠를 단단히 잠고있는데...

일인즉 아씨께서는 지금 우리 고을 성주도노께 선물할 비단옷감을 넣고있으니까요, 흐흐...》

파수군들을 밀어제긴 노류지가 문을 당겨보니
아닌게아니라 육중한 참나무문은 끄떡도 하지
않았다.

얼음덩이같은것이 가슴그들먹이 차오르며 전
신이 썩늘해났다.

뒤머리가 휙 돌아갔다.

(그러니 단바의 말은 죄다 사실이였구나. ...)

방안에서는 천짜는 소리가 찰각찰각 가락맞게
들려왔다.

예전에는 연나리의 응심깊은 마음속의 노래인양
의미있게 들려오던 저 천짜는 소리, 허나 지금에
는 어이하여 이리도 아프고 쓰리게 가슴을 헤
집어파는것인가?!...

노류지는 화들짝 자리를 차고일어나 앉았다.

순간 가슴우에 얹혀있던 묵직한 쇠불이가 둔중
한 소리를 내며 방바닥으로 굴러내리었다.

칼집우에 두송이의 복숭아꽃이 인두화로 새겨진
짤막한 칼이었다.

그것은 두해전 평양성을 떠나던 그날 연나리가
들어잡고있던 칼, 지난해 이맘때 연나리자신이 노
류지에게 선물로 준 칼이었다.

연나리는 칼을 주면서 기억에 남을만 한 정답같
은것은 한마디도 건네지 않았으나 노류지는 그 칼
에서 열렬한 사랑의 노래를 여실히 감득할수 있
었다.

하기에 그는 여직껏 처녀의 선물을 몸에서 떼어
놓은적이 없었다.

밤에도 소중히 가슴에 품고 자리에 눕곤 하였
다. 그럴 때면 한쪽 눈에만 쌍까풀이 진 연나
리의 달덩이같은 얼굴, 말보다는 생동한 표정과
눈으로 자기의 내심을 고요히 드레질해올리곤 하
는 침착하면서도 다기찬 처녀의 미출한 자태가 방
불히 떠오르곤 하였다. 강렬한 생의 의욕, 사랑의
열정이 사품쳐 끓어오르기도 하였다.

헌데 지금에는... 여겨볼수록 풀길 없는 분노와
원망이 꾸역꾸역 치밀어올랐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노류지는 습관적으로 칼
을 집어들었다.

막 걸음을 떼려는 순간 무엇인가 묵직한 물건이
발끝에 걸리었다.

까만 옷칠을 한 자그마한 궤였다.

양증스럽게 생긴 궤우에는 한장의 종이가 놓여
있었다.

어제 저녁 단바가 두고간것을 여직껏 띠여보지
못했는지 아니면 한밤중에 어느 누가 은밀히 밀
어넣은것인지?!

노류지는 서둘러 종이장을 집어들었다.

초서체로 휘갈겨 쓴 짤막한 글줄이 한눈에 확
안겨왔다.

《일찌기 성인인 공자께서도 <선을 사랑하듯
색을 사랑하라> 고 하셨거늘 아릿다운 고향처녀를
홀로 타국에 남겨두고 떠난다면 후날 뉘라서 그

대를 두고 선과 도의를 지킬줄 아는 장부라 하리
오.》

종이장을 아무렇게나 내던진 노류지는 궤뚜껑을
열어제끼었다. 놀랍게도 궤속에는 누런 빛을 번쩍
번쩍 뿌리는 밤알같은 금덩이들이 빼곡이 박혀있
었다.

궤를 받쳐든 손이 후두두 떨리었다.

노류지는 지그시 눈을 감아버리었다.

그런데도 금덩이들의 현란한 광채는 그냥 따갑
게 땅막을 지지었다.

노류지는 자기가 고국으로 돌아가면 한생 퇴락
한 거처에서 거친 음식을 씹으며 살아가야 한
다는것을 모르지 않았다. 사랑하는 처녀를 가슴속
에서 영영 지워버린다는것 역시 생각만 해도 가
슴이 무너져내리었다.

사랑과 재물! 그것은 필경 행복한 생활의 원천
이다.

하지만 그것이 아무리 귀중한것이라 할지라도
고구려사람의 뉘를 팔아서 바꿀수야 없지 않는
가?!

노류지는 악몽에서 깨어나기라도 한듯 사납게
눈을 치뜨며 칼집에서 칼을 뽑아들었다. 예리한
빛발이 퍼져나가는 날카로운 칼날을 노려보는 노
류지의 눈에서 이상한 광채가 번뜩이었다.

(연나리! 네가 정녕 그 매혹적인 눈으로 배신의
달콤함을 읊조린다면 그리고 나에게도 그 배신을
권유한다면...

그때는 결단코 이 칼로 대답하리다.)

노류지를 태운 살쥔 가라말은 궁둥이를 푸들쩍
거리며 고우찌 아스까성곽을 향해 기운차게 네굽
을 놓고있었다.

곧추 뻗은 행길, 길 양옆으로 무연히 펼쳐진 때
죽나무숲.

행길에는 전혀 인적이 없고 숲은 명상에라도 잠
긴듯 고요했다.

음울한 시선을 내리간채 묵묵히 말을 몰아가던
노류지는 불현듯 네모진 턱을 번쩍 들어올리었다.

닥쳐온 엄혹한 현실을 무작정 거부해버리고싶은
충동이 전신을 휘감았다. 숲이 들썩 울리도록 자
기의 아픈 마음, 괴로운 심정을 소리소리 웨치고
싶었다.

(이게 과연 꿈인가, 생시인가.

연나리가 어찌 이 노류지를, 자랑스러운 우리
고국을 그렇게 홀홀히 버릴수 있단 말인가.

내가 혹시 종잡지 못할 혼몽에라도 빠진게 아닐
가?

아니면 단바가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한게 아닐
가?!)

...지난해 이맘때 그때도 초가을의 맑고 푸른
하늘은 지금처럼 높이 떠있었고 산야의 천만초목
들 역시 지금처럼 저마다 마음에 드는 물색고운

가을옷들을 갈아입느라고 소리없이 서두르고있었다.

그날 교외의 드넓은 공지에서는 단바의 발기에 의해 각국 장공인들에게 전습을 받은 일본장공인들의 병기위력경기, 천냥이경기가 진행되었다.

명색은 그러했으나 사실상 그것은 각 나라 장공인들의 경쟁이나 다름바 없었다.

이따금 초군아이들의 폴피리소리만이 한가롭게 울리던 교외의 풀판으로 이 지방관리들과 귀족들, 고구려와 백제, 신라의 장공인들과 멀리 타국에서 온 장공인들, 상인들이 모여들었다.

린근의 백성들과 등짐장사치들까지 영문도 모르고 밀려들어 저들끼리 밀고 닥치는가 하면 수탉처럼 길게 목을 뽑아들고 싸구려를 불러대기도 하였다.

잇꽃물감무늬가 조잡하게 널려있는 판복을 지르르하게 흘려입은 단바가 밤새 푹딱거리며 만든 단우에 난딱 올라서서 좌중의 혼잡을 수습한 뒤 얼마안있어 천냥이경기가 시작되었다.

《고구려》라고 쓴 패말이 박혀있는 공지의 첫 어구에서는 지난 일년동안 연나리에게 기술을 배운 왜국의 봉공녀들이 직기를 마주하고앉아 부지런히 천을 짜고있었다.

쌍상투를 틀어올리고 화초와 송죽을 그린 검은 적삼을 입은 왜국녀자들은 대개가 처녀였으나 개중에는 갓 시집간 새색시인듯 이발에 까만 물감을 먹인 젊은 녀인들도 섞여있었다.

하나 연나리의 세심하고 깐진 지도속에서 기술을 전수받은 왜국봉공녀들은 하나같이 눈썰미 빠르고 손놀림이 켜데다가 모든 동작들이 거침없이 능숙했다.

고구려 아래쪽으로 《신라》, 《백제》라고 쓴 패말들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박혀있는데 거기서도 직기를 마주하고앉은 왜녀들이 열심히 천냥이를 하고있었다.

사처에서 나무직기들이 삐걱거리는 소리, 바디들이 잘각거리는 소리가 연해 울려왔다. 직기들 사이를 소리없이 오가며 왜녀들의 일숨씨를 유심히 살피보는 연나리의 표정은 예이제 다름없이 침착하고 도고했다.

노란 갓신을 신은 자그마한 발을 탄력있게 옮겨놓던 연나리는 한쪽어깨만을 별스럽게 실그러뜨리고있는 어떤 왜녀를 띠여보자 부드러운 손길로 그의 솟아오른 어깨를 살퐁이 눌러주었다.

《긴장할것 없어, 마음을 푹 가라앉히고...》

이어 급급히 바디를 제끼곤 하는 다소 매몰차게 생긴 왜녀결으로 다가선 연나리는 그의 잔등을 다독이며 나직이 타이렀다.

《덤비지 말고 침착하게...》

미구하여 경기의 마감을 알리는 북소리가 잦은 가락으로 울려퍼지었다.

곧 실적평가가 시작되었다.

백제, 신라구역을 거쳐 고구려패말앞에 이른 사람들은 직기마다에 필필이 드리워있는 각색 비단천들을 띄워보자 하나같이 행하니 눈을 흠뻑했다.

견(생사로 짠 비단)이 있는가 하면 과(성글게 짠 비단)가 있는가 하면 룡(뽀실로 무늬를 놓아 짠 비단)도 있었다.

그 모든 비단들은 매 실오리들의 굵기가 고르로 울뿐아니라 전체 천의 발들도 고왔다.

우아하면서도 화려한 무늬로 짠 매 종의 비단들은 또한 개개로 독특한 미를 뚜렷이 드러내고있었다.

신라와 백제, 다른 나라들에서도 비단을 짠다고는 하지만 그들은 모두 이처럼 여러종의 비단을 이렇듯 정교하게 짜는 방직기술을 알지 못했고 따라서 이와 같이 희한한 비단들을 여태 구경조차 한적이 없었다.

《호— 이게 대체 무슨 비단인고?》

고르고 질긴것은 더 말할것 없고 윤기 좋고 문양고운데다 물을 부어도 썰것 같지 않게 탐탁하니 참으로 희한한지고...》

번들거리는 사를 쓸어보고 또 쓸어보던 단바는 부지중 몽치수염이 매달린 뽀족한 턱을 들어올리며 탄성을 터치었다.

그러자 술한 사람들이 받고차기로 떠들어댔다.

《파시 고구려는 천냥이기술에서도 신비한 지경에까지 득달했소그러.》

《암, 이처럼 발단한 고구려의 기술이 있어 우리가 비로소 세상눈을 뜬게 아니겠소.》

《어찌 이 나라뿐이리오. 주변 각국이 다같이 알고모르게 고구려의 턱을 톡톡히 입고있지요.》

잠시 할바를 잊은채 어정쩡해있던 단바는 별안간 한쪽손을 높이 들어올리며 염소칭을 터치었다.

《고구려가 상등이요—》

등등등 북소리가 울리었다.

와아— 탄성이 터지었다.

연나리는 그윽한 미소를 띄운채 자궁심이 함뻑 어린 시선으로 물끓듯 하는 사람들을 둘러보고있었다.

이어 병기위력경기가 진행되었다.

사실 병기경쟁은 해보나마나 뒤끝이 뻔드름한것이였다. 고구려병기의 종류가 가장 많고 제일 위력하다는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였다.

하나 명색이 경기인만큼 식은 식대로 갖추어야 했다.

먼저 신라장공인들의 탁달을 받으며 제작한 무기인 노포(큰 화살을 멀리 쏘는 장치)가 나왔다.

다음은 백번이나 담금질을 하여 만들었다는 백제의 삼지도(세가지의 나무가지처럼 벌어진 칼)가 나왔다.

그 무슨 귀신의 조화를 빌어서 만들었다는 이웃나라의 충차(성벽을 타격하여 마스는 무기)도 등

장하였다.

각국의 병기마다 나름대로 특색이 있고 위력도 있었으나 모두가 이미 보았거나 소문으로 알고있던 것이어서 감흥은 그다지 크지 못했다.

마감차례로 노류지의 각별한 지도와 신칙을 받으며 만든 석포(돌을 멀리 쏘아던지는 대포)가 나왔다.

체통부터 덜썩하게 크고 우람진데다 쇠바퀴까지 달려있는 석포는 첫눈에 벌써 위압감을 자아내는 전혀 처음 보는 무기였다.

멀리 앞쪽 교부랑 삼나무결에 솟아있는 목표물을 쏘아보던 노류지는 나무기둥처럼 실한 팔을 내리그으며 천둥같은 소리를 터치었다.

《포를 터쳐라!》

파르릉 천지가 들썩하는 굉음, 와르르 아름답리 포구에서 쏟아져나가는 돌무더기.

삼나무가 뿌리채 뽑혀 날아나고 그결에 솟아있던 키높은 토성이 형체도 없이 무너져버리었다. 와— 탄성이 터져올랐다.

격찬의 목소리들이 중구난방으로 엇갈리었다.

《고구려의 석포야말로 하늘이 내린 병기로다.》

《과시 고구려의 병기는 천하의 으뜸이요.》

《이를 말인가. 그래서 동방대강국이 아니겠소.》

또다시 고구려의 우승을 알리는 단바의 새된 목청이 탄성의 물결우에 뿌려지었다.

노류지는 가슴버거운 기쁨과 긍지로 하여 뻔절게 피빛이 내빈진 얼굴, 높이 쳐든 두손으로 사람들의 환호에 정열적인 답례를 보내었다.

기척없이 다가온 연나리가 정차게 눈을 빛내이며 노류지의 손에 묵직한 쇠불이를 쥐여주었다.

그것은 너무도 눈에 익은 처녀의 칼이었다.

《노류지, 고구려사람들의 기상과 슬기를 펼친 오늘을 마음에 새기고저 그대에게 드리오니 받아주세요.》

노류지는 일순 펄떡름해났다.

다음순간 기름불처럼 타번지는 행복감으로 하여 온몸이 화끈 달아올랐다.

사랑과 긍지로 빛나는 두 청춘의 시선은 서로의 가열된 마음을 뜨겁게 읽으며 한참이나 엇갈리었다. ...

진장하고 근력좋은 가라말은 여전히 기세차게 달리고있었다.

귀전에서는 연해연방 휘파람소리같은것이 귀술갑게 울리었다.

때로 말주둥이에서 날린 실오리같은 느낌이 확끈하게 달아오른 노류지의 얼굴에 선뜩하게 휘감기곤 하였다.

노류지는 문득 빙그레 웃으며 번뜩 고개를 쳐들었다.

역시 연나리는 대쪽같은 속심지를 간직한 외유

내강한 처녀라는 믿음이 가슴속 밑바닥에서부터 뜨겁게 타올랐다.

이어 채찍을 잡은 손을 힘있게 들어올리던 노류지는 다시금 얼음덩이같은것이 가슴노리에 차갑게 박혀오는 순간 저도 모르게 어깨를 떨구며 이마살을 찡그리었다.

한달전 어느날 밤에 있었던 일이 생생히 밝혀왔다.

...열사를 밝은 달이 고요에 싸인 삼라만상을 온통 희푸른색으로 물들여놓았던 그날 밤.

그날도 연나리의 선물을 정히 안고 자리에 누웠던 노류지는 피창으로 홀러드는 은회색달빛과 더불어 더욱 끓어오르는 사랑의 열광을 바이 주체할 길이 없어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얼마후 노류지는 고구려봉공녀들의 처소를 향해 말을 때려몰았다.

돌탑앞에 이른 노류지는 앞을 막아서는 노닥다리 파수군을 밀어제끼다싶이 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내실안에서 놀란 기색을 띤 연나리가 나오자 제잡담 자기의 애바른 심정을 쏟아놓았다.

《연나리, 그대 없이는 순간도 살수 없는 이 노류지의 마음을 부디 헤아려주소.

나는 그대에게 많은것을 원하지 않소.

다만 한가지 이 노류지와 일생을 같이하겠다는 언약의 말만 해준다면...

나는 더이상...》

견잡을수없이 달아오른 노류지는 저도 모르는 새 연나리의 자그마한 손을 덥석 움켜잡았다.

여느때없이 싸늘한 랭기같은것이 서려도는 눈으로 노류지를 쳐다보던 연나리는 사내의 억센 손아귀에서 자기의 손을 뽑아내며 토박토박 뇌이였다.

《이 무슨 일이에요? 사나이 마음이 그렇게 두갈래, 세갈래로 흩어져가지교야 무슨 큰일을 할수 있겠나요?!》

고국으로 돌아갈 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일의 시작과 끝이 같지 못하다면 남들이 우리 고구려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하겠나요.

어서 돌아가세요.

다시는 여기를 찾아오지 마세요.》

거의 모멸적인 어조로 쏘아박듯 뇌이고난 연나리는 결눈 한번 돌리지 않고 총총히 내실안으로 들어가버리었다.

노류지는 허우룩해나는 가슴을 안고 허청비청 밖으로 나왔다.

앞뜰의 한구석에 이른 노류지는 누가 언제 가져다놓았는지 알수 없는 이상야릇한 부담께우에 털버덕 주저앉았다.

전공중에 두둥실 떠있는 쟁반같은 달은 여전히 밝게 웃고있었다.

그리 멀지 않은 행길쪽에서 앙증스럽게 생긴 단바의 람여가 채잡이들의 손에 건뚫 들리운채 기우

뚱거리며 이쪽으로 다가오고있었다.

무거운 생각에 짓눌려있는 노류지는 물론 단바의 행차와 자기가 깔고앉은 부담케들이 연나리와 어떤 편관을 이루고있는지 알수도 없었고 또 알고 하지도 않았다.

가슴아프기는 하나 백번 정당한 연나리의 충고대로 고구려백성의 존엄과 기상을 떨치는 일에 전념하리라는 결심이 더욱 옹골지게 굳어지자 노류지는 용기있게 자리를 차고 일어섰다. …

노류지는 피가 나도록 아프게 입술귀를 짓물었다.

(그러니까… 그때 벌써 연나리의 마음은 바람안은 갈대처럼 기울거리기 시작한게 분명하다.

바로 그래서 왜국의 재물을 받아들이고 단바를 끌어들이고… 나를 따돌린것이다.

그러고도 모자라 이제와서는 이 땅에 영원히 남겠다는 의향을 공공연히 내돌릴뿐아니라 자기의 배신을 받아준 단바에게 그 무슨 사례까지 하겠다 말이지?!

맙시사, 이야말로 만고에 다시 없을 고구려의 수치가 아닌가?!)

말이 어찌나 빠르게 달음을 놓는지 길녘의 때쪽 나무들은 다가서는 족족 옷초리를 곤두박으며 꼬꾸라지는듯싶었다.

초여름 한철에는 구름처럼 피어난 흰꽃송이들에서 폐부가 시글도록 진한 향기가 물씬물씬 풍겨나오던 때쪽나무들, 허나 잎도 줄기도 암갈색으로 퇴색한 지금에는 타원형의 검칙칙한 열매들을 매단채 먼지내같은 매캐한 냄새를 간간히 날리고있었다. 여름철의 그 화사스럽던 나무라고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추상이 아닌 실체는 있는 그대로 믿고 인식하는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지 않는가?!…

(그렇다. 확실한 배신이 있다면 뚜렷한 징계가 따를뿐이로다.)

노류지는 힘차게 채찍을 휘두르며 《쩌어!》 정도이상의 큰소리를 내질렀다.

고우찌 아스까관청의 청기와지붕이 초가울의 다양한 해빛을 받아 청룡의 비늘처럼 번쩍거리며 눈앞으로 바투 다가왔다.

퍼그나 육중해보이는 관청의 고라이몽(고구려식의 문)은 활짝 열려있었다.

노류지가 문앞으로 다가서자 마늘쪽같은 얼굴에 지어먹은 반색을 띤 단바가 금시 얼싸안기라도 할것처럼 두팔을 벌리고 쏘아져나왔다.

《이마끼노 데히도! 오느라고 수고하셨소. 어서 안으로 들시지요.》

이때에야 노류지는 단바의 설핏한 눈섭우에 깊숙이 패인 험상한 상처를 똑똑히 가려보았다.

아직까지도 통일적인 국가를 형성하지 못한 여가 왜국에서는 지금 한창 분산할거해있는 소국들

사이에 쉬임없이 저돌적인 쟁탈전을 벌리고있는데 하고보면 단바도 근일에 어떤 싸움판에 나섰다가 적군의 칼끝에 찔린것이 분명했다. 상처타인지 아니면 어제 저녁의 불미스러운 일때문인지 옛적에는 그런대로 레절바르고 삼삼하게 느껴지던 단바가 전에없이 음흉하고 조폭해보이였다.

단바의 인사에 적당히 답례를 한 노류지는 치밀어오르는 조급증과 흥분을 애써 누르며 앞마당쪽으로 걸음을 옮기였다.

몇자욱 따라서던 단바는 문득 걸음을 멈추더니 노류지의 팔소매를 가볍게 당기였다.

《가만, 연회장에 립석하기 전에 피차 견해를 명백히 하는게 좋을것 같은데…

어떠시오? 이제는 이마끼노 데히도께서만 용단을 내리면 문제는 깨끗하게 아귀가 지어지는셈이요.》

노류지는 품속에서 금궤를 꺼내어 단바에게 내주며 차거운 랭소를 뿌리였다.

《이 사람은 고구려의 개, 돼지로 살지언정 타국의 재부나 벼슬은 꿈에도 원하지 않소.

나는 세상이 우러러 쳐다보는 고구려의 백성이란 말이요.》

《아, 아니?!…》

단바는 가느다란 눈을 샅뜨며 비명같은 소리를 흘리였다.

단바의 음흉수를 일격에 털어버린 노류지는 현결찬 걸음새로 관청 앞마당에 들어섰다.

너렁청한 앞마당에는 벌써 술한 사람들이 울긋불긋하게 차려놓은 기다란 술상을 마주하고앉아 웅성대고있었다.

연회장을 굳이 앞마당으로 정한것은 관청안에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들어앉을 방도 없겠지만 그 보다는 앞마당주변에 박혀있는 유자와 삼나무들, 아직도 꽃과 향기가 숙지지 않은 어해황, 불두백(국화꽃)들, 마당 한옆에 고여있는 거울같은 연못을 둘러보며 자못 운치있게 술을 마실 궁냥에서 그렇게 한것 같았다.

노류지는 들어서논참 연회장 제일 웃쪽에 연두색비단옷을 차려입고 기품있게 앉아있는 연나리의 모습을 찾아내였다. 숨이 가빠올랐다.

한껏 좋아들었던 심장이 후둑후둑 뛴뛰였다.

한달음에 달려가 사랑하는 처녀를 빼가 으스스하도록 그러안고싶은 강렬한 충동이 솟구쳐오르기도 하였다.

이때 대청마루앞에 놓인 주칠교자상쪽에서 뒤늦게야 연회장에 들어선 단바의 아츠러운 염소청이 터져올랐다.

쵸전과는 판다르게 어깨가 처져내린 단바는 시들한 어조로 일본국의 개화발달을 위해 온갖 수고를 다하고 고국으로 떠나게 되는 고구려장공인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노라는 격식바른 인사수작을 늘어놓고나서 연회의 개최를 선언했다.

그제서야 소스라치는 놀라움속에서 땀 흘린 현실감을 의식한 노류지는 황황히 빈자리를 찾아 앉았다.

록색빛갈의 제백술이 남실거리는 커다란 술잔을 단숨에 비워버리었다.

불덩이를 통으로 삼킨듯 단박에 속이 따거워나면서 정수리가 훌훌 달아올랐다.

배로 불어난 심장은 무자비한 징벌의 노래를 울조리며 세차게 발을 굴러댔다.

여기저기서 술잔들이 언거번거로 오르내리자 그런대로 외교적인 정숙이 흐르던 앞마당안은 소란해지었다.

취흥에 젖은 질박한 웃음소리, 떠들어대는 소리는 갈수록 높아졌다.

잠시후 연회장의 상좌에서 술기운이 올라 코끝이 반들반들해진 단바가 교수염을 꼬아붙이며 일어섰다.

독사의 눈동자같은것이 매섭게 파들거리는 세모진 눈으로 좌중을 둘러보던 단바는 작대기처럼 여윈 팔을 신경질적으로 뻗 내리그었다.

《조용들 하오. 에- 오늘의 이 뜻깊은 좌석에서 고구려의 봉공녀 연나리아씨께서 귀중한 말씀 한마디를 좌중 여러분께 여쭙겠다고 하오.

더불어 우리 관리들의 각근한 대접에 자기가 손수 낚은 비단옷감으로 사례를 하겠다고 하오.

이 어찌 의미심장하지 않으리오-》

노류지의 가슴속에서 출전을 알리는 북소리같은것이 쿵쿵 울리었다. 무섭게 뻗은 눈으로 연나리를 노려보았다.

헌데 이 어찌된 일인지?! 모든것이 선명하게 가려지지 않았다.

침착한 거동으로 자리에서 일어서는 연나리, 비단옷감을 정히 안아들고 상좌쪽으로 다가서는 연나리가 둘로 혹은 셋으로 보이는가 하면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전부 커다란 물레에 태우기라도 한듯 빙글빙글 돌아가기도 하였다.

마침내 이를 앗아들고 자리에서 일어선 노류지는 지척지척 연나리쪽으로 다가섰다.

굴대장신처럼 거무투레하게 생긴 왜군사 두세명이 노류지의 앞을 막아서는 순간 연나리의 짹짹한 목소리가 퇴성처럼 노류지의 정수리를 들때리었다.

《노류지, 그대의 칼을 이리 주세요.》

뜻밖의 소리에 깜짝 놀란 노류지는 무춤 굳어졌다.

왜군사들도 돌상처럼 우뚝우뚝 얼어붙었다.

그러는새 미끄러지듯 다가온 연나리는 노류지가 미처 어쩔 사이도 없이 그의 허리춤에서 시퍼런 칼을 뽑아내었다.

노류지는 더 말할것 없고 좌중의 사람들모두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광경앞에서 눈이 휘둥그레졌다.

주칠교자상옆에 놓인 서탁앞으로 다가선 연나리

는 자기의 엄지손가락에 날카로운 칼날을 가져다 대더니 힘주어 내리그었다.

주르르- 빨간 피방울이 굴러내리었다.

단바의 량옆에 앉아 고혹적인 웃음을 날리던 하나같이 해반주그레하게 생긴 게이샤(기생)들이 아악- 경악을 터치었다.

허나 연나리는 좌중의 잡다한 소음에는 아랑곳없이 푸른 비단필우에 피흐르는 손가락을 힘있게 그어내려갔다.

글쓰기를 마친 연나리는 곁에 서있는 왜국봉공녀들쪽으로 돌아서더니 군령이라도 내리듯 담차게 뇌이었다.

《이 비단천을 기대에 매달아 세워주어!》

옷 한감은 실히 될 비단천을 받쳐든 왜녀들이 종종걸음으로 물러난 뒤 얼마 안있어 대들계단곁에 세길도 넘을 기다란 기발대가 일어섰다.

대끝에 매달린 푸른 비단필이 초가을 바람을 안고 장하게 퍼덕거리었다.

비단필우에 피로 새긴 글발이 번쩍번쩍 빛을 뿌리었다.

모두의 시선이 중천에서 나뭇기는 비단천으로 쏠리었다.

한껏 고개를 젖힌채 비단필우에 박혀있는 글발들을 뜯어보던 노류지는 헉- 숨을 들이그었다.

쇠뭉치에 얻어맞기라도 한듯 머리가 잉그르르 돌아갔다. 심장이 푹푹푹 굳어떨을 하였다.

《충심고구려!》

(이 대체 어찌된 일인가?! 저 글발인즉 언제 어디서나 일구월십으로 내 나라 고구려를 받들어 살겠다는 뜻이 아닌가?!)

그러니 내가... 아니, 단바가 나를 속였던 말인가?!...)

볼도가니처럼 달아오른 뇌리속에서 의혹의 구름이 뭉게져올랐다.

허나 열정적인 사내인 동시에 총명하고 재기있는 장공인인 노류지는 그 의혹을 해독하는데 그다지 많은 품을 기울일것도 없었다.

...단바는 고구려장공인들이 귀국할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자 시시로 속이 졸아들었다.

고구려장공인들을 영원히 이 땅에 눌러앉힘으로써 대강국의 존엄과 위상을 한조각이라도 허물어 내리고싶었다.

고구려장공인들의 총명을 빌어 미개한 저들의 처지를 더욱 개선향상시키고싶었다.

그와 함께 주변 소국의 적수들에게 존엄높은 고구려인들까지 짓눌러놓는 자기의 만만치 않은 솜씨를 과시하여 그들모두가 자기의 사타구니밑으로 벌레처럼 엉금엉금 기여들게 하고싶었다.

하여 그는 앞뒤로 드달아다니며 생창같은 거짓말을 늘어놓기도 하고 값비싼 재물을 퍼붓기도 하였다.

특히 속대무른 여자들은 재물과 부귀앞에 쉬이

무릎을 꿇을것이라고 타산하고 연나리를 위시한 봉공녀들에게 찰거마리처럼 집요하게 달라붙었다.

허나 웅심깊은 속내를 좀처럼 드러내려 하지 않는 연나리는 좀상스러운 왜인들과 길게 론담을 펴는것조차 수치스러워 줄곧 오늘날에 자기의 결심을 알게 될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아니, 오늘을 기회로 왜인들의 간특하고 비렬한 음모를 산산히 들부시고 고구려백성의 존엄과 기상을 다시한번 유감없이 과시하리라 결심하였다. …

(아아, 이 아니 장할손가. 이 아니 기쁠손가?!…)

노류지는 미동도 없이 굳어진채 승전을 알리는 기뻐마냥 세차게 퍼덕이는 비단필을 여념없이 바라보고있었다.

연나리역시 미출하면서도 싱싱한 몸을 곧추 세운채 초가울의 상공으로 높이높이 나래쳐오르는 붉은 글발, 자기 심장의 변함없는 노래를 읽고있었다.

노류지는 연나리쪽으로 고개를 돌리었다.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연나리의 모습이 안겨들자 심장은 뛴어번지였다.

아, 연나리!

고구려의 장한 딸, 나의 귀중한 사랑이여! 그대의 심장은 항시 동방대강국의 처녀라는 드높은 긍지와 존엄으로 차넘쳤기에 비상한 정열과 재능으로 이 땅의 만사함을 놀라게 하지 않았던가.

왜인들의 끈끈한 유혹과 재물을 티끌처럼 차던지고 고구려백성의 기상을 다시금 천하에 날린것이 아닌가?!…

노류지는 순간이나마 연나리를 오해하였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그리고 죄스러웠다.

하지만 몸서리치는 오해를 헤치고 더 큰 리해를 얻게 된것은 실로 인생의 거대한 행복이 아닐수 없었다.

《어허… 생업에 종사하는 일개 필부, 평범한 아녀자들까지 저리도 자부심이 그득하고 기상이 도도하니 고구려의 위명이 어찌 천지간에 가득차지 않으리오.》

뚜드려잡은 부엉이처럼 불췌없는 모양을 하고있었던 단바는 부지중 찬사인지 탄식인지 알수 없는 말마디를 흘려놓았다.

단바는 여직껏 수많은 계집들을 제 마음 내키는 대로 짓주물러왔었다.

제아무리 도고하고 지조있는 계집이라 할지라도 권세와 재물을 휘두르면 즉시 명주고름처럼 나긋나긋해져 제쪽에서 먼저 땡땡이닝쿨처럼 휘감겨들곤 하지 않았던가.

헌데 고구려처녀는 오늘 단바에게 어떤 《선물》을 안겨주었는가?!

실로 단바는 자기의 엄청난 착오, 비렬한 음모로 하여 너무도 큰 수치와 패배를 벌어들인셈이었다.

이윽하여 단바는 푸주칸에 들어가는 소마냥 맥

빠진 걸음새로 대돌계단을 올라 내실로 들어가버리었다.

얼마후 노류지와 연나리는 인적없는 때쭈나무숲속에서 다시 만났다.

연나리는 아직도 좀전의 흥분이 채 식지 않은 발갛한 얼굴로 발뼉발뼉 노류지앞으로 다가왔다.

《노류지, 단바는 내게 와서도 그대가 이 땅에 남기를 소원한다고, 그러니 연나리도 이곳에 눌러사는것이 좋을것이라고 하더군요.

허나 난 애초에 단바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왜인들의 교악한 심보와 너절한 음모를 들부시고 오늘 사람들앞에서 고구려사람들의 기상을 보여주리라 생각했어요.》

노류지는 웅솟음치는 사랑의 열광에 떠밀리워 아직도 피자옥이 꽃송이처럼 널려있는 처녀의 작은 손을 덥석 움켜잡았다.

《오늘에 이르러 나는 그대가 어떤 녀를 어떻게 안고사는지 확연히 깨달았소.

연나리, 더이상 미루지 말고 대답해주오? 이번날 내가 원했던 그 말 한마디를…》

노류지에게 자기의 손을 공손히 내맡기고 그린듯이 서있는 연나리의 눈에서는 필경 참된 녀자의 일생에 한번이상은 있을수 없는 사연깊은 눈물이 고요히 흘러내리고있었다.

《노류지, 어서 빨리 고국으로 가고싶어요. 고국에서는 우리의 그 모든 소망이 꽃처럼 피어날거예요.》

군세계 손을 마주잡은 두 청춘의 마음속으로는 정다운 고국의 모습이 그림처럼 선명하게 안겨왔다.

…락엽들이 소리없이 흘날리는 동구밖.

여겨듣는이 없건만 제 혼자 지줄지줄 씁없이 노래를 부르며 앞뜰을 에돌아 흘러가는 파란 시내물.

채로 걸러낸듯 맑으면서도 술처럼 취하게 하는 초가울의 신선한 대기.

가을의 풍요속에서 땀흘려 일손을 다그치고있는 못 잇을 어머니와 고향사람들…

기치창점을 번쩍이며 입성하는 고구려군사들의 장엄한 대오도 안겨왔다.

고취악대의 군악소리도 쟁쟁히 메아리쳐왔다. …

고국은 정녕 아득히 먼곳에 있어도 노류지와 연나리의 심장속에 언제나 생동하게 살아숨쉬며 뜨겁게 심혼을 불태워주고있었다.

…이때부터 왜국에서는 고마니시끼(고구려비단)이라는 천이 대량 생산되기 시작하였고 오늘날 일본말사전에까지 뚜렷이 올라있는 《고마니시끼》라는 말이 새로 생겨났다.

그 말속에는 필경 고구려사람들의 기술지도와 전습에 의해 비로소 생겨난 비단이라는 뜻과 함께 고구려의 평범한 한 봉공녀의 순결하고 강개한 애국의 마음에 대한 찬사의 의미도 력력히 스며여있다.

사 화 에 대 한 리 해

사화는 역사적사실과 사건을 반영하는 실화문학으로서 우리 인민들의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들의 애국심을 발양시키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오늘 우리나라에서 사화는 그 주제와 형태, 형상방법에서 새로운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력사실화문학으로서의 자기 면모를 뚜렷이 갖추어나가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옛날소설뿐만아니라 전설집, 사화집도 현대사람들이 알수 있도록 현대화하여야 합니다.》

원래 사화라는 말은 야사와 구별하여 부르는 말로서 야사가 민간에 떠도는 이야기를 묶은것이라면 사화는 력사적사실과 사건에 근거하고 《삼국사기》나 《고려사》, 《리조실록》과 같은 정사적내용에 기초하는 글이라고 할수 있다. 따라서 사화에는 력사에 실재한 사건과 인물이 수록되어 있을뿐아니라 그 자체내에 심각한 교훈이 반영되어있는것으로 하여 커다란 인식교양적의의를 가진다.

이전시기에도 사화를 구체적인 문학형태에 포함시켜 설명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다.

그중의 하나는 사화를 설화로 보는 견해인데 이렇게 규정한 근거는 사화나 설화가 형상방법이 일치할뿐아니라 설화적내용이 사화의 소재로 광범히 리용된 사정과 관련된다.

형상방법이 일치하다는것은 사화나 설화가 생활을 전설처럼 환상적인 장면이나 요소로가 아니라 현실그대로 진실하게 반영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설화작품인 《도미전》, 《설씨녀》에서 볼수 있듯이 인민적의상을 입은 거의 모든 설화작품들에는 인민들의 생활이 진실하게 반영되어 있을뿐아니라 봉건사회에 대한 계급적립장이 뚜렷이 표명되어있다.

이러한 설화작품들이 가지는 문학사적의의로 하여 《삼국사기》와 같은 정사에 기록되어 정사적 품격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사화와 설화는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우선 창작가의 측면에서 볼 때 설화는 인민창작으로서 그 창작가가 인민대중으로 되어 집체성을 가지지만 사화는 개별적인 작가에게로 한정된다.

또한 계승성의 측면에서 설화는 수백수천년이 지나도 그 내용이 상대적으로 공고한 반면에 사화는 작품의 창작의도에 맞게 생활이 첨부되고 인물관계가 맺어질뿐아니라 극적인장과 생활에 대한 방불한 묘사를 통하여 문학으로서의 발전면모를

뚜렷이 하고있다.

특히 계급적성격이 부여됨으로써 봉건사가들에 의하여 외곡되었던 사건들이 인민대중의 립장에서 재평가되어 사회의 인식교양적의의는 날로 증대되게 되었다.

끝으로 생활반영의 측면에서 볼 때 설화는 인민들의 생활을 반영하였다면 사화는 력사에 의의있는 사건이나 인물들을 취급하는 과정을 통하여 착취사회의 면모와 봉건통치배들의 부패한 모습을 고발하는데로 지향되어 보다 폭넓은 생활을 형상할수 있었다.

더우기 현시기에 들어와 사화창작가들은 설화와 전설, 력사기록과 개별적작가들의 문집 지어 고대가요와 같은 기성의 모든 문학형태와 력사이야기들가운데서 그것이 사람들의 인식교양에 이바지할수 있는 소재라면 적극 탐구리용하였을뿐아니라 단편으로부터 장편으로 그 형태를 부단히 개선하면서 새로운 형상원리와 수법을 탐구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런데로부터 사화를 설화로 이름짓기 곤난하다.

다른 하나는 사화를 전설로 보는 견해이다.

사화에 대한 최근의 주장으로 볼수 있는 이 견해는 작품의 주인공으로 선택되는 인물 다시말해 봉건위정자들에 대한 력사기록이나 이야기들이 전설적인 장면이나 환상적인 요소가 얹힌것과 관련된다.

전설은 지명전설, 풍속전설, 력사전설로 구분한다.

대표적인 력사전설들인 《고주몽전설》, 《박혁거세전설》, 《김수로왕전설》 등에서 볼수 있듯이 사가들이나 이야기군들은 환상적인 장면이나 요소와 같은 일정한 예술적허구를 력사적사실속에 고착시킴으로써 봉건위정자들에 대한 환상을 조장시키고 더 많은 청중을 끌어들이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사화와 력사전설의 창작원리는 전혀 상반된다.

사화는 자기의 고유한 특성으로 하여 사실성을 생명으로 하면서 과학적이며 생활적인 자료에 튼튼히 의거할뿐아니라 가령 력사전설을 소재로 택하는 경우에도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장면을 추려내고 대신 현실적인 내용들로 형상의 품위를 돋구었다. 동시에 사화에는 다양한 주제가 제시되고 력사전설만이 아닌 방대한 생활이 반영되어있는것으로 하여 력사전설로 규정할수 없는것이다.

사화는 력사실화문학이다.

사화라는 말은 문자그대로 력사이야기라는 뜻을 담고있다.

이야기라는 의미에서는 사화를 설화의 한 종류로 볼수 있다. 그러나 초기사화는 구전문학의 설

화일반과 구별하여 보아야 한다.

구전문학의 설화는 인민들의 집체적지혜와 재능에 의하여 예술적형상을 전제로 하여 창조된 문학이다.

초기사화는 이와는 달리 예술적형상을 전제로 한것이 아니라 순수 기록적인데 불과하였다.

지난 시기 문인들과 사가들은 력사적사건이나 사건, 인물들을 취급한 문학작품들과 정사기록들에서 력사이야기적인 소재를 발견하고 그것을 수집정리하는 방법으로 엮어나갔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예술적재형상에 대한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으며 실재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전달하는데 머물러있었다.

오늘 학계에서 사화를 문학으로 보아야겠는가 또 그 서술방법을 창작으로 규정해야겠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논의되고있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물론 초기 사화에서 문학적특성을 찾아보기는 어려우나 근대와 해방직후의 사화들에는 예술적형상문제가 언급되면서 차츰 문학성이 강조되었다. 그러다가 1980년대에 들어와서 예술적재형상이 심화되면서 사화는 력사실화문학으로서의 뚜렷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문학은 예술적허구로서 인간과 그 생활을 반영한다. 문학의 이러한 형상특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사화의 문학성을 부정하는것은 일방적인 견해이고 태도이다.

만일 오늘날까지도 사화의 문학성을 부정하고 지난날의 력사이야기를 다시 반복하고 복사하는 과정으로 그친다면 사실상 사화를 창작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사화의 문학성에 대해 의심할바 없는 중요한 리유는 우선 모든 문학형태의 발전과 함께 사화도 자기 발전의 길에 확고히 들어섰다는 데 있다.

원시가요가 현대가요로 발전하고 미숙한 산문이 오늘날 소설문학의 태아가 되였듯이 사화 역시 종래의 의연한 자세에서 벗어나 창작이라는 새로운 세계에 뛰어들어 독자적인 문학형태로 등장하게 되었다.

사화의 이러한 변화발전으로부터 출발하여 지난 시기와 오늘에 비추어볼 때 수집정리로부터 창작으로 그 개념이 완전히 이전되게 되었다.

사화의 문학성을 긍정하는 다른 하나의 리유는 창작가들의 창작심리와 책임과도 관련된다.

창작가들은 선택된 소재에 새롭고 질적인 형상을 부여함으로써 복고주의적경향을 피하고 인물과 사건의 실재성과 교훈적의미를 보다 강조하려고 시도하였다. 따라서 새로운 인물관계가 작성되고 묘사가 섬세하고 구체적으로 진행되였을뿐 아니라 다양한 사건조직들로 극성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예술적재형상과정은 력사적사건이나 인물의 과학성을 파괴한것이 아니라 오히려 력사를

보다 생동하고 방불하게 그려보임으로 하여 과학성을 증대시키는데 복무하였다.

동시에 이것은 창작가들에게 왕성한 창작적활력을 불어넣었고 새로운 형상세계를 요구하는 독자들의 심리를 충분히 자극할수 있었다.

사화의 력사적변천과정에 대한 이상의 해명을 통하여 특별히 강조하게 되는것은 과거에 사화가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씌워졌든지간에 오늘에 와서는 창작생리가 작용함으로써 그것이 문학의 한 형태, 다시말하여 력사실화문학으로 당당히 등장하게 되었다는것이다.

만약 이러한 변화와 그 변화의 필연성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어제날의 리론에만 매여달린다면 형상의 현대성은 물론이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보존에 대하여 기대할수조차 없게 된다.

왜냐하면 사화의 소재로 선택되는 사건과 인물은 질과 량적으로 부득불 제한을 받기마련이기때문이다.

하지만 창작의 세계는 무한하다. 독자들이 아무리 잘 알고있는 사건이나 인물이라고 하여도 극성이 부여되고 개성이 드러나면 보다 새로운 예술적감화력을 가지게 된다.

실지로 오늘에 와서 사화는 실화문학으로서 자체의 고유한 창작생리를 가지게 된것으로 하여 현실과 함께 약동하는 문학, 우리 인민들이 기대하고 관심하는 문학으로 되였을뿐아니라 자기의 뚜렷하고 개성적인 얼굴을 가진 문학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1980년대이후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사화창작활동은 전면적인 개화기에 들어서게 되였으며 결과 주체적립장이 확고히 선 우수한 작품들이 훌륭히 형상창조되게 되었다.

그 과정에 《임진 의 풍운아》(박병식), 《조선사화전설집》들과 수많은 장, 중편사화들이 출판되어 그 인식교양적의의를 증대시키게 되었다.

사화가 력사실화문학으로 되는 근거는 첫째로 사화형상과정이 사회적으로 절실하고 의의있는 문제들을 반영하여 해명하는 과정이라는데 있다.

창작가들은 력사적사건과 인물을 재현하는 과정에 거기에 순수 보도적흥미를 부여한것이 아니라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에 관한 문제로부터 출발하여 사람들이 생활하는 과정에 제기되고 보편화되고있는 시대적문제점들을 민감하게 반영하여 형상함으로써 그 교양자적의무를 훌륭히 수행해올수 있었다.

일제가 이른바 《조공설》과 《미마나 미야게설》과 같은 허황한 리론을 내두르면서 저들의 재침야망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미쳐날뛰고있을 때에는 《백제7지도》와 《배신자의 말로》와 같은 작품들이 형상창조되어 일본반동들의 책동을 단호히 분쇄해버렸을뿐아니라 민족의 원시조해명과 그 실재성에 대한 사회적분위기에 화답하여 《단군》,

병사는 고지를 내리지 않았다

정 운 남

계절도 꽃피는 봄날
제대배낭을 지고 고지를 내렸어도
강철전선에 파견장을 받은 내 마음은
1211고지 나의 초소를 내리지 않았다

철의 도시에 펼쳐진 환영의 꽃물결에
고지에 피어웃던 꽃향기 풍기고
황해제철소가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1211고지》라고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는
입대하여 내가 섰던 초소임을 속삭이고

우리 장군님 보내주신 제대병사들이라고
나의 손 잡아주던 지배인동지
우리 사단장동지같이
내 병사의 자세로 거수경례를 했노라

새롭지 않아라 낯설지 않아라
용해장에서 맞아준 로장아바이는
맏형처럼 따르던 중대장
내 가슴 툭 치며 일을 함께 잘하자던
그 용해공은 나의 첫 분대장 아닌가

용해장에선 용해공들이
합숙에 들어서면 합숙아주머니들이
나의 전우가 되어주고
병사시절 정치지도원의 아주머니처럼
어머니의 심정으로 나를 위해주나니

병사는 고지를 내리지 않았다
1211고지 전호속 포대경으로
적진을 노려보던 그 눈빛으로
보안경너머 뚫어번지는 전기로의 쇠물을 보며
총대가 어떻게 버려지는가를 알았노라

최전연초소 1211고지를 찾아주셨던 장군님
오늘은 쇠물끓는 전기로앞에 우리를 세우시고
사랑의 기념사진 찍어주실 때
쇠물아 네가 아니면 이 영광 생각할수 있었으랴

아 어제날 최전연 1211고지의 병사의 마음으로
강성대국의 강철기둥을 세워가며
영원한 장군님의 병사로 삶을 빛내가며
병사는 고지를 내리지 않았다



《부루왕자》, 《부루대왕》과 같은 단군관계장편
사화들이 련이어 창작되게 되었다.

오늘 사화는 근대에서 고대, 단편에서 장, 중
편, 애국주의에서 료리도덕에 이르기까지 력사
적시기와 형태, 주제의 범위를 끊임없이 확대하면
서 력사실화문학으로서의 현대적면모를 새롭게 혁
신하고있다.

사화가 력사실화문학으로 되는 근거는 둘째로
력사주의적원칙을 고수하면서도 창조적인 구성
전개와 인물관계설정, 생동하고 분석적인 묘사
로서 형상의 폭과 심도를 보장한다는데 있다.

사화형상에서 창작가가 특별히 힘을 넣어야 할
것은 인물의 배치와 사건전개가 항상 력사적사실
과 사건에 부합되어야 한다는것이다. 그렇다고 하
여 력사를 기계적으로 답습하면 그것은 력사적사
건에 대한 또 하나의 복사판으로 될뿐 아무런 형
상의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

《조선사화전설집》에 수록된 《강화도사건의
비사》와 《축성전》은 다같이 일체가 감행한 강
화도습격사건을 취급하고있다.

《강화도사건의 비사》가 순수 력사적자료들
을 라렬하는데 그쳤다면 《축성전》은 세자책봉을
구실로 자기의 권력적야욕을 실현해보려고 꾀하는
민비의 사대매국적책동과 그에 항거하는 박규수,

한갑복 등 애국적관리들과 인민들의 형상을 통하
여 력사적사건을 더욱 선명하게 파헤쳐보였을뿐아
니라 이야기에 시종일관 강한 극성을 부여할수 있
었다.

사화에는 어떤 사건을 취급하든지 반드시 인간
의 운명문제가 명확히 반영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놓고볼 때 《강화도사건의 비
사》는 력사적서술방법에 있어서 력사연구에 해당
한 작품이라고 말할수 있다.

사화는 력사적인물에게 체현된 개성적성격을 진
지하게 그려보이는 과정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교
훈을 줄뿐아니라 애정관계와 같은 다각적인 인물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여 작품의 정서를 더한층 북
돋아주었다.

새로운 형상의 창조는 문학일반의 요구이고 파
제인 동시에 성격과 생활에 대한 방불한 묘사로서
력사적사건을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도록 하게 하
는 가장 효과적인 방도로 된다.

사화창작가들은 력사적사건을 재생하고 조립
하는데 그치지 말고 력사주의적원칙과 현대성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보다 새로운 형상을 창조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것이다.

석 혁 철

리규보와 의인전기체소설 《청강사자현부전》

위대한 정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민족문화유산을 귀중히 여기고 옳게 계승할 때에만 문학예술을 자기 민족의 지향에 맞게 주체적으로 발전시킬수 있으며 그 민족성을 견결히 지켜나갈수 있다.》

백운거사 리규보(1168—1241)는 진보적인 미학견해를 가지고 창작활동을 한 당대의 대표적인 작가의 한사람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창작을 즐기었고 벼슬에는 애착을 가지지 않았다. 18살때부터 년장자들인 리인로, 립춘, 오세재 등 《해좌칠현》의 문인들과 깊이 사귀는 과정에 당대 현실의 불합리성을 더 잘 알게 되었으며 문학에 대한 견해에서도 그들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그는 26살에 우리 나라 시문학사에서 첫 서사시로 알려진 《동명왕편》을 썼고 그 다음해에는 시 《천보영사시》를, 또 다음해인 28살에 《3백2운시》를 지었다.

리규보는 자기의 현실체험에 기초하여 다양한 형식의 시들과 여러가지 형태의 산문을 창작하였다. 그가 쓴 시와 산문들의 대부분은 53권으로 된 문집 《동국리상국집》에 실렸는데 시는 2 000여수, 산문은 700여편이나 된다.

그의 대표적인 산문들만 본다면 《백운소설》을 비롯한 패설형식의 작품들, 《남행월일기》를 비롯한 려행기형식의 작품들, 《게으름병을 조소한다》를 비롯한 풍자산문들과 함께 《국선생전》, 《청강사자현부전》과 같은 의인전기체소설들이 있다.

여기서는 《청강사자현부전》에 대해서만 소개한다.

소설은 주인공 현부(의인화된 거부기)의 형상을 통하여 《어전》선비의 불우한 인생을 그린 작품이다.

주인공은 나라에 공을 세운 이름있는 가문에서 태어났다.

어느날 주인공의 재주가 뛰어났다는 소문을 듣고 임금은 사자를 보내어 조정으로 그를 불렀다. 하지만 현부는 사자를 거들떠보지 않고 《진흙속에 노닐이여 그 즐거움이 다함없도다. 벼슬길의 총애를 내 어찌 기약하랴.》고 하면서 거절하였다.

그후 예차(그물로 신령스러운 거부기를 잡았다는 사람)가 현부를 천거하고 그를 꼬여 임금에게 데리고갔다. 임금은 매우 기뻐하며 현부에게 벼슬을 주려고 하였다. 그러나 주인공은 벼슬은 자기의 본뜻이 아니라고 하면서 도로 보내달라고 청하였다. 임금은 현부의 뜻을 꺾을수 없다고 생각되어 그를 도로 보내려 하였으나 신하인 위평이 현부를 조정에 두어야 한다고 거듭 아뢰는 바람에 그의 뜻을 따르기로 하였다. 임금은 현부를 수현승에 등용하였다가 다시 도수사자로 승급시키려고 얼마 안있어 대사령의 높은 벼슬에 올려놓았다. 그후 임금은 나라의 흥망에 관한 중요대사를 늘 현부와 의논하여 결정하였다. 현부의 명망은 하루 아침에 온 나라에 알려지게 되었고 국가정사도 잘 되어나갔다. 그러던 어느날 왕은 현부에게 통담조로 이렇게 물었다.

《그대는 신명의 후손으로 길흉을 예측하는데(옛날에 거부기등껍데기를 구워 길흉화복을 점치는 풍속이 있었다.) 진작 제 손으로 자기 앞길을 열어가지 못하고 예차의 모략에 빠져 나에게 쓰임이 되었으니 어떤 일인가?》

그러자 현부는 《아무리 밝아도 보지 못하는데가 있고 지혜로와도 미치지 못하는데가 있기때문이다.》라고 대답한다. 그후 현부는 우매한 임금이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자 정계에서 소문없이 물러나 종적을 감추고말았다.

작품은 이렇듯 지혜있고 박식하며 길흉을 예측하면서도 불행하게 일생을 마친 현부의 후기를 덧붙이고있다. 다시말하여 그의 맏아들과 셋째아들은 《사람들한테 삶아먹히우고》말았고 둘째아들은 널리 이름을 날리였으나 자기의 뜻을 더 펴지 못하고말았다. 그의 자손들모두는 아무런 출세의 길도 걸지 못한채 남의 희생물이 되고말았다.

작가는 사가의 입을 빌어 이렇게 쓰고있다.

《지극히 적은데까지 살피어 그 어떤 징조를 미연에 방지한다는것은 성현도 혹시 어그러칠수 있는 법이다. 현부의 지혜로써도 예차의 모략을 미리 막지 못하였으며 또 두 자식이 삶아먹히우는것을 구해내지 못하였으니 그밖의 일이야...》

보는바와 같이 작품은 무신집권시기의 작가 자신의 불우하고 곡절많은 생활을 주인공 현부의 의인화된 형상을 통하여 그려내고있다.

작가자신도 어려서부터 비상한 재능이 있었고

또 과거에 급제하였으나 벼슬길을 단념하고 산속에 털우고 은거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여생을 보내려고 하였다. 뒤늦게야 원하지 않던 벼슬길에 나서서 조정의 높은 벼슬에까지 올랐으나 그만 간사한 신하들에게 물리어 약 2년간 위도에 가서 고독한 류배살이를 하였다. 이 기간 그는 벼슬길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겪는 불행과 괴로움을 체험하였으며 당대의 무신집권자들에 대한 저주와 증오의 감정을 더욱 절절히 느끼게 되었다.

그는 자기의 생활체험을 통하여 아무리 지혜있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무신집권하에서는 자기 뜻을 펼수 없고 나라의 흥망을 논의해야 한갓 조롱밖에 받을수 없으며 자칫하면 자기 가족 하나 구원할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작가는 자기의 이러한 사상감정을 의인화된 거부기-현부의 형상을 통하여 우의적으로 그리었다.

작품에 등장하는 봉건군주는 다른 의인전기체소설에 나오는 봉건군주와 별반 차이없는 무능하고 무지한 임금의 전형으로 그려져있다. 그는 현부를 등용시켜 나라의 흥망을 의논하면서 그의 지혜를 정사에 많이 리용하면서도 그가 조정에서 물러가

자 그의 자식들도 돌보지 않는다.

작가는 이러한 내용을 통하여 무신집권자들이 있는 한 벼슬길에 나서는것은 무모한 일이며 뜻을 가진 사람들은 벼슬자리가 차례진다 해도 선뜻 나설 필요가 없다는것을 사시하고있다. 여기서는 작가 자신의 당대 사회에 대한 불만의 사상 감정이 깔려있다. 그러면서도 작가는 어지러운 당대 사회를 어떻게 개혁할것인가에 대한 방도는 찾지 못했다. 따라서 작품에는 다만 《지극히 적은 데까지 살피여 그 어떤 징조를 미연에 방지한다는것은 성현도 혹시 어그리칠수 있는 법》이지만 애초에 《벼슬길의 총애》를 기약하지 말고 청렴하게 사는것이 제일이라고 주장하는데 그칠 뿐이다.

작품은 혼란되고 무질서한 당대 사회를 비판하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현실도 피정인 은둔사상이 반영되었다는 점에서는제한성을 가지고있다. 그리고 작품은 의인전기체소설만이 가지고있는 형상적인 부족점도 가지고있다.

리 학 철